

碩士學位論文

隆陵과 健陵에 관한 風水地理的 考察

2011年



漢城大學校 不動產大學院

風水地理專攻

許 永 勳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朴時翼

隆陵과 健陵에 관한 風水地理的 考察

A Study on Yung and Kern royal tombs based Fengshui

2010年 12月 日



HANSUNG
UNIVERSITY

漢城大學校 不動產大學院

風水地理專攻

許 永 勳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朴時翼

隆陵과 健陵에 관한 風水地理的 考察

A Study on Yung and Kern royal tombs based Fengshui

위 論문을 不動產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0年 12月 日



HANSUNG
UNIVERSITY

漢城大學校 不動產大學院

風水地理專攻

許 永 勳

許永勳의 不動産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10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目 次

제 1 장	序 論	1
제 1 절	研究의 背景 및 目的	1
제 2 절	研究의 方法 및 範圍	2
1.	研究의 方法	2
2.	研究의 範圍	4
제 2 장	風水地理의 根本思想	5
제 1 절	三神五帝思想	6
1.	三神思想	6
2.	五帝思想	6
제 2 절	陰陽五行思想	8
1.	陰陽五行說의 發生	8
2.	五行의 氣運	9
3.	五行의 相生과 相剋	10
제 3 절	生氣論	11
제 4 절	同氣感應論	13
제 5 절	孝道思想	15
제 3 장	風水地理 方法論과 構成體系	17
제 1 절	風水地理의 方法論	17
1.	問題의 提起	17
2.	形氣論	18
3.	理氣論	22
4.	物形論	25

제 2 절 風水地理 理論의 構成體系	27
1. 龍勢論	28
2. 穴勢論	35
3. 砂格論	38
4. 水勢論	42
5. 向法論	45
 제 4 장 隆陵과 健陵의 風水地理的 分析	49
제 1 절 朝鮮王陵의 理解	49
제 2 절 隆陵의 造成	53
1. 永祐園 遷園	53
2. 隆陵과 思悼世子の 生涯	56
3. 隆陵의 墓域 造成	58
4. 遷葬 關聯 主要 風水的 論議	60
제 3 절 隆陵의 風水地理的 分析	63
1. 祖宗山の 來歷	63
2. 來龍의 地氣	66
3. 四神砂의 局勢	68
4. 水勢와 坐向	70
5. 綜合分析	71
제 4 절 健陵의 造成	74
1. 健陵과 正祖의 生涯	74
2. 健陵의 墓域 造成	76
3. 陵地決定의 主要 風水的 論議	78
제 5 절 健陵의 風水地理的 分析	83
1. 祖宗山の 來歷	83
2. 來龍의 地氣	84
3. 四神砂의 局勢	84

4. 水勢와 坐向	86
5. 綜合分析	86
제 6 절 隆健陵의 風水的 評價에 따른 後孫發福 關係	88
 제 5 장 結 論	 94
 【참고문헌】	 98
ABSTRACT	102

【 그림 목 차 】

[그림 1] 오행과 각각의 의미	10
[그림 2] 오행의 배치와 상생.상극	11
[그림 3] 용의 종류	28
[그림 4] 용의 5단계 변화과정	29
[그림 5] 개장천심	30
[그림 6] 용의 과협	31
[그림 7] 혈의 형성	32
[그림 8] 정룡과 방룡	33
[그림 9] 용의 여기	34
[그림 10] 생왕룡(길격 5룡)	35
[그림 11] 혈판의 구조	36
[그림 12] 혈의 4가지 종류	37
[그림 13] 사신사	39
[그림 14] 사신사와 바람	40
[그림 15] 사신사의 반사경 작용	41
[그림 16] 사신사 반사경 방향	41
[그림 17] 물의 삼세	44

[그림 18] 조선왕릉 상설도	52
[그림 19] 대동여지도로 본 수원과 화산	56
[그림 20] 용릉 석상	60
[그림 21] 용릉과 정자각	63
[그림 22] 용건릉 위성사진	68
[그림 23] 용릉과 안산	70
[그림 24] 곤신지	71
[그림 25] 용릉의 용맥도	74
[그림 26] 건릉지 능원침내금양전도	77
[그림 27] 건릉 전경	83
[그림 28] 건릉과 안산	85
[그림 29] 건릉의 용맥도	88
[그림 30] 제22대 정조 가계도	89
[그림 31] 제23대 순조가계도	90
[그림 32] 제24대 헌종 가계도	91
[그림 33] 제25대 철종 가계도	92



제 1 장 序 論

제 1 절 研究의 背景 및 目的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災殃을 멀리하고 福祿을 부른다는 이른바 遠禍召福을 이루겠다는 것은 인류의 공통 관심사이다. 특히 인간은 天地라는 자연에 支配당하며, 자연속의 존재일 수 밖에 없다. 自然이란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공간으로서 하늘은 아버지, 땅은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땅은 사람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공간이자 만물을 生成, 成長시키는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人間은 하늘 보다 땅을 중시하며 거기에 초점을 맞춰 관찰함으로써 생활의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려는 데서 風水地理가 출발하였다고 하겠다. 이러한 땅의 모양과 형세 등에 따라 길흉화복이 달라진다는 인식하에 땅과 인간과의 相關關係를 관찰하고, 체험으로 터득하며 生活哲學으로서 계승 발전시켜온 것이 風水地理라 하겠다.

풍수지리는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리 박혀 내려져 왔으며, 생활철학이자 우리의 전통과 맥을 같이하는 중요한 사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風水地理學은 陰宅, 陽宅, 地理, 堪輿, 圖讖, 地學, 地術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워지고 있다. 風水地理는 "바람과 물의 순환이치(天) 그리고 땅의 형성과정과 지질적 여건(地)을 연구해 사람(人)이 자연 속에서 보다 건강하고 안락하게 살터를 구하는 동양의 지리관 내지 經驗科學的 學文이다."¹⁾, "인간의 생로병사 과정에서 인간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자연계의 지리적 環境法則을 탐구하는 학문이다."²⁾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풍수의 목적을 "地力을 향수하여 이로써 인생의 행복과 발전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운명개척법이다."³⁾, "인간이 하늘과 땅에 기대여 榮華를 꾀하는데 있다."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하여 보면 風水地理는 生氣 있는 땅(터)를 찾아 墓자리를

1) 고제희, 『정통 풍수지리 교과서 1』, 문예마당, 2009, p10

2) 이명범, 『풍수지리학 강의요강』, 이화문화사, 2005, p19

3) 村山智順, 『한국의 풍수』, 정현우 역, 명문당, 2009, p29

4) 정관성, 『확트이는 풍수 꼭잡히는 지리』, 청학출판사, 2007, p16

잡거나 건물을 건축하며, 촌락 또는 도시를 입지시키므로써 각각 후손부귀, 건물 거주자의 인생번영, 都村의 성장.발전을 도모하려는 運命開拓學文이다. 즉 風水地理는 주어진 運命에 굴하지 않고 生氣라는 자연의 힘을 이용하여 인생과 국가 등의 運命을 적극적으로 바꾸려는 "터 잡기 학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

風水地理學은 땅이라는 自然으로부터 生氣를 받아 인간 생활의 행복과 번영을 도모하려는 우리나라의 傳統的인 生活哲學이다. 또한 自然을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적극적으로 運命을 바꾸려는 運命開拓 學文이라 하였다. 이러한 風水地理의 思想과 精神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脈을 같이 해오고 있고 현재에도 陰宅, 陽宅 그리고 陽基風水 분야 등 적용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本 研究는 2009년 6월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의 일부인 隆陵과 健陵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隆陵은 思悼世子와 그의 비 혜경궁 홍씨(惠慶宮 洪氏)의 능이며, 健陵은 정조와 왕비 효의왕후(孝懿王后)의 능이다. 隆健陵이 입지하고 있는 화산은 조선시대 수원부가 위치하였던 곳으로서 동구릉의 元陵과 여주 寧陵과 더불어 조선 3대 명당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곳이다. 隆健陵의 조성을 둘러싸고 임금과 신하, 기득권 세력과 신진세력, 정치노선을 달리하는 각 당파 등 利害者集團間에 운명개척을 위하여 풍수지리가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역사적 사료를 통하여 밝혀내고, 아울러 隆陵과 健陵을 形氣風水와 理氣風水 理論을 적용하는 방법으로吉凶을 분석하고 後孫發福과의 關係를 조사하는데 있다.

제 2 절 研究의 方法 및 範圍

1. 研究의 方法

風水地理는 너무 많은 理論과 學說이 존재하고 있어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혼동이 되어 학문의 달성을 이루기가 힘들다. 아마

우리의 傳統 思想 중에서 가장 偏見이 많은 학문중의 하나가 風水地理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風水地理의 본질이 눈에 보이지 않는 氣理論 등을 토대로 이루어진 만큼 현대과학으로도 증명이 되지 않아 일반대중으로부터 非科學的인 학문으로 비취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風水理論과 학설의 다양성은 穴을 찾는 방법에 있어서도 形氣論, 理氣論, 物形論으로 갈라져 있어 風水地理學을 이해하는데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風水地理는 우리 민족의 저변에 깊이 뿌리박힌 生活哲學으로서 수천년 동안 우리의 역사와 같이해온 만큼 나름대로의 논리성이 있고 보편타당성 있는 학문으로서 검증이 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風水를 해석하거나 접근하는 방법 등이 歸一되지 않음에 따라 다른 학설을 서로 인정하기 보다는 배척하는 경우가 많아 風水學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風水地理學은 학문적 발전보다는 迷信이나 超現實的인 하나의 雜術로 여겨져 장래 설 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風水地理學의 理論的 根據이자 存立의 前提가 되는 근본적 사상에 대하여 제2장에서 설명을 하고, 山勢의 模樣이나 形勢 등을 눈으로 보고 생기가 맺힌 혈을 찾는 形氣論, 佩鐵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측정한 水口를 기준으로 山勢와 물의 길흉을 판단한 후 穴과 墓의 방향을 정하는 理氣論, 山川의 모양과 배치를 보고 穴을 찾는 物形論으로 크게 3개의 유파로 대별할 수 있는데 제3장에서는 風水地理 3流波의 方法論에 대한 概念과 限界點 등을 제시하였으며, 풍수지리의 이론체계를 龍勢論, 穴勢論, 砂格論, 水勢論, 向法論으로 구분 설명하였다.

隆健陵의 경우 思悼世子の 죽음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 朝鮮의 文藝復興期를 이룩한 正祖의 치세 동안과 死後의 宮內의 역학관계, 그리고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政略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가운데 조성된 王陵으로서 陰宅風水의 眞髓라 할 수 있다. 보통 왕이 昇遐하게 되면 國喪 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뿐만 아니라 國喪인 만큼 한 국가의 인적,물적자원 등 모든 국력이 총동원되며, 山陵의 所點과 造成을 위하여 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地官이 선출된다. 따라서 王陵의 경우 당시 적용되던 風水地理 理論

이나 정치적 목적 등이 모두 집결되었을 것이므로 제4장에서는 朝鮮王朝 實錄 등 문헌의 기록과 隆健陵을 실제 답사한 자료를 통하여 風水的 吉凶 評價와 風水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제5장 結論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였다.

2. 研究의 範圍

본 연구는 風水의 연구대상인 陰宅, 陽宅中 陰宅風水에 한정하였으며, 風水의 方法論의 하나인 理氣論의 경우 『地理五訣』이 가장 경험이 많이 축적된 문헌으로서 보다 진보적이고 완벽하다고 판단되어 向法과 관련하여서는 동 문헌을 근거로 이론체계 정리와 風水的 評價를 하였다.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에 위치한 隆健陵의 풍수지리학적인 특징을 조사하기 위하여, 新山經表에 따른 祖山의 내력과악, 현장조사 실시, 기타 文獻上에 나타난 風水的 評價 등을 참고하였다

地勢分析을 위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하는 축적1/5,000의 등고선 지도를 활용하였으며, 隆健陵의 풍수적인 평가가 후손에 미치는 吉凶禍福의 영향과 관련 隆健陵에 한정하고 先代 王陵, 초장지 등 용건릉 외의 왕릉에 대한 風水는 고려하지 않았다. 용건릉의 천장과 능지 소점에 관한 풍수적 논의는 주로 『朝鮮王朝實錄』, 『弘齋全書』에 나타난 부분을 인용하였다.

특히 王陵을 風水的으로 평가하는데 있어 王陵이 위치한 터의 地氣 응집여부 등 일반적 風水事項만 조사하였으며, 厭勝 또는 裨補風水라 할 수 있는 王陵의 石物設置, 植栽 등에 관하여는 고려하지 않았다.

제 2 장 風水地理의 根本思想

風水地理의 存立의 전제가 되고 이론의 근거가 되는 사상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즉 生氣, 同氣感應, 地母神, 三神五帝, 陰陽五行, 河圖洛書, 九星과 本命星, 所主吉凶⁵⁾, 土俗信仰, 孝道思想 등의 예를 들수 있다. 이러한 思想이 複合的으로 작용하여 태어난 風水地理이지만 아직도 비과학적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迷信으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다. 이는 風水地理 理論의 根據가 되는 제사상의 이해부족에서 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風水地理란 우리의 생활속에 가장 깊게 뿌리내려 있는 信仰과도 같고 人類의 生活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經驗科學적 學文으로서 보다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風水地理의 理論的 根據가 되는 諸思想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運命이란 말은 인간을 포함한 우주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필연적이고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 힘에 의하여 신상에 닥치는 吉凶禍福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 힘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느끼고 믿어 왔기 때문에 예로부터 모든 民族의 神話나 宗教 및 思想에 나타나고 있다.⁶⁾

본고에서는 風水地理 理論的 根據로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三神五帝思想, 陰陽五行論, 生氣와 同氣感應論, 孝道思想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5) 최창조 교수가 새로 만들어낸 용어로서 소주길흉론이라는 용어는 지금까지의 풍수분야에서 독립시켜 사용한 개념은 아니다. 이 말의 출전은 명나라 초기에 서선계(徐善繼), 서선술(徐善術) 형제가 쓴 『인자수지 자효지리학(人子須知 資孝地理學)』이란 책의 내용중 "이십사룡소주길흉길(二十四龍所主吉凶)"이란 표현에서 나온 것인데 사람과 관계되는 풍수이론을 종합하여 표현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소주길흉론에서 가장 중용한 것은 풍수사상의 철저한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창조, 『최창조의 새로운 풍수이론』, 민음사, 2009, p45)

6) 김종의, 『자연의 원리 땅의 이치』, 세종출판사, 2007, p129

제 1 절 三神五帝思想

1. 三神思想

韓半島에 살던 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강력한 獨立國家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하느님을 崇拜하며 높은 산 정상에서 제사를 지냈다. 하느님은 조물주로서 모든 인간과 자연을 創造하는 유일한 신이었다. 하느님이 만물을 창조하는 작업은 三神을 통해 이루어진다. 곧 삼신은 하느님을 대신해서 사람의 생사와 관련된 역할을 한다. 三神思想에는 유교에서 주장하는 현실세계와 불교에서 주장하는 마음, 곧 영혼의 세계 그리고 신선사상에서 주장하는 인간과 영혼의 合一思想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三神思想은 現實世界는 靈魂의 세계와 직결되어 있다고 해석한다. 영혼의 세계가 현실세계로 나타난 것이 현상세계다. 영혼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는 동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人間은 靈魂의 세계인 하늘나라에서 내려와 죽으면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간다. 사람이 현상세계에 있는 기간은 영혼이 육체를 얻는 기간이므로 축복의 기간이며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 순간이다. 喜怒哀樂은 인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이다.

三神思想에는 儒敎, 佛敎, 神仙思想의 세가지 종교이론이 모두 결합되어 있다. 예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三神에게 감사드렸고, 사람이 늙어 죽으면 삼신을 통해 하늘로 돌아갔다고 믿었다. 三神의 상징은 삼태극(三太極)이다. 삼태극 문양은 신라시대에 왕가에서 사용하던 보검에도 새겨져 있으며, 조선시대 왕릉입구에 있는 홍살문에도 그려져 있다.⁷⁾

2. 五帝思想

五帝는 하느님의 작용을 도와주는 다섯 신이다. 이 신들은 각각 다른 기능을 갖고 있으며, 東. 西. 南. 北. 中央이라는 각각의 위치에 따라 서로 떨

7)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pp44-45

어져 있다. 또한 각각 고유한 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섯 가지 색깔, 곧 五色을 상징되기도 한다.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신은 파란 옷을 입고 있어 청제(靑帝)라고도 하며, 여러 生命體를 誕生시키는 역할을 한다. 청제는 목성에 위치하고 있다. 동녘의 신 청제는 동쪽의 기운처럼 태양이 솟아오를 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生命力을 갖고 탄생하게 한다. 봄에 나무가 하늘을 향해서 크게 자라는 것이 바로 동제의 대표 기능이다.

남쪽에 있는 신은 언제나 붉은 옷을 입고 있어서 주제(朱帝) 또는 적제(赤帝)라고 한다. 뜨거운 태양처럼 청제가 만들어 놓은 기운을 확산시켜 널리 뿌리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화성에 위치하고 있다. 하늘 서쪽에 위치하면서 하느님의 힘을 대신하는 신은 언제나 하얀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백제(白帝)라고 한다. 백제는 주제(朱帝)가 번성시킨 생명체의 확산기운을 정치시키며, 다음을 위해 쉬게 해서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 금성에 위치한다.

하늘 북쪽에 위치한 신을 현제(玄帝)라고 한다. 언제나 검은 옷을 입고 있다. 현제는 백제가 죽인 생명체를 편안히 휴식하게 하는 신이다. 그 기간은 다음 생명체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준비기간이다. 수성에 위치하고 있다. 중앙에 있는 신이 황제(黃帝)이다. 황제는 동서남북의 중앙에 위치하며, 노란 옷을 입고 있다. 황제의 기운은 사방의 기운을 종합한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넷보다 가장 중심적인 기운이다. 토성에 위치한다.⁸⁾

이와 같은 三神五帝思想은 만물이 생성하고 성장하고 사멸하여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순환의 모든 과정을 관장하는 사상으로 풍수에서의 동기감응, 즉 조상과 자손과의 인과를 말하고 있는 同氣感應思想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상은 고대인들에게 고인돌이라는 무덤양식으로 영혼 불멸의 사상을 발전시키게 되었고, 靈魂不滅의 思想은 조상과 자손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연결고리로 이어진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⁹⁾

8) 박시익, 『전계서』, pp41-45

9) 홍성서, 『풍수지리에서의 동기감응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p9

제 2 절 陰陽五行思想

1. 陰陽五行說의 發生

陰陽五行說은 주역(周易)에서 나온 철학사상이다. 주역은 삼경(三經)중의 하나로 주(周)나라 초까지 무속(巫俗)과 점서(占筮)에 관한 책이었으나 주 문왕(周文王)과 공자(孔子)가 이를 연구하고 완성시킨 경전으로 천문지리서로서의 가치도 지닌다. 동양철학에서는 우주의 본원(本源)은 서양에서의 에너지(Energy)라 부르는 기(氣)이다. 기(氣)는 사람이 먹어서 얻는 기(氣)가 아니고 원초적이고 본원적인 에너지이다. 현재는 두 개의 글자를 하나의 의미로 통합하여 사용하고 포괄적으로 기(氣)로 사용된다.

인간사와 자연 만물의 모든 현상을 음양(陰陽) 두 가지 원리로 설명하는 음양설과 이 영향을 받아 만물의 생성소멸(生成消滅)을 목(木), 화(火), 수(水), 금(金), 토(土)의 변전(變轉)을 설명하는 오행설을 함께 묶어 음영오행이라는 말이 생겼다. 陰陽의 思想에서 宇宙는 근본적으로 두 개의 기운으로 뭉쳐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陰陽은 相剋의 조건을 지니지만 상대적인 개념으로 配合하고 보완하여 조화를 이루어 만물이 창조되고 형성된다는 이론이다.

陰陽은 서로 대립과 제후를 통해 만물을 형성한다. 양은 다시 양과 음으로 분리되고, 음 또한 다시 陽과 陰으로 분리된다. 이를 사상(四象)이라고 한다. 사상은 곧 태양(太陽), 소양(少陽), 태음(太陰), 소음(少陰)이다. 사상이론은 동양의 의학사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사상의학(四象醫學)의 태동을 불러왔다. 四象은 陰陽으로 분류되어 太陽은 乾과 兌로, 소음은 離와 辰으로, 소양은 巽과 坎으로 태음은 艮과 坤으로 된다. 효(爻)가 3개가 모여 이루어진 것을 괘(卦)라 한다. 사상이 다시 음양 분리하면 각각 3개의 효로 이루어진 8개의 괘로 변한다. 이를 팔괘(八卦)라 한다.¹⁰⁾

陰陽五行說이 합칭한다 하더라도 음양설(陰陽說)과 오행설(五行說)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즉 陰陽說은 우주의 현상을 둘로 대립시켜 天地, 日月,

10) 안중선, 『전통의 문화 음택풍수』, 매직북, 2009, pp84-89

動靜, 生滅, 盛衰, 男女, 明暗, 大小와 같이 우주의 존재 및 그 활동을 모두 대립적 관계에서 이루어 진다고 보는 것이며, 한편 五行說은 만물을 그 구성적 관계에서 관찰하고 삼라만상은 모조리 목화토금수라는 5원소의 이합집산(離合集散)의 다소(多少), 유무(有無)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 한다. 따라서 음양설과 오행설은 하나의 우주현상을 양쪽에서 관찰한 것일 뿐 조금도 충돌되거나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 두 가지가 相互補完關係이며, 相互依存關係이며, 不可分離의 關係인 것이다.¹¹⁾

2. 五行의 氣運

五行의 정의는 모든 사물의 時空을 超越하여 다섯 가지의 성질을 나누어 가졌다는 것이다. 모든 사물에 五行을 적용하면 단지 방향이나 사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글자, 생각, 몸의 장기, 숫자에 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¹²⁾

五行이란 水, 火, 木, 金, 土의 다섯가지 기운이다. 水는 물처럼 아래로 내려가는 기운이다. 모든 물체는 아래로 떨어지는 성질을 갖는다. 이것을 물리학에서는 중력이라고 하며, 오행 가운데 물의 성질에 해당된다. 물은 마치 겨울의 기운과 같다. 겨울에는 온도가 아래로 내려가고 생명체는 활동력이 거의 정지된다. 이는 다음 기간까지 生命力이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木은 나무와 같이 수직상승하는 기운을 말한다. 하늘로 올라가려는 성질이다. 木의 기운은 물리학상 원심력에 해당한다. 木은 사계절 가운데 봄에 해당한다. 봄에는 모든 生命體가 희망차게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다. 솟아오르는 생명력이 바로 목에 해당된다. 火의 기운은 불꽃과 같이 기운이 사방팔방으로 확산되어 폭발하는 힘을 말한다. 불은 힘이 격렬하게 분출되는 것을 뜻하며, 태양열 같은 성질이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열 에너지가 이에 해당된다. 불에 해당하는 계절은 여름이다. 여름에 나무가 무성해지고 꽃이 만발하는 것도 그 힘을 확산하려는 현상이다.

수축하려고 하는 힘을 金이라고 한다. 겨울이 되면 모든 물체는 쌀쌀한

11) 이명범, 『전계서』, pp50-51

12) 안종선, 『전계서』, p95

기운 때문에 움츠러 든다. 중심점으로 향해 움츠러드는 현상이 金이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구심력이 여기에 해당된다. 금은 가을의 기운에 해당된다. 土는 水火木金의 기운을 끌고루 갖고 있는 기운이다. 土는 균형을 유지하는 작용을 한다. 서로 다른 네 기운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는 포용력을 지니고 있다. 이는 마치 흙이 모든 생명체를 포용하고 있는 것과 같다. 토는 한 계절에서 다음 계절로 넘어가는 중간쯤을 의미한다.¹³⁾

오행	방위	수	계절	색	사신사
수(水)	북	1, 6	겨울	검은색	현무
화(火)	남	2, 7	여름	붉은색	주작
목(木)	동	3, 8	봄	푸른색	청룡
금(金)	서	4, 9	가을	흰색	백호
토(土)	중앙	5, 10	변절기	노란색	사람

<그림 1> 오행과 각각의 이미

3. 五行의 相生과 相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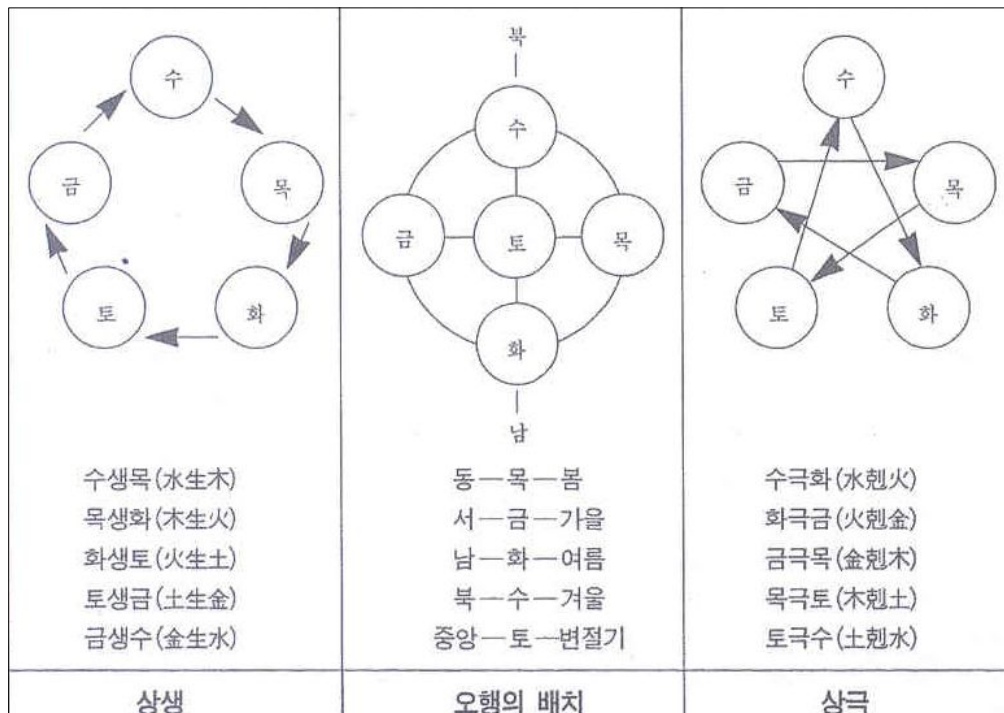
오행이란 水, 火, 木, 金, 土 다섯 가지로 우주의 森羅萬象을 형성하는 요소이다. 木生火하고, 火生土하고, 土生金하고, 金生水하고 水生木하는 相生原理와 木剋土하고, 水剋火하고, 火剋金하고, 金剋木하는 相剋原理는 우주만물에 적용된다. 따라서 地氣의 大小吉凶과 地運의 長短盛衰도 이 五氣의 生剋原理와 循環法則에 의하여 결정된다. 때문에 天地自然의 生氣와 吉氣를 어떻게 수렴증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吉凶禍福이 달라진다는 것이다.¹⁴⁾

다섯 기운은 각각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기운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 관계는 크게 상생과 상극으로 나뉜다. 相生이란 한 기운이 다른 기운을 북돋아 주고 만들어 주는 것이다. 오행 각각의 기운은 서로 싫어하는 기운이 있는데 이러한 관계를 상극이라 한다.¹⁵⁾

13) 박시익, 『전계서』, pp47-48

14) 이명범, 『전계서』, pp50-51

15) 박시익, 『전계서』, pp48-50



<그림 2> 오행의 배치와 상생.상극

제 3 절 生氣論

기(氣 ; Chi)의 개념정의는 여러 風水 뿐만 아니라 성리학이나 한의학 등에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서구에서도 기에 대한 다양한 번역, 예컨대 Energy, Vital Energy 등으로 번역을 시도하다가 기를 제대로 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아예 중국발음 "Chi"로 표기할 정도로 중요한 개념이다. 풍수에서도 땅을 보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 땅의 기를 파악하는 것인 만큼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지만 딱히 하나의 문장이나 단원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이 바로 氣이다.¹⁶⁾

氣란 흐름을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사람의 호흡뿐만 아니라 생명력.활동의 근원이란 포괄적인 뜻을 지니고 있다. 구체적으로 만물 생성의 근원이며, 심신의 세력이기도 하며, 自然現象을 나타내는 기운이기도 하고, 공기. 호흡.기질.마음.기후 등에 있어서의 근원적인 매개체의 의미로 사용된다.

16) 김두규, 『풍수학 사전』, 비봉출판사, 2005, p85

사람에 있어서는 특히 생리적 의미가 강하며, 심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에도 어느 정도 생리적인 의미가 첨가되는 것이 보통이다.¹⁷⁾

氣를 간단히 정리하면 "에너지의 흐름"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우주만물의 成長消敗현상은 움직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힘을 바로 氣라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氣에라는 것은 우주생성의 구성요소임과 동시에 사물의 존재에 작용하는 에너지로서 우주만물의 성장소패는 결국 이 氣의 작용으로 표출된 것이다. 이러한 氣는 陰陽論에 의해 陽氣와 陰氣로 구분하기도 한다. 또 음양변화와 동시에 사물과 사물 간에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사물의 관계를 관찰하여 공통된 氣質別로 구분해 놓은 것이 水, 火, 木, 金, 土다. 이를 오행이라 한다.

陰陽五行說에 의하면 우주만물의 창조와 소멸, 자연현상의 변화와 주기 그리고 사람의 운명까지도 지배하는 것은 결국 모두 "氣의 作用"으로 표출된 것이다. 땅(土地)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근원이다. 이 지구 생명체(사람, 동물, 식물 등)는 땅속에 있는 氣의 작용인 것이다. 그리하여 이 地氣의 상태를 알고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地理인 것이다. 사람의 氣가 경락을 타고 흐른다면 땅속의 氣는 山脈과 水脈을 타고 흐른다. 한의사가 인체의 경락에서 기의 상태를 살핀다면 풍수사는 地勢와 물(得水, 破口)을 보고 氣의 상태를 살핀다. 땅속에 있는 氣가 생명력을 가질때 이것을 生氣라고 하는데 이는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라 生氣가 있는 곳도 있고 생기가 없는 곳도 있다. 이 생기는 인간에게 바로 영향을 준다. 그리하여 생기가 머무는 곳을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風水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¹⁸⁾

氣는 우주와 자연을 변화시키고,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의 운명을 지배하는 원동력이다. 풍수는 이 氣를 生氣라 부른다. 생기는 일단 陰陽으로 나뉘어지고, 음양이 다시 五行인 木火土金水로 되어 활동함으로써 비로소 만물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한다.¹⁹⁾

17) 김종의, 『전계서』, p94

18) 강남철, 『땅 백을 찾아서』, 문두사, 2006, pp4-5

19) 고제희, 『전계서』, 동학사, 2008, p23

오행의 기는 땅속으로 흐르다가, 발양되어 만물속에 살아있다(五氣行乎地中, 發而生乎萬物).²⁰⁾

따라서 生氣는 풍수이론의 가장 근본적인 골격을 이루고 있다. 만물을 생성하고 성장시키는 氣가 땅속에 존재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風水地理는 시작되어야 하고 만약 이를 부정할 경우 풍수는 학문적이든 미신적이든 간에 더 이상 존립할 수 없게 된다.

제 4 절 同氣感應論

萬物을 생성시킬 수 있는 잠재적 힘으로서의 氣가 뭉쳐진 것을 풍수에서 生氣라 한다. 그러므로 生氣가 있는 곳에 사람의 유체를 두게 되면 그 유체에 生氣가 들어가서 후손에게 감응을 한다는 것이 곧 感應論이다. 사람이란 氣의 응결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 가운데도 가장 단단하게 뭉쳐진 것이 뼈이기에 사람이 죽으면 생기를 간직한 뼈만 남게 되고 그 뼈가 다시 생기를 얻게 되면 그 生氣는 같은 기운을 지닌(同氣) 후손에게 전달된다는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항상 몸을 움직이고 머리로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氣가 필요하다. 따라서 필요한 기운은 음식과 호흡을 통해 흡수하지만 이외에도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사람의 기운을 도와주기도 한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뼈가 땅속에서 받은 땅의 기운은 자기 자신이 쓸 곳이 없기 때문에 자연히 자기의 분신인 자식에게 그 氣를 보내게 된다는 의미이다.²¹⁾

生氣란 형체를 찾아 볼 수 없으나 만물을 창조시키고 자연을 변화시키는 에너지이다. 유골이 생기를 얻으면 感應을 일으키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응험(應驗)이 나타난다. 유골이 받은 음기는 후손들과 기의 波長에 의하여 전달되는데 반드시 유전적으로 일치하는 자손에게 전달되므로 직계 후손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同氣感應은 어른에 비하여 사물을 받아들이는 속도와 양이 큰 어린이에게 빠르게 나타난다. 同氣感應은 묘를 조성하고 난

20) 장성규·김혜정, 『완역 풍수경전』, 문예원, 2010, pp222-223

21) 김종의, 『전계서』, pp96-97

이후에 태어난 자손에게 크게 나타난다. 同氣感應은 혈육의 간격이 멀어질수록 영향력이 떨어진다. 이는 유전자의 밀착성과 상이성 때문이다. 아울러 지나치게 오랜 기간 동안 감응하는 것도 아니다. 同氣感應의 범위는 대략 30년 안팎에서 4대조 120년까지로 본다. 조선시대에 4대를 봉사(奉祀)한 이유는 조상의 유골이 4대에 걸쳐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풍수적 이론과 관련이 있다.²²⁾

『葬書』에서는 만물은 同氣間이므로 지기와 인체의 감응 및 인체와 인체의 감응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반응이 빠르고 직접적인 관계로 보았다. 風水地理學에서는 흔히 이것을 同氣感應論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풍수지리학의 同氣感應論을 혈육간의 감응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좀더 자세히 보면 『葬書』에서의 감응은 지기와 유골, 유골과 인체의 관계로 구분된다. 만약 全氣之地가 있어서 그 곳에 유골을 묻을 경우 지기는 유골에 전달되고 유골은 그 생기를 다시 후손의 생체로 전달시킨다는 것이다.²³⁾

사람은 부모에게서 몸을 받는다. 부모의 遺骸(本骸 즉 부모 시신의 유골로서 피와 살은 썩어 흙으로 돌아가고 남아 있는 뼈만 일컬음)가 氣를 얻으면, 그 남긴 바 몸인 자식(遺體)은 음덕을 받는다(人受體於父母, 本骸得氣 遺體受蔭).²⁴⁾

風水地理는 땅(대지)을 광물, 무생물, 지하자원이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비롯해 천지만물을 탄생시키고 길러내며 나아가 결실을 맺게 하는 기운 즉 地氣를 가진 어머니와 같은 생명체다.²⁵⁾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상을 地母思想이라 하는데, 땅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죽어서 땅속에 묻히게 되면 어머니인 땅의 生氣가 부모의 유골로 전해지고, 부모의 생기가 다시 자식에게 전달된다는 등식이 성립하게 된다. 사람을 땅 자체를 어머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땅에서 생기를 받는다는 것은 어머니로부터 생기를 받는다는 것과 동일하게 여긴다. 이것이 바로 風水의 本質이자 풍수의 핵심이론인 同氣感應이다.

同氣感應論은 풍수 적용대상 중에서도 특히 陰宅風水의 본질에 해당하

22) 안중선, 『전계서』, pp116-117

23) 장성규·김혜정, 『전계서』, p195

24) 곽박, 『장서』, 최창조 역(청오경·금낭경), 민음사, 2008, pp62-63

25) 고제희, 『전계서』, p15

는 사항으로 근래에 와서 臨床實驗을 통하여 이를 검증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풍수의 최고 경전중의 하나인 『葬書』에 동기감응론이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구리광산이 서쪽에서 무너지면 영험한 종의 동쪽에서 응하는 것이다(是以東山西崩, 靈鐘東應).

봄이 되어 밤나무에 꽃이 피면 알밤들은 집안에서 싹을 틔운다(木華於春, 栗芽於室).²⁶⁾

이상의 同氣感應論을 정리하여 보면, 생명력 있는 氣, 즉 生氣를 매개체로 하여 땅의 生氣가 무덤에 묻혀있는 조상의 유골의 기와 감응하여 전달되고, 祖上 遺骨의 氣는 살아있는 후손의 기가 서로 감응하는 한다는 일련의 시스템으로 陰宅理論의 骨幹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천지 자연의 氣와 사람의 氣가 서로 感應한다는 구조로서 음기와 양기, 오행의 기가 서로 작용하여 陽宅과 陽基 풍수이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同氣感應論이란 풍수지리 논리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이론으로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風水地理가 존립할 근거가 없게 된다

제 5 절 孝道思想

孝道는 옛날 씨족사회가 가족 공동생활로부터 자연적으로 생겨난 사람의 행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참모습으로서 萬古不變의 眞理이며 윤리도덕의 샘(泉)이다. 부처님도 經典과 父母恩重經을 노래하여 부모님 은혜가 높고 소중함을 가르쳤고, 하느님도 十誡命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쳤으며, 공자님도 孝經을 통하여 “父子之道天性也”라고 가르쳤다. 이렇듯 사람들의 효행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聖人도 이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으며 勸獎하지 않을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진 고귀한 것이다.

動物은 祖上과 父母 兄弟를 모른다. 일정기간 자란 후에 그 어미와 헤어진 동물중에 이 세상 어디에 그 父母兄弟와 祖上을 알거나 찾아 崇拜하는 動物이 있는가. 동물인 일정기간 자라서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26) 장성규·김혜정, 『전제서』, pp226-227

지만 어미의 보호가 필요할 뿐이다. 또한 어미가 새끼를 일정 기간 보호하는 것도 단순한 본능에 불과한 것이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동물중에 자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 자식을 잊지 못하고 寤寐不忘 사랑하며 위하고, 또한 그 자식은 부모와 조상을 섬기고 공경하고 그 얼을 기리며 전통을 이어가는 존재는 우리 인간뿐이다.

돌아가신 父母와 祖上에 대해 애석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근 은혜를 추모하며, 엄숙한 제와 예를 奉行해야 하는 것이 자손의 도리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생전의 부모와 조상을 섬기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참 효행은 幽宅을 자연의 진리에 맞는 안정된 묘터에 마련하여 安葬하고, 그 묘역을 잘 관리 보전함으로써 유골이 酸化되지 않고 자연의 생명에너지가 凝縮되어 醇化原理에 따라 순조롭게 還元作用하게 되어야만 그 부모와 조상의 유골이 편안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편히 쉬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참 孝行이라고 하겠다.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에 대한 참 효행은 풍수지리에 대한 진리와 원칙을 잘 善用하여 死後의 祖上 遺骨과 靈魂을 便安하게 해 드리는 것이며, 그리하여 조상의 환원생명에너지가 자손의 생명에너지와 同調하여 자손이 오랫동안 창성하고, 그 창성한 자손들이 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기여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면, 이것이 곧 조상에 대한 참 효가 되는 것이다.²⁷⁾

27) 이익중, 『길한터, 흉한터』, 우성출판사, 2003, PP24-29

제 3 장 風水地理 方法論 및 構成體系

제 1 절 風水地理의 方法論

1. 問題의 提起

風水地理의 이론은 陰宅이나 陽宅을 선정할 때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공간의 氣運을 分析하는 작업에서 출발한다.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기운은 크게 자연적 기운과 인위적 기운으로 구분하다. 자연적 기운이라 산이나 강, 방위 등 자연지세에 따라 생기는 氣運을 말한다. 인위적 공간이란 사람이 만든 空間에서 생기는 氣運을 말한다.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땅을 살펴보는 것은 한마디로 그 지역의 바람과 물을 살펴보는 작업이다. 바람과 물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산세와 강물 등의 조건을 살피게 된다. 이렇듯 산과 물의 지세를 분석해서 명당자리를 정확하게 찾는 것이 풍수의 핵심 목적이다.²⁸⁾

陽宅論은 陽氣論²⁹⁾이라고도 하며, 風水地理의으로 좋은 땅을 찾아 택지를 선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양택은 대체로 두 개의 분야로 나뉜다. 하나는 개인의 주택이나 건물이 들어설 택지선정에 관한 작은 범위의 양택풍수다. 다른 하나는 도읍지나, 신도시, 읍, 부락 등 공공의 택지선정에 관한 광범위한 陽宅風水다. 대개 陽宅과 陽基를 混用하거나 마을에 관한 것이면 마을풍수, 도읍선정에 관한 것이면 도읍풍수로 편의상 불렀다. 그러나 양기와 양택은 엄밀히 구분된다. 전체적인 것은 양기풍수이고, 개인적인 것은 양택풍수다.³⁰⁾

그렇다면 풍수의 적용대상은 크게 陽宅風水, 陰宅風水, 陽氣風水로 대별

28) 박시익, 『전계서』, pp35-36

29) 陽基라는 것은 산사람의 주거지란 의미이다. 生死를 나누어 생자를 陽, 死者를 陰이라 하는 것에서부터, 死者가 사는 곳인 무덤을 陰基, 陰宅이라 부르는데 반해 생자가 사는 곳 즉 개인의 가정 또는 산사람의 집단인 부락이나 도읍의 땅을 陽宅 또는 陽氣라고 이름붙인 것이다. 그런데 주거지를 열거해 칭하는 경우 풍수상 보통 陰宅陽基라 하지 陰基陽宅이라 말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宅과 基택는 똑같이 사람의 주거지에 사용된 문자이다. 그 용어의 관습상 宅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 基는 이 宅이 있는 토지를 의미하게 되었다.(村山智順, 『조선의 풍수』, p543)

30) 정경연, 『정경연의 부자되는 양택풍수』, 평단문화사, 2008, p44

해 볼 수 있으며, 生者和 死者가 들어가 살 수 있는 생기 있는 공간 즉 땅(터) 찾을 찾아 풍수적 발복을 얻는 것이 풍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무릇 自然이란 生氣를 가진 生命體인데 장소에 따라 장하고 약한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한눈에 보이는 局내에서 生氣가 가장 강한 곳이 穴인데 그 속에 묘를 쓰면 고인의 遺骨과 生氣가 서로 感應한 결과(同氣;유전인자)를 소유한 후손에게 영향을 미쳐 복을 전한다. 그곳에 집을 지으면 생기가 집안에 머물며 사는 사람에게 복을 전하는데 모든 집이든 생기가 약한 곳에 터를 잡으면 後孫과 사는 사람들이 복 대신 災殃을 입어 흉하다. 결국 풍수지리는 유골과 집을 통해 感應받아 인생의 번영을 꾀하려는 목적이 있다.³¹⁾

陰宅風水는 생기 있는 터에 안장된 유골이 동기감응을 통하여 後孫의 富貴榮華를 꾀하고 陽宅,陽基 풍수는 생기 있는 터나 공간에 주택을 건축하고 도시를 건설하여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이 지기발동을 통하여 개인의 인생번영과 국가의 발전을 꾀하려는 運命開拓的인 정신이 깃들여 있다. 이러한 생기 있는 터나 공간 즉 眞穴을 찾는데 風水學界에서는 形氣論, 理氣論, 物形論의 3가지 유파로 나누어져 풍수의 이론이나 방법론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風水方法論의 2개 流波인 形氣風水와 理氣風水의 논리가 귀일되지 않고 있다.

2. 形氣論

1) 起源과 發達史

형기과는 형세론(形勢論), 형법(形法)등으로 불리기도 하며, 미국과 서구 유럽에서는 "Form School"이라고 한다. 풍수지리는 크게 두가지 유파로 대별되는데 처음부터 분명한 선을 긋고 서로 다른 발전을 해온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속에서 발전해 온다. 이미 중국 양소문화의 취락구조 선정에 "형기과적 사고"와 "이기과적"사고가 혼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背山臨水(혹은 枕山面水)를 한 취락형태는 형기과적 표현이고, 동시에 남향을 하

31) 고제희 『전계서』, p23

여 취락이 형성된 것은 방위를 중시한 이기파적 표현이다.

形氣論은 『靑鳥經』, 『藏書』 등에서 이미 그 본질적 내용들이 드러나 있으며, 당나라 楊筠松의 『感龍經』, 『疑龍經』에 이르러 완성된 것으로 본다. 고려왕조의 풍수는 形氣論이 절대적이었다. 조선왕조의 풍수학(지리학) 고시과목을 보면 『地理神法』을 제외한 대부분의 풍수서적이 形氣論을 중시하는 책이었기 때문에 朝鮮王朝에서도 形氣論이 절대적으로 유통되었다. 임진왜란 전후로 들어왔다고 추정되는 『人子須知』는 해방 이후에도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의 하나이다. 이 책 역시 전적으로 形氣論을 위주로 한 책이기 때문에 韓半島에서 풍수는 形氣論이 중심이 될 수 밖에 없었다.³²⁾

2) 形氣論의 概念

形氣論은 산세의 모양이나 형세상의 아름다움을 유추하여 穴이 맺힌 터를 찾는 방법론이다. 形氣論은 혈이 맺힐 수 있는 조건을 看龍法, 藏風法, 得水法으로 나누어 계승·발전하였다.³³⁾

風水地理에서 形氣風水는 산세의 모양이나 흐름을 눈으로 보아 혈를 찾는 다거나 山川形勢의 모양을 사람, 동물 등의 모양과 견주어 穴을 찾는 이론체계다. 즉 산천 형세를 보고 기의 흐름과 혈을 찾는 이론을 形勢論이라고 하는데 形勢論은 形氣論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나누면 形氣論은 전자와 같은 形勢論과 후자와 같은 物形論으로 대별되기도 한다.³⁴⁾

形氣論은 글자 그대로 산과 물의 모양(形)을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좋은 기운(氣)이 맺혀 있는 곳을 찾는 방법이다. 이는 물형론이 구체적 사물에 비유하여 그 기운을 판단하는 것과 달리 산맥의 흐름(看龍)과 바람의 갈무리(藏風), 그리고 물의 흐름(得水)과 기운이 모인 곳을 찾는 방법(定穴)등으로 이루어진 이론체계를 기준으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32) 김두규, 『상계서』, pp601-602

33) 고제희b, 『손감묘결』, 다산북스, 2008, p34

34) 권영휴, 『한국전통 거주환경의 풍수적 해석 및 입지평가모델 개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52-58

따라서 形氣論은 이와 같은 理論的 體系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지금까지 風水理論의 바탕이 되어 왔다.

먼저 산세를 판단하는 看龍法의 핵심은 산세가 높고 웅장한 발원지(太祖山)에서 이어져온 산줄기가 끊이지 않고 흘러와서 穴을 맺는 뒷산(主山)에서 마무리 하는 형세를 보며, 아울러 산줄기를 타고 내리는 기운(龍脈)이 생기왕성하게 흘러왔는가를 판단하는데서 시작한다.

다음으로 바람을 막아야 하는 이치(藏風法)란 명당주위의 山勢에 관한 형세로서, 좋은 기운이 바람에 흩어지지 않도록 산이 혈을 보호하고 있는가를 判斷하는 方法이다. 산을 흘러온 기운이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바람을 막아야 하고, 바람을 막으려면 바람을 막아주는 산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穴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陰陽의 氣運이 化合하여 생기가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방을 둘러싸는 산들을 砂라고 하는데 砂는 혈의 주위를 둘러싼 생기의 멈춤과 모임을 도와주고 그 갈무리를 돕는 산과 언덕을 일컫는 말이다.

看龍과 藏風 외에 물의 흐름을 판단하는 일(得水)역시 形氣論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기운이 모인 곳을 찾는 방법(定穴法)이란 혈을 정하는 이론인데, 이는 太祖山으로 부터 흘러온 산줄기가 마치 사람에게 있어 부모로부터 생명을 이어받는 자식의 관계처럼 부모의 기운을 닮은 혈이 맺힌 곳을 판단하는 방법이다.³⁵⁾

形氣風水는 山(지기를 저장하는 탱크) → 龍(지기의 이동통로) → 水(지기의 흐름을 멈춤) → 砂 (바람을 가두어 지기 보존) → 穴(지기의 열매)의 순서로 자연속에서 혈을 찾아나가고 각 단계별로 길흉을 판단하다. 여기서 龍, 穴, 砂, 水를 형기풍수론의 4과(四科)라 부르고, 이들 각자의 형상을 사람의 눈으로 살피되 風水經典에 의거해 길하고 흉함을 개별적으로 판단한 뒤 최종적으로 내용을 종합해 결론을 내린다. 또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는 방안을 수립한다.³⁶⁾

35) 김중의, 『전계서』, pp69-73

36) 고제희 『전계서』, pp31-32

3) 形氣論의 限界

形氣論은 산과 물의 모양으로 유추하여 좋은 터를 찾는 것으로 혈이 맺혀 있는 터에는 그에 걸 맞는 특징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특징을 理論化 시키고, 이론에 부합하는 형세를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 形氣論이다. 하지만 일반화시킨 이론을 실제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론과 부합하는 곳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원리를 이해하고 안목을 키우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흔히 "穴이 맺힌 산을 찾는 데 3년이 걸리고, 그 안에서 穴을 찾는 데는 10년이 걸린다고 말하는 것이다.³⁷⁾

만물이 陰陽의 교감으로 이루어지고 화합과 조화로 운행을 반복하는 가운데 바위가 風化作用을 거쳐 흙이 되듯이 산과 토양은 물과 바람의 영향을 받으며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한다. 그런데 形氣論에서는 산세를 판단할 때, 산은 음으로 바람과 물은 양이라 하여 산과 물의 조화를 제시하지만 산천의 형세는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음양의 조화도 바뀌게 되고 그 위치도 달라진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변화의 논리 즉 혈의 위치 이동에 대한 설명이 없는 셈이다.³⁸⁾

풍수의 목적은 生氣가 凝集된 眞穴을 찾는 데 있으므로 진혈을 찾지 못하면 간룡법과 장풍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진혈을 찾기 위해서는 단순히 생긴 모양을 찾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山과 土壤은 물과 바람의 영향으로 바위가 흙이 되듯이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해 왔다. 따라서 산만을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과 물의 기운을 감안하지 않고 혈을 찾는다면 오류를 범하기 십상이다. 生氣가 뭉친 길지를 찾으려 양인 바람과 물은 내버려 두고 음인 산(龍)의 형세만을 존하는 形氣論은 마치 사람으로 볼 때 중요한 마음을 보지 않고 얼굴만 보고 인품을 판단하는 것과 같이 부자연스럽다.³⁹⁾

37) 김중의 『전계서』, p69-70

38) 고제희 『전계서』, p76-77

39) 고제희c, 『쉽게하는 풍수공부』, 동학사, 2008, pp79-81

따라서 形氣論은 陽인 물과 바람의 영향에 따른 山의 변화를 배제한 채, 陰인 山의 있는 그대로의 형상만을 보고 혈의 길흉을 논하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를 이룬 혈을 찾기가 지난하며, 또한 사람의 눈에만 의존하는 관계로 사람마다의 풍수 지식수준, 현장경험의 정도, 심리상태, 날씨 등에 따라 생기가 凝集된 眞穴을 찾는데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3. 理氣論

1) 起源과 發達史

理氣論은 방위과, 理法등으로 불리기도 하며, 영어권에서는 "Compass School"로 표기된다. 이기파는 중국 고대철학 가운데 특히 기 개념을 중시한 흔적이 뚜렷하다. 천지만물이 모두 기로 인해 생겨난 것으로 보았는데 형기론 위주의 風水古典이라 할 수 있는 『藏書』에서도 기를 가장 근본적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다(夫土者, 氣之體). 理氣論은 음향, 오행, 팔괘라는 개념과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나침반(Compass)으로 기를 측정하려고 한다, 특히 송대 이후 나침반(나경)의 출현 이후 理氣論은 급격한 발전을 보게 되는데 초기에는 주로 복건지방이 중심이 되었다가 절강(浙江), 광둥(廣東), 안휘(安徽)등지로 확산된다.

한반도에 理氣論 風水가 들어온 것은 고려 때이지만 도선풍수에 밀려 수용되지 않는다. 이기론 풍수가 한반도에 공식적으로 소개되고 수용된 것은 계룡산 천도론에서다. 조선조 풍수학 고시과목 가운데 이기론 풍수서로는 유일하게 『地理神法』이 채택되었고, 그 나머지 풍수서들은 형기론을 주로 하였다. 대체로 해방이후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이기론 풍수는 『地理五訣』이 있다.⁴⁰⁾

2) 理氣論의 概念

理氣論이란 山川의 形勢를 변화시키는 주된 요인인 양기 즉 바람과 물의 循環軌道와 양을 파악함으로써 지형지세를 읽어내려고 하는 풍수 이론

40) 김두규, 『전계서』, pp404-405

이다. 이는 우주의 변화원리를 축약하고 있는 佩鐵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방위를 측정한 다음 五行의 相生相剋의 논리를 적용하여 좋은 기운이 있는 땅을 찾는 방법론이다. 따라서 佩鐵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다 보니 논리적이면서도 객관적이라 할 수 있다. 패철을 이용하여 땅의 형세를 판단한 다음 산줄기와 물의 흐름을 방위로 해석해서 좋고 나쁨을 정하는 것이다.

理氣論은 得水論, 佩鐵論, 坐向論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이론은 당나라의 楊筠松이 풍수에 처음으로 천문을 도입함으로써 발단이 되었으며, 명나라의 호순신(胡舜申)에 의해 12運星法 이 정립됨으로써 그 체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12運星法법이란 바람과 물의 흐름에 따라 땅의 기운이 12단계로 나누어지고, 그 기운은 방향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理氣論은 坐向論이라 불릴 만큼 방향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는 이와 같은 방위가 생명 활동에 가장 적당하고 알맞은 양의 양기를 취할 수 있는 요소라는 판단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理氣論에서 중요시하는 방위에 대한 이론은 청나라의 조정동(趙廷東)에 의해 88向法으로 세밀화되었던 것이다.

理氣論은 단지 도구만을 가지고서도 현장을 도식화하여 땅의 기운과 그 내용을 파악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지도상에서 등고선에 따라 산맥을 그리고 지도의 북쪽과 자석의 북쪽을 일치시키면 바로 현장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맥이 뻗어 온 방위, 기운을 얻는 방위, 기운이 빠지는 방위, 주변 산이 위치한 방위가 모두 地圖內에서 세밀하게 측정되고 나아가 혈처와 88向法에 맞는 坐向까지도 판단할 수 있다.⁴¹⁾

理氣風水論은 땅에 혈을 맺어놓은 주체인 바람과 물의 순환궤도와 양을 佩鐵로 살펴 혈을 찾는다. 현장에 서서 지형과 지질을 변화시킨 바람과 물(양기)이 최종적으로 빠지는 방위를 살펴(破, 水口) 정하고 혈장으로 뻗어온 내룡의 입수를 마디마디 살핀 후 局에 따라 12운성법으로 生旺死絶을 걱정한다. 또 양기가 생겨나는 得水의 방위를 측정한 다음 양기중에서 가장 길한 양과 세기를 얻을 수 있는 방위를 <88향법>에 맞추어 立向한다.⁴²⁾

41) 김중의 『상계서』, pp78-83

42) 고제희b, 『손감묘결』, 다산북스, 2008, p34

3) 理氣論의 限界

理氣論이란 陰陽과 五行의 이론에 근거하여 산천의 지형을 그러한 패턴 속에 대입시킨 것이므로 한편으로 지극히 觀念的인 理論이라 할 수 있다. 風水란 사람이 사는 정주공간이 되든 陰宅이 되든 간에 그것을 느끼는 주체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다. 때문에 느낌(氣感)을 무시한 관념적 방위상의 논리는 실제로 중요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게 마련이다.⁴³⁾

理氣風水論은 청나라 趙廷東이 『地理五訣』을 저술해 龍穴砂水에 向法을 추가함으로써 五訣을 완성하였다고 하나, 김두규 교수는 다음과 같이 『地理五訣』이 풍수의 사술화를 부추기는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지리오결의 핵심이론이라 할 수 있는 88向法의 기원을 당나라 때의 인물로 알려진 양균송으로 삼고 있는데, 양균송은 철저하게 형세론으로 풍수를 논한 사람이었다. 반면에 88向法은 철두철미 理氣論으로 일관된 이론이다.

둘째, 지구과학적으로 나침반의 자침이 "편각현상" 磁針의 북이 가르키는 방향(磁北)과 실제로 북(眞北)은 일치하지 않으며, 서 또는 동으로 치우치는데 이각을 방위각 또는 편각(declination)과 "북각현상"(지침은 정확하게 수평이 되지 않고 상하로 기울어 지는데 자침이 수평방향에 대해서 기울어진 각 : inclination)라고 말한다. 때문에 절대불변의 정확한 향을 세우는 것(立向)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⁴⁴⁾

理氣論은 기존의 形氣論의 요소인 龍穴砂水에다 向을 하나 더하게 됨으로써 더 많은 전문지식을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風水專門 先知者의 특별한 지도 없이는 이론을 습득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이기론의 저변확대와 학문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더러는 검증되지 않은 위서들이 시중에 유통됨에 따라 잡술로 평가받는 단초를 제공하였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리고 현대 理氣論의 완성판이라 할 수 있는 88向法의 경우 물이 최종적으로 빠져나가는 종건처인 水口를 기준으로 하는 좌향법이다. 따라서

43) 김중의 『전계서』, p83

44) 김두규 『김두규 교수의 풍수강의』, 비봉출판사, pp 317-318

依水立向法인 88向法에서 가장중요시 되는 것은 水口결정인데 실제 자연 현장에 가보면 水口를 정확히 찾아내는 일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또한 용이 혈을 결지하는데 있어 右旋龍에 左旋水, 左旋龍에 右旋水가 원칙이나 때로는 좌·우선수를 가늠하기 어려운 곳이 많이 존재하는 것도 理氣論의 문제점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4. 物形論

1) 物形論의 概念

物形論은 形局論 혹은 갈형론(喝形論)이라고 한다. 물형론의 본래 목적은 정확하게 혈을 찾고 정함에 있다. 따라서 物形論은 크게 보아 정혈법의 한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일부 풍수서나 지관들은 그러한 본래 의미를 잊은 채 물형론 그 자체를 독립하여 다루기도 한다.

산, 물, 바람 등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 형성된 전체적 모습이 인간에게 영향을 준다는 유물(類物) 신앙의 일종으로 본질적으로 天地人 합일 사상에 근거한다. 만물은 각각 독특한 氣가 있으며, 이러한 독특한 氣는 주로 산세의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형상을 물형 혹은 形局이라 부른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자리의 氣가 어떤 것이며, 그에 상응하여 어떠한 인물이 나올 것이냐는 그 혈과 주변 형국(물형)을 살피면 된다는 이론이다.

物形論은 이중의 巨視風水學이라 말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제대로 된 터를 잡기위한 것이 그 본래 목적이었다. 그러나 物形論은 그 본래의 목적이 망각되면서 주관적이며 자의적인 해석으로 흐르게 되었다. 따라서 物形論은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이론이다. 45)

物形論이란 자연의 해석을 사물의 형태에 비유하여 생명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物形論은 陰陽五行說을 고집하는 이론 풍수와는 달리 자연을 생명자체로 인식한 우리의 의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物形論의 표현은 주위에서 흔하게 들어온 바라누구라도 그 표현에 쉽게 근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흔히 우리식의 風水라

45) 김두규b 『풍수학 사전』, 비봉출판사, 2005, p717

고 이해되기도 한다.

物形論의 특징은 만물유기체론적 관점에서 땅을 살아있는 생명으로 본다는 점이다. 이는 곧 사람과 자연이 하나라는 風水의 정신을 살려내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物形論에서는 그 이름을 부여하는 중요한 기준은 기본적으로 산의 모양과 배치이지만 그 가운데도 특히 안산의 형태를 중요하게 여긴다. 物形論의 이치는 먼저 드러난 산천의 모양과 그 속에 내재된 기운은 서로 통한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만물은 각각 독특한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이 기운은 주위의 다른 것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운이 산세의 형상으로 나타나므로 어떤 특정한 지형이 지닌 기운의 역량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인물이나 음덕이 나타난다는 것이다.⁴⁶⁾

2) 物形論의 限界

物形論은 風水理論의 본질적이 체계와 구조가 잘 나타나지 않으며, 나아가 이론은 생략되고 그 내용만 전해진 까닭에 같은 터를 두고 다른 해석이 나타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설령 물형을 똑같이 보았다 하더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 생기가 응집된 혈을 달리 잡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物形論에서 생기가 모인 혈은 힘을 쓴 곳이나 긴장을 한 곳이나, 정신을 집중한 곳 등이라 하지만 그 혈의 정의가 애매모호해서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의미이다.⁴⁷⁾

형국론은 땅을 호랑이, 소 등 짐승이나 매화, 연꽃 등 식물, 또는 사람모양으로 규정하고 비유된 동식물들의 생태적 특징을 통해 생기가 모이는 혈을 찾는 방법이다. 그런데 지세를 파악할 때는 우선 각 지세의 용이나 산세 그리고 물에 의한 기운 등을 면밀히 파악한 뒤에 형국을 논해야 한다. 지세구성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는 상태에서 형국만으로 말하는 것은 오히려 땅의 기운을 잘 못 판단하는 요인이 된다.⁴⁸⁾

物形論은 명당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많은 사람이 풍수를 접하게

46) 김중의 『전계서』, pp59-62

47) 『상계서』, pp67-68

48) 박시익, 『전계서』, p38

만든 공로는 있으나, 몇 가지 비논리성으로 인해 풍수에 대한 신뢰성을 실추시키기도 한다. 첫째, 같은 장소를 두고 주변의 산천형세를 사람이나 동물에 비유하다 보니 보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주관적이다. 다시 말하면 똑같이 생긴 장소를 두고 보는 입장에 따라 耳懸鈴鼻懸鈴식으로 하는 말이 다르다. 둘째, 물형을 똑같이 보았다 하더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 生氣가 응집된 혈을 달리 잡는다. 物形論에서 생기가 모인 혈은 힘을 쓴 곳이나, 긴장을 한 곳이나, 정신을 집중한 곳이라야 하는데 혈의 정의가 애매모호해서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⁴⁹⁾

物形論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당의 모양새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形氣風水나 理氣風水와 같은 체계적인 논리가 전제되어 있지 않다. 物形論을 너무 신봉하게 되면 자칫 風水가 신비주의 학문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形氣論 또는 理氣論을 터득한 후 그 토대위에 物形論을 추가로 보완해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제 2 절 風水地理 理論의 構成體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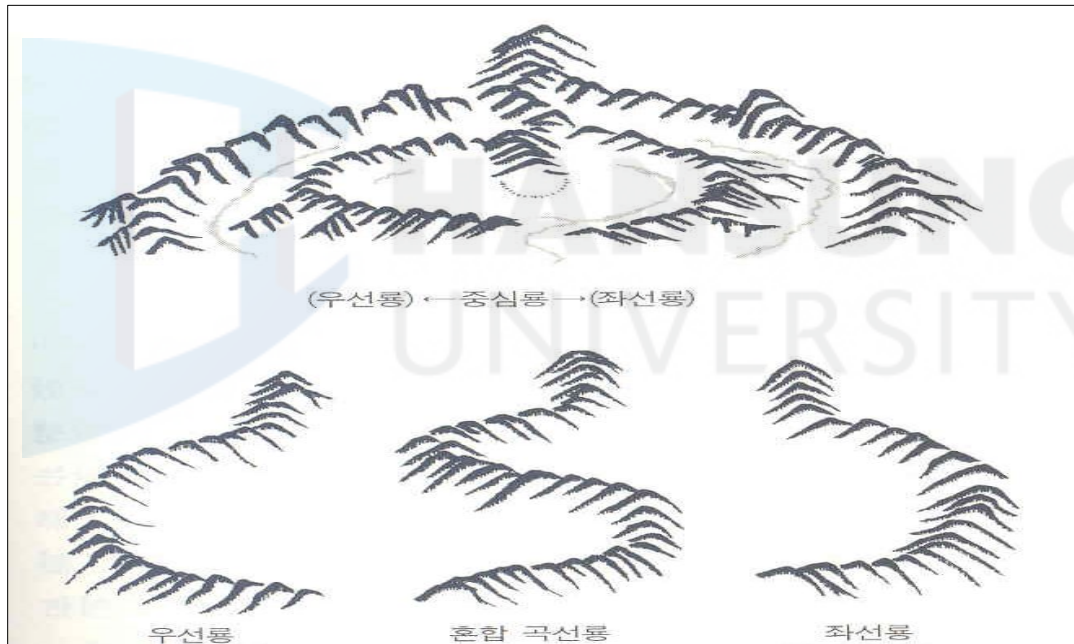
風水地理學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사상에 터 잡아 형성되어 있으며, 風水地理의 목적인 생기가 응축된 眞穴을 찾는 데도 형기론, 이기론, 物形論에 따라 달리 접근하고 있다. 특히 風水地理는 학문자체가 땅의 지기와 하늘의 天氣를 탐구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통한 공존방법을 제시하는 학문으로써 어떤 일정한 틀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風水地理를 활용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과 혈을 찾는 접근방법과 이론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風水地理의 근본적 이치와 추구하는 바는 같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龍穴砂水向에 근거하여 龍勢論, 穴勢論, 砂格論, 水勢論, 向法論으로 구분하였다.

49) 고제희c, 『전계서』, pp53-55

1. 龍勢論

1) 龍의 概念

風水地理에서 말하는 龍이란 산과 능선을 말한다. 風水에서 산과 능선을 용이라고 말한 것은 산과 능선을 갖고 있는 신비하고 강한 기운 때문이다. 산의 신출귀몰하고 변화 무쌍한 흐름을 마치 용이 살아 움직이는 형상과 같이 본 것이다. 산 정상에서 출발한 용이 혈에 이르기까지는 직선 형태와 곡선 형태 두 가지가 있다. 좌우 어느 쪽으로도 기운이 기울지 않으며 앞으로 진행하는 직선 형태의 용은 中心龍이라고 한다. 이에 반하여 곡선적인 용이란 산 정상에서 커다란 곡선을 이루고 있는 용으로 곡선 형태의 左旋龍, 右旋龍, 混合曲線龍 등으로 구분된다. 혈은 중심용이나 곡선용에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혈을 이루고 있는 지세에서 혈은 중심용에, 청룡은 좌선용에, 그리고 백호는 우선용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좋다.⁵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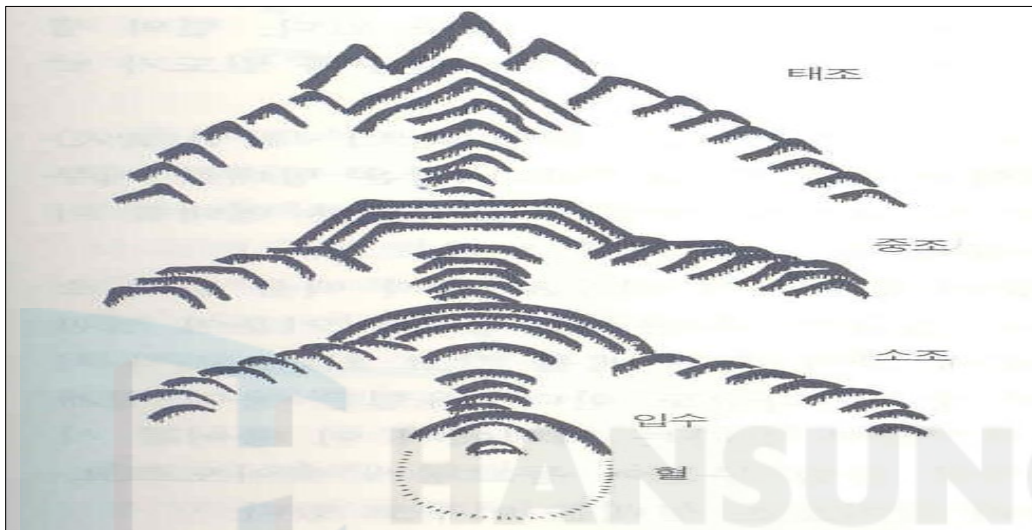
<그림 3> 용의 종류

50) 박시익, 『전계서』, pp106-109

2) 龍의 根源

風水理論에서 표현되는 祖山이란 사람에 있어서 조상이라 할 수 있고, 식물에 있어서의 뿌리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산의 기운은 모두 祖山에서 발원하여 그 기운을 이어오는 것으로 판단한다.⁵¹⁾

주산에서 발생된 기운이 혈까지 전달되는 과정은 태조, 중조, 소조, 입수, 혈판의 5단계를 다르며, 각 단계 사이에는 용이 있어서 앞뒤의 기운을 이어준다. 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다섯 과정이 필요하다. 만일 단계 사이의 용이 끊어지면 혈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있더라도 미약하다.⁵²⁾



<그림 4> 용의 5단계 변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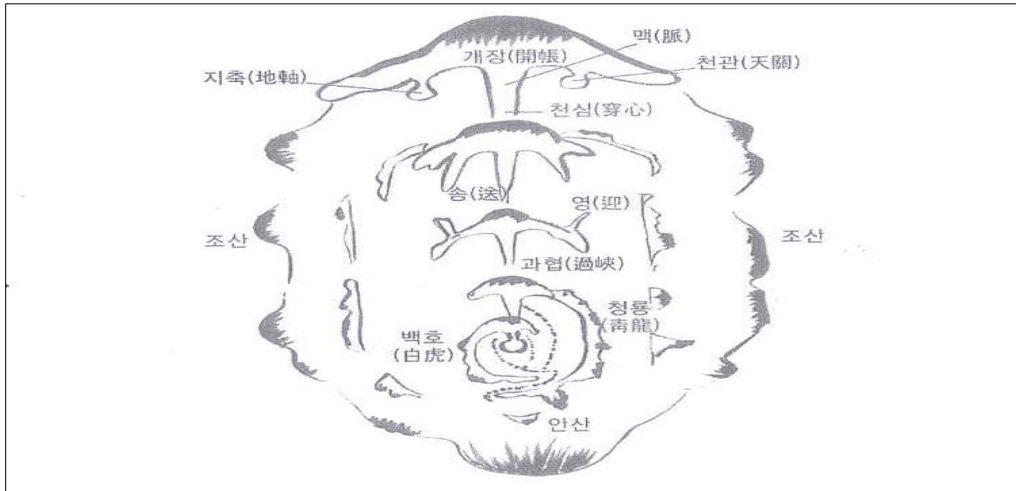
3) 龍의 變化

가. 開帳穿心

開帳은 용기한 元龍이 다음 봉우리를 형성하기 위해 나아가는 형태가 봉황이 날개를 펼치고 나아가는 것처럼 생긴 것을 말한다. 기봉한 용이 뺨어 나가려고 할때 산봉우리 좌우에서 능선을 뺨어 정룡을 감싸 보호해 주는 모양을 개장이라고 한다. 穿心이란 정상에서 용기한 기맥이 화살로 쏘아지듯 산을 뚫고 뺨어 나가는 모양이다. 천심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過峽도 이루어 지지 않으며, 일기일복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死龍이 된다.

51) 김종의, 『전계서』, p192

52) 박시익, 『전계서』, p 127



<그림 5> 개장천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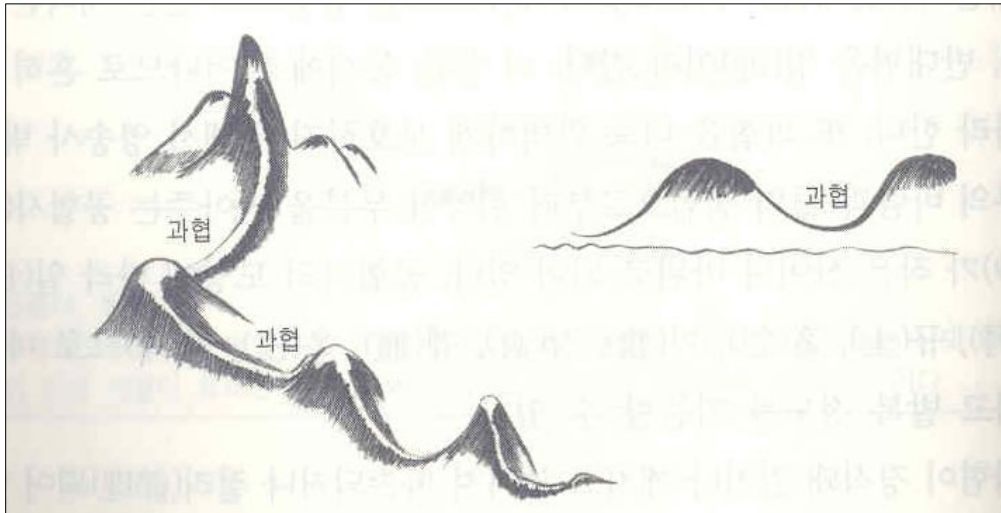
나. 剝換

剝換은 태초의 거칠고 살기 넘치는 산의 모습이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풍화작용으로 부드러운 육산으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 큰 변화는 바위가 흙으로 변하는 것으로 오랜 세월이 필요하며 박환이 이루어지면 풍화작용에 의해 날카로운 바위가 흙으로 변하고 급하던 용맥이 완만해진다. 박환이 이루어진 龍은 부드러우며 奪殺되어 혈을 결지한다.

다. 過峽

過峽은 일반적으로 입수룡의 굴곡을 의미하지만 용의 起伏에서 伏에 해당하는 부분도 과협이다. 과협처는 사자의 허리처럼 가늘고 힘이 있어야 좋고 부드러우면서 짧으며 밝고 튼튼해야 한다. 過峽은 낮은 곳이지만 絶脈이 아니고 기맥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過峽은 폭이 좁아야 하고 지나치게 길면 死龍이 된다. 간혹 過峽 앞위에 양팔을 벌인 것 같은 지각이 뻗어 과협처를 보호한다. 이 지각의 형태가 여덟팔(八)자 모양으로 생겼으므로 來八去八이라 불린다. 과협처를 보호하는 迎送砂가 來八去八을 이루면 때로 穴이 결지될 수 있다.⁵³⁾

53) 안종선, 『전계서』, pp143-150



<그림 6> 용의 과협

라. 地脚과 橈棹

龍이 뺨어내려 오면서 옆으로 나뭇가지나 지네 다리처럼 혹은 배의 노 모양의 작은 산을 만드는데 이를 용의 지각요도라 한다. 지각요도는 용맥의 전진을 도와주며 主龍의 균형을 유지해 준다. 또한 외부의 바람과 물의 침범을 막아 主龍의 생기를 보존해 주는 역할을 한다. 龍이 뺨어 내려오면 필연적으로 솟고 엎드려 산봉우리를 만들고 옆으로 가지(枝)와 발(脚)을 만든다. 이때 生氣가 龍脈을 타고 내려가는데 남은 기가 龍脈 양쪽의 지각으로 뻗쳐 좌우에서 용을 보호해 주고 또 받침대가 된다.

마. 龍의 結咽束氣

龍이 내려오면서 혈 뒤에서 목처럼 꼭조인 부분이 생기는데 이를 結咽束氣處라 하며 여기서 기가 꼭 조였다가 穴에서 기가 발산하게 되는데 결인처에서 생기가 조이기 때문에 束氣라고 한다. 내려오는 龍이 혈을 뺏기 위해 여러 生動作用을 거쳐 최종적으로 穴場 뒤에서 안으로는 기를 묶고 밖으로는 기를 모으기 위해 氣脈을 잘록하게 하고는 혈장으로 기를 통해 주는 것이다.⁵⁴⁾

54) 정판성, 『전계서』, pp151-157

4) 龍의 主要形態

가. 幹龍과 支龍

幹龍은 太祖山에서 主山에 이르는 주된 능선으로 가장 강하게 뻗어나가는 기맥을 말한다. 中祖山과 小祖山에서는 수많은 기맥이 분기하고 지각이 형성되어 갈라져 나와 行龍하지만 太祖山과 中祖山, 小祖山을 거치며 연결된 용을 幹龍이라 한다. 太祖山으로부터 출맥한 간룡은 천리를 행룡하면서 中祖山과 小祖山을 비롯하여 수많은 크고 작은 봉우리를 만든다. 간룡 중간 중간에 起峰된 중조산들은 일정 지역의 태조산 역할을 하기도 한다. 중조산에서 다시 기맥이 분할이 이루어져 산줄기가 나누어지는데 대간룡을 제외하고 나머지 용맥들은 모두 支龍이 되는 것이다.⁵⁵⁾

이러한 幹龍과 支龍의 구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이다. 즉, 어떠한 용맥이 대간룡 하나와 나머지 용맥이 모두 지룡이 아니라 지룡이 또 다시 갈라져 분맥을 형성할 때는 원맥은 간룡이 된다는 것이다. 지룡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다시 새로운 지룡으로 분맥을 하면 상대적으로 간룡이 된다. 이러한 分脈은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간룡에서는 大穴을 지룡에서는 中穴이나 小穴을 맺는 것이 일반적이다.⁵⁶⁾



<그림 7> 혈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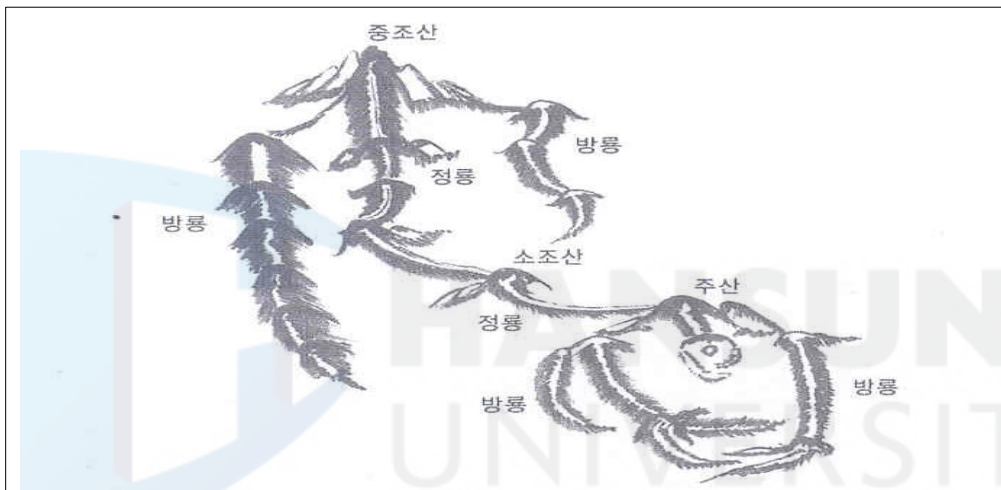
55) 안종선, 『전계서』, pp130-131

56) 강남철, 『전계서』, p69

나. 正龍과 傍龍

正龍은 여러 용 중에서 중심이 되는 용으로 한 산맥의 중추적 산줄기인 中出正脈을 말하는 것이고 방룡은 중심 산맥이 아닌 겹가지 산맥인 형국으로 정룡 주변에서 정룡을 보호하며 따라가는 능선을 말한다.⁵⁷⁾

太祖山에서 각기 낙맥한 龍은 수백리 혹은 수십리에 걸쳐 行龍하며 유난히 두드러진 대간룡을 正脈이라 하는데 正龍이 行龍할 때 傍龍도 함께 행룡을 한다. 正龍은 혈을 결지하지만 방룡은 결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이고 대로 결지되어도 격이 낮거나 흠이 있는 경우가 많다. 太祖山에서 출발하여 中祖山을 거쳐 小祖山에 이른 기맥이 주산에 도달한다. 주산에서 출맥하여 혈장에 이를 때는 좌우에서 방룡의 호종을 받는데 이 방룡을 청룡과 백호라 한다.⁵⁸⁾



<그림 8> 정룡과 방룡

다. 貴龍과 賤龍

貴龍이란 귀중한 형태의 용으로서 그 형태는 호종보호사가 많은 생왕룡을 말하는 것이고 賤龍이란 비천한 형태의 용 즉 호종보호사가 없거나 적은 사절룡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生旺龍이란 혈의 결지가 균형잡혀 있는 생룡 이나 진룡 또는 복룡인 경우이고 死絶龍이란 병룡, 생룡, 겁룡 등 혈을 결지할 수 없거나 무질서한 형태의 용인 것이다.⁵⁹⁾

57) 강남철, 『전계서』, p70

58) 안종선, 『전계서』, pp132-133

라. 龍의 背面

사람이 얼굴과 뒷머리가 있듯 산도 앞과 뒤가 있으니 이를 용의 배면이라 부른다. 산은 垂頭⁶⁰⁾한 방향이 面으로 뒤쪽은 背가 된다. 면은 양에 속하며 배는 음에 속한다. 결혈은 용의 면에서 발원한 용맥에서 이루어지고 주산은 수두가 이루어 져야 한다. 등에 해당하는 용맥은 결혈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결혈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기맥이 극히 미약하여 대지를 이룰 수가 없다.⁶¹⁾

마. 龍의 餘氣

行龍하던 용은 龍盡處에서 혈을 결지한 후 일정한 거리를 달려나간다. 이때 남은 기운을 餘氣라 한다. 이 기운이 다시 혈을 만들기도 하고 혈을 보호해 주는 下水砂나 水口砂하가 되기도 한다. 혈을 이루고 남은 여기가 말로 혈판의 증거이다. 용세가 크고 강하면 혈판을 이룬 다음 여기도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혈판 앞의 氈屑은 여기로 이루어진다.⁶²⁾



<그림 9> 용의 여기

바. 龍勢의 12格

일반적으로 용을 吉龍과 凶龍으로 크게 구분한다. 여기서 길룡이란 바로 생왕룡을 말하는 것이고 흉룡이란 사절룡을 말하는 것이다. 생왕룡은 혈을

59) 강남철 『전계서』, p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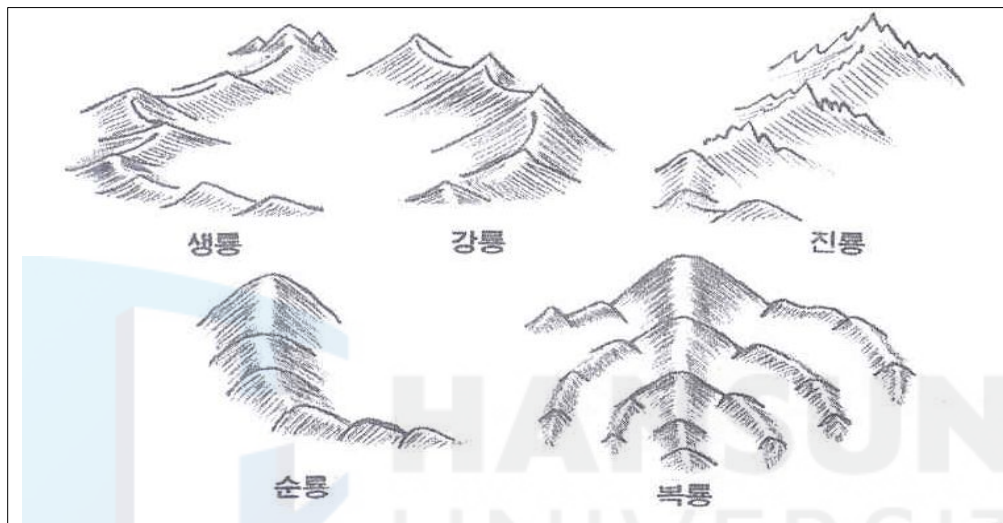
60) 垂頭란 주산의 봉우리로부터 점점 경사져 내려오는 것.(김두규, 『풍수학 사전』, 비봉출판사, 2005, p291)

61) 안종선, 『전계서』, p155-156

62) 『상계서』, pp157-158

결지하여 부귀발복을 가능케하는 기세가 있고 사절용은 생기를 취결하지 못하여 혈을 결지할 수 없는 용을 말한다. 용의 형태는 그 길휴에 따라 길용 5격, 흉룡 7격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런 구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생왕룡 5格은 生龍, 強龍, 進龍, 順龍, 福龍이 있으며, 死絶龍 7格은 死龍, 弱龍, 病龍, 劫龍, 退龍, 逆龍, 殺龍이 이다.⁶³⁾

이상과 같이 12龍格은 龍의 형태와 변화에 따라 生龍과 死龍을 구분한 것이며, 용이 결지되는 기준 즉 용의 기운에 따라 12생사룡(6생룡, 6사룡)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6대 生龍은 旺龍, 盤龍, 隱龍, 獨龍, 飛龍, 回龍이 있으며, 6대 死龍은 衰龍, 狂龍, 賤龍, 片龍, 直龍, 騎龍이 있다.



<그림 10> 생왕룡(길격 5룡)

2. 穴세론

1) 穴의 正義

風水에서의 穴은 땅속에 흘러 다니는 地氣가 모여 있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기는 흙을 따라 이동하므로 산맥을 따라 흘러가다 물을 만나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면 한곳에 모이게 되는데 이곳을 혈이라 한다. 그러므로 혈은 용맥의 흐름이 끝나는 곳에 있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뒤로는 생기를 전달하는 능선이 있고 앞으로는 생기를 멈추게 하는 능선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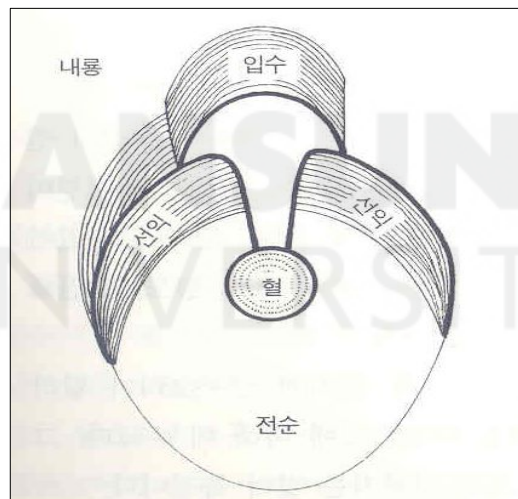
63) 강남철, 『전계서』, pp89-94

穴을 인체에 비유하면 經穴과도 같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풍수에서 혈을 정하는 어려움을 곧잘 사람의 몸에 침을 놓는 것에 비유하기도 한다. 아무리 좋은 龍脈이라도 혈을 제대로 정하지 못한다면 혈이 맺힌 생기를 올바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풍수는 혈을 정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太祖山을 출발한 龍脈이 수많은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나아가는 것을 오로지 혈을 맺기 위해서이다. 산천의 정기가 산줄기를 타고 뻗어내려 오다가 물을 만나 더 이상 뻗지 못하고 멈출 때, 그 기운의 덩어리로서 뭉쳐진 것이 혈이다.⁶⁴⁾

穴場은 혈이 있는 땅바닥을 말하는 것으로 穴地, 穴坂, 當坂 또는 그냥 穴이라고도 한다. 혈은 땅 속에 흐르는 生氣가 融結하는 곳을 말한다. 풍수지리 오상(五常; 변함없는 5가지)인 龍.穴.砂.水.向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이다. 이 혈을 찾는 법을 占穴法.定穴法이라고 한다.⁶⁵⁾

2) 穴의 構成要素

혈상의 구성요소는 각각 入首, 蟬翼, 穴坂, 氈褥의 네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이 네가지 요소를 일러 四相이라 정의하며, 한가지만 빠져도 혈이 될 수 없고 경중에 따라서는 無害之地, 非穴, 亡地라 부른다.⁶⁶⁾ 혈판이란 혈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서 당판이라고도 하며, 한가운데 혈이 이루어진다. 혈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정상적인 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산봉우리에서 용을 통해 내려온 지기는 혈을 이루기 위한 준비단계로 먼저 혈판의 상부에 입수를 만든다. 선익은 혈판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있



<그림 11> 혈판의 구조

64) 김종의, 『전계서』, pp263-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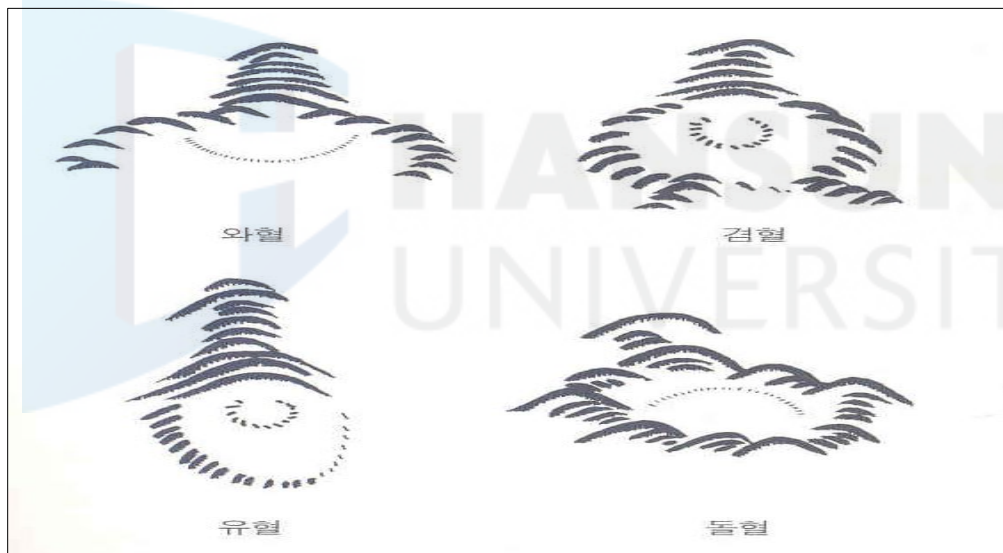
65) 정판성, 『전계서』, p193

66) 안종선, 『전계서』, p210

는 부분을 말하며 사람 몸에 비유하자면 좌우 갈비뼈가 내장을 보호하는 작용과 같다. 전순은 입수기운이 혈과 선역을 만든 뒤 남은 기운이 혈 아래로 평탄하게 모여 있는 공간을 말한다.⁶⁷⁾

3) 穴形の 四格

穴은 형태에 따라 와혈, 검혈, 유혈, 돌혈로 구분된다. 이중 와혈과 검혈은 우묵한 소쿠리와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어 여성 생식기에 비유되고, 유혈과 돌혈은 솟아오른 형태를 이루고 있어 남성 생식기에 비유된다. 와혈은 주룡에서 내려온 기운이 혈관에서 좌우로 각각 맥을 벌려 소쿠리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다. 검혈은 주룡에서 내려온 기운이 혈관을 이루는 동시에 혈관 양쪽 끈에 받쳐 주고 있는 맥을 갖고 있다. 유혈은 용이 길게 뻗어 내려온 형태로 여성의 젖가슴과 같다는 의미에서 이 용어를 사용한다. 돌혈은 엮어놓은 솔처럼 중심 부분이 동그렇게 솟아오르고 그 주변에는 솔발과 같은 바위가 솟아오른 형태를 이루고 있다.⁶⁸⁾



<그림 12> 혈의 4가지 종류

67) 박시익, 『전계서』, pp 132-134

68) 『상계서』, pp128-129

제 3 절 砂格論

1. 砂의 意味

砂格이란 혈의 전후좌우에 있는 모든 사물을 말한다. 혈 뒤에는 주산, 앞에는 안산과 조산, 좌우에는 청룡과 백호가 있다. 또 외관에는 조산이 있다. 좌우로는 물이 흐르고 때로 앞을 가로지르는 물이 혈을 보호한다. 혈관을 에워싼 산들은 혈의 본신지기를 보호하고 외부의 바람과 살기를 제어해 명당의 생기를 보호한다. 이때 혈을 護從하는 모든 사물을 砂格이라 부른다.

砂라는 용어는 옛날 지리를 가르칠 때 귀한 종이와 붓 대신 모래로 산 모양을 만들어 설명한데서 유래되었다. 砂格과 沙格과는 병기하고 있지만 砂格은 큰 바위나 산을 의미하고, 沙格은 입자가 작은 물체나 물질을 의미하는 말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穴로 禍福을 풀이하지만 사격은 吉凶禍福을 부가한다. 혈관이 단단하고 貴砂가 붙어 있으면 귀격이고, 두툼하며 당관이 크면 富格이다. 혈관이 깨지고 부서지며 기울어지고 평형을 이루지지 않으면 凶格이듯 사격이 반듯하고 수려하면 貴格이다.⁶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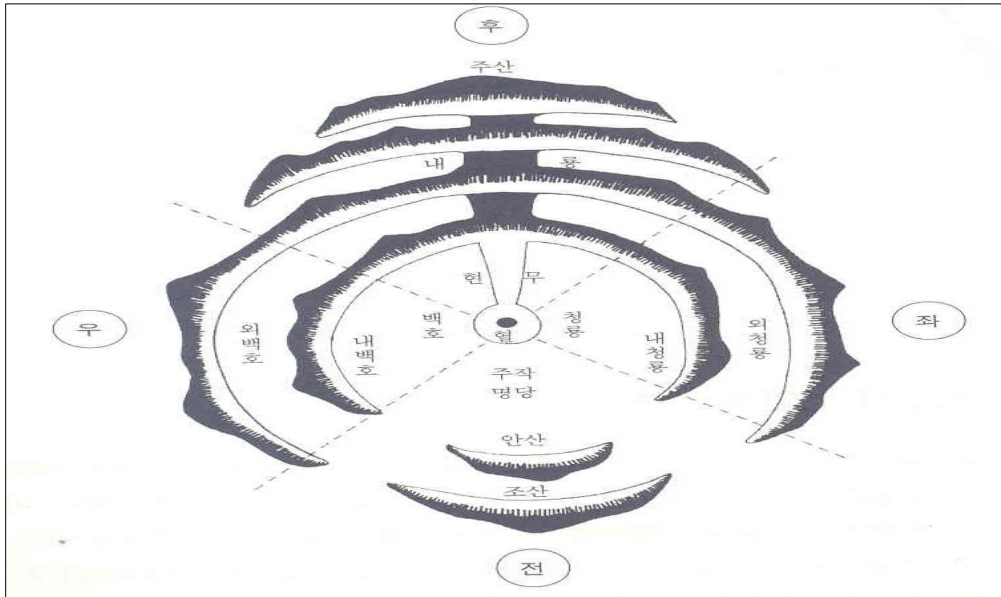
2) 四神砂

가. 四神砂의 名稱과 區分

산의 좌우, 전후 사면에 있는 산을 四神砂라고 한다. 四神砂의 각각의 명칭은 주산을 등지고 지대가 낮은 곳을 향해 내려다보는 자세에서 왼쪽에 있는 산을 靑龍, 오른쪽에 있는 산을 白虎, 앞에 있는 산을 朱雀, 그리고 뒤에 있는 산을 玄武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전주작, 후현무라고 말한다.⁷⁰⁾

69) 안종선, 『전계서』, pp276-278

70) 박시익, 『전계서』, pp137-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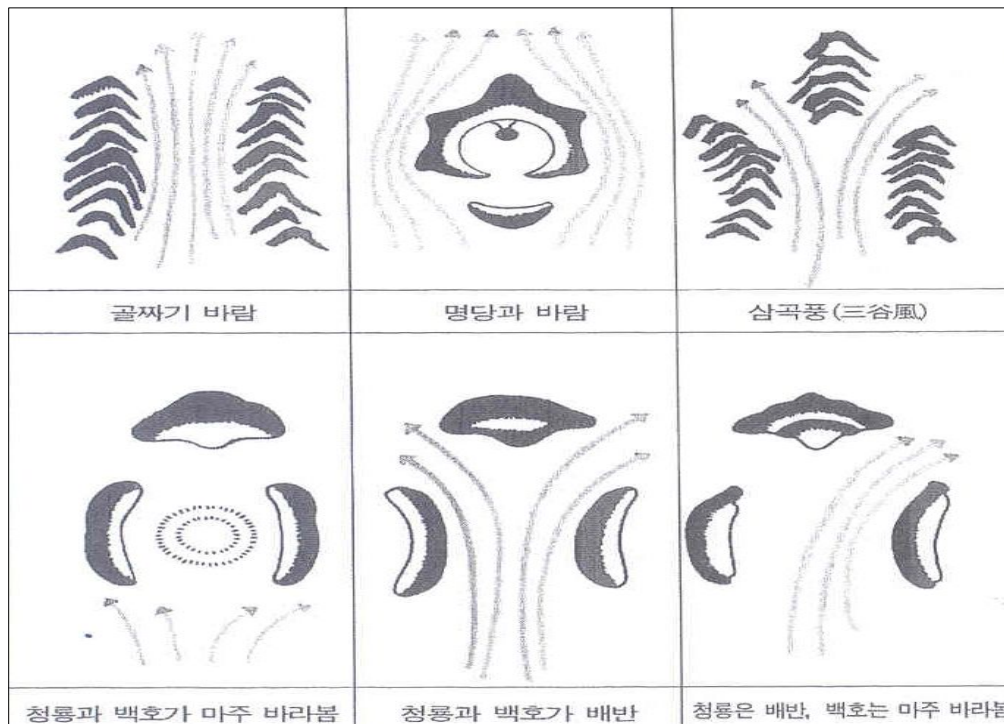
<그림 13> 사신사

나. 四神砂의 3대 機能

四神砂의 기능은 주룡에 있는 穴에 生氣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혈이나 명당은 四神砂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러나 四神砂가 있는 곳이 모두 혈이나 명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혈이나 명당에 생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四神砂가 바람막이 기능을 해야 하며, 곡면반사경 기능, 볼록렌즈 기능 등 세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四神砂가 바람막이 기능을 해야 하는 이유는 生氣가 바람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강하게 부는 바람은 오히려 기운을 분산시켜 生氣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강한 바람을 순하고 부드럽게 하려면 四神砂가 사면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약하고 부드러운 바람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 처럼 바람을 막고 生氣를 만들고 흩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과정을 藏風이라고 한다.⁷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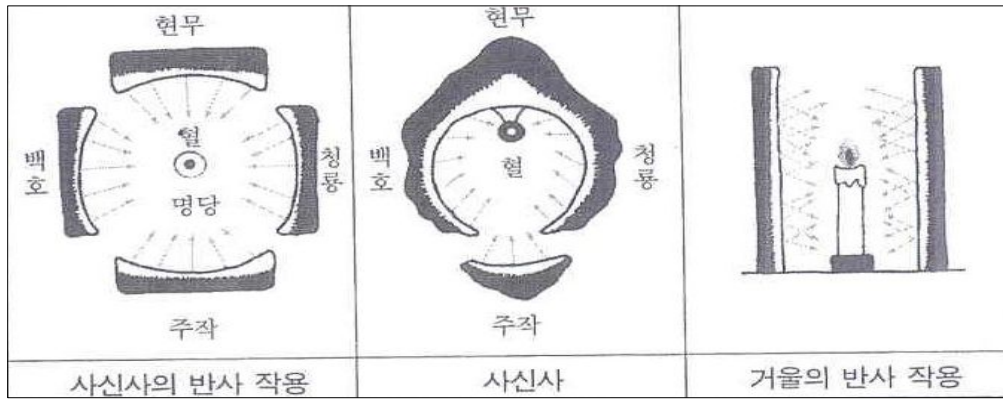
71) 박시익, 『전계서』, pp140-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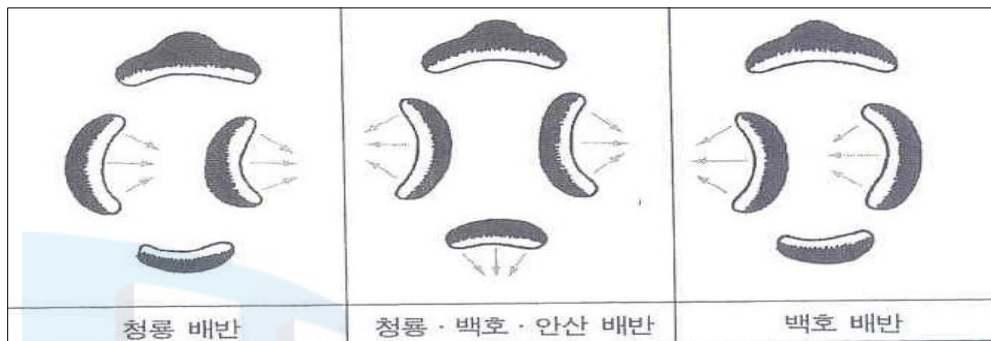
<그림 14> 사신사와 바람

반사경이란 빛을 반사하는 거울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곡면반사경은 반사면이 곡면을 이루고 있어 빛을 한점에 집중적으로 모으는 장점이 있다. 반사된 빛이 한 지점에 모여 하나의 초점을 이루면 그 곳에서 신비한 기운 곧 生氣가 발생된다. 볼록렌즈는 흩어져 있는 빛을 한점으로 모아 매우 밝고 뜨겁게 한다. 四神砂의 이상적인 형태는 혈을 중심으로 둥글게 감싸고 있는 모양이다. 靑龍은 穴의 왼쪽에서, 白虎는 혈의 오른쪽에서, 朱雀은 혈의 앞에서, 그리고 玄武는 혈의 뒤에서 볼록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면 이 네 렌즈의 공통초점이 되는 곳이 바로 혈이 되어 여기에 엄청난 양의 生氣가 모이는 것이다.⁷²⁾

72) 박시익, 『전계서』, pp143-144



<그림 15> 사신사의 반사경 작용



<그림 16> 사신사 반사경 방향

다. 四神砂의 生氣

靑龍에서 발생되는 생기는 대표적으로 자손 번창의 기운, 권력과 지도자의 운, 재산의 기운을 갖고 있다. 靑龍이 이 세 기능을 다하는 지세에서는 사람들이 건상상태도 좋고 후손(특히 남자)들이 고급 공무원이 되거나 재물을 모은다. 또한 자손도 번창한다. 靑龍의 끝 부분이 집터를 등지고 멀리 뻗어 나간 지세라면 형제관계를 끊고 멀리 떠나는 사람이 생긴다. 靑龍의 부분적인 형태에 따라 자식들의 형편이 달라진다.

白虎에서 발생되는 기운은 재산과 여성의 생명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白虎가 기능을 다하는 지역에서는 부자가 나오고 훌륭한 여성이 많이 배출되는데 딸은 물론 며느리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뒷면을 보이는 배반적인 경우에는 재물을 잃고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된다.

朱雀 중에서 집터 가까이에 있는 안산은 재산, 지위, 평판 같은 기운과 연관된다. 그래서 朱雀이 좋은 집터에서는 많은 재산을 모으고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며,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된다. 朱雀은 玄武와 대칭되는 관계에 따라 玄武가 주인이라면 朱雀은 손님 또는 보조자로서 현무보다 한 계급 낮은 것이 이상적이다. 안산과 조산에 생기를 보내는 지세에서는 매우 높은 신분으로 상승하며, 명예와 재물까지 동시에 얻게 된다. 생기를 만들어 주는 기능에서는 가까이 있는 안산이 멀리 있는 조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玄武는 穴에 地氣를 직접 전달하고 있어서 四神砂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현무는 한 집안이나 개인에게 특별한 능력을 만들어 주는 생기를 갖고 있어, 玄武의 지세가 좋은 지역에서는 능력이 출중한 인물이 배출된다. 玄武의 기운은 朱雀의 기운과 대칭되는데, 朱雀이 사회적인 평판이나 여론 등 외부적인 기운을 주는데 반해 玄武는 내부적인 힘을 만들어 준다.⁷³⁾

4. 水勢論

1) 水勢의 概要

風水地理는 산을 바탕으로 삼아 물과 바람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물은 혈을 결지하는데 필수조건으로 물은 길하기도 하고 흉하기도 한다. 물은 생기를 보호하고 멈추게하여 융취(融聚)시키는 역할을 한다. 물이 돌면 기도 멈추고 물이 直流하면 기맥도 직류하여 설기한다.

물은 生氣가 흩어지지 않도록 龍脈을 보호하고 산진처에 이르면 생기가 모이도록 한다. 兩水가운데는 용맥이 있고, 合水하는 곳에 행룡이 끝나는 龍盡處이다. 물이 보호하지 못하면 용맥이 행룡할 수 없으며, 산진처에서 합수하지 않으면 결지할 수 없다. 물은 水管財物이라 하여 재산을 관장한다. 깊고 많은 곳에서 재화가 모이고, 물이 얇고 적은 곳에서는 재산이 흩어진다.

73) 박시익, 『전계서』, pp137-148

2) 水의 吉格과 凶格

龍의 흐름이 다양하듯 물의 흐름도 다양하다. 물의 형세를 보고 용혈의 길흉을 가늠하는 것을 水勢라 하며, 크게 길격 형세와 흉격 형세로 구분하고 있다.

가. 吉格 形勢

길격형세는 물이 끊임없이 움직이므로 양기에 해당되며 음기인 용과 접응(接應)하여 생기를 보호하고 혈을 결지한다. 깊고 맑으며 깨끗한 물이 길격이므로 고여 있는 물이라 해도 맑고 깊고 깨끗하여야 한다. 물이 풍부하다는 것은 용이 그만큼 멀리서 출발하였다는 뜻이며, 명당으로 들어오는 물은 屈曲을 이루어 지현자(之玄字)모양으로 유유히 들어와 길하다.

여러 골짜기에서 득수한 물이 혈 앞의 명당에 모여들어 한곳의 水口로 去水해야 길하다. 명당에 들어온 물이 保局을 빠져 나갈때는 急流直去하지 않고 지현자를 그리며 천천히 흘러나가야 한다. 물은 용과 혈을 감싸 안아 주듯 錦城廻流(錦城廻流)하여야 한다.

나. 凶格 形勢

흉격 형세는 득수한 물이 용혈을 배반하여 反弓逆流하거나 일직선으로 용혈을 찌르듯 들어오면 흉하다. 물이 용혈을 찌르듯 빠르게 들어오면 자손이 상하고 官災가 우려된다. 모이지 못하고 사방으로 흩어져 흐르는 물은 家產敗財가 우려되는 흉한 물이다. 얇고 급한 여울물이 소리를 내며 흐르는 것은 人亡敗家가 우려되고 신경쇠약이 의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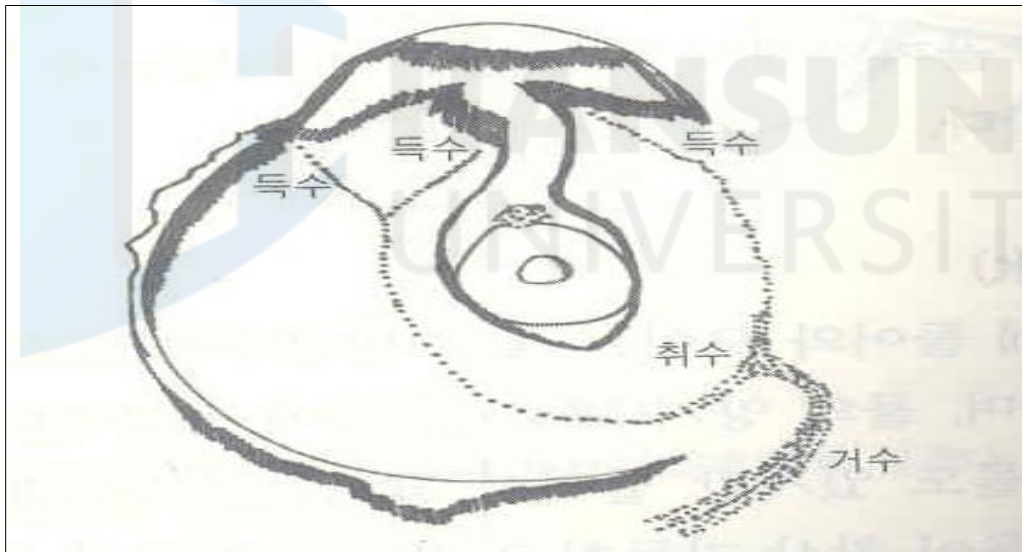
물이 용혈을 감싸주지 못하고 배반하여 등을 돌리고 흐르면 敗家亡身이 우려되고 후손의 불효가 예상되는 물이다. 혈 앞 명당이 기울어 쏟아지듯 매우 급하게 흐르는 물은 속패(速敗)하고 재산이 새어나가는 흉한 물이다. 용혈을 등지거나 衝殺하면 흉한 물이 된다.

3) 水의 三勢

수의 삼세는 득수, 취수, 거수로 구분된다. 得水은 용혈이 물을 얻는 것이니 혈이 응기 되고 굴처가 이루어지면 득수가 이루어진다. 물은 내당에 모여 환포하고 가로질러 수구로 향한다. 주룽의 능선과 내청룽 내백호 사이에서 득수한 물이 혈 앞을 지나는 것을 內得水라 하고 외청룽과 외백호 사이와 여러 골짜기에서 득수한 물이 외명당에 모이는 것을 外得水라 한다.

聚水란 명당에 들어와 모이는 물로 명당수라 하고 내당수, 내수라고 하며 물의 陽氣를 혈에 공급해 준다. 내당수는 득수에서 얻어지는 물도 있지만 멀리서 달려온 물도 해당된다. 명당에는 맑은 물이 항상 가득하고 잔잔하게 고여 있어야 재물을 얻는다.

물이 보국을 빠져 나가는 것을 去水라 하며, 빠져 나가는 지점을 水口, 破口라 한다. 내당에 모였던 물이 혈관에 水氣를 공급해 주고 회류하여 빠져나가면 다른 물이 와서 모이고 또 수기를 공급하고 회류하여 지현자로 빠져 나간다. 거수하는 물은 急流直去를 피하고 혈을 감싸고 원만한 유속으로 돌아 나가야 한다.⁷⁴⁾



<그림 17> 물의 삼세

74) 안종선, 『전계서』, pp359-366

5. 向法論

向法論은 坐向論을 불리며 풍수의 구성요소중 방위에 관계되는 것이다. 坐向은 원래 穴의 뒤쪽을 坐, 穴의 앞쪽을 向으로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坐向論 하면 穴處에서 좌향 뿐만 아니라 산수의 흐름을 포함하는 방위 전반에 관련된다. 風水地理學은 龍穴砂水向의 形勢와 陰陽五行 理法 작용에 의해서 穴의 兪결과 그 吉凶禍福을 추구한다. 穴을 찾았다면 坐向을 어떻게 하여 우주의 좋은 기운을 취할 것인가를 논하는 것으로 取吉避凶을 목적으로 하며, 옛날부터 龍穴砂水向을 地理五訣이라 하여 매우 중요시 하였다.

지기가 충만한 곳이라도 우주의 나쁜 기운이 비추는 방향이면 부귀가 불발하고 크고 작은 災殃이 뒤따르게 된다고 보는 것이 向法の 吉凶禍福론이다. 따라서 진혈지와 더불어 坐向을 우주 이법에 맞게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穴이 아니라면 向法이라도 제대로 하여 天氣를 받게 하자는 것이 理氣論이다. 風水地理에는 각종 向法이 많이 있고 학설도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胞胎法에 의한 救貧 楊筠松 선생의 八十八向法과 九星法이다.⁷⁵⁾

본고에서는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88向法에 대해서만 논하기로 한다.

1) 88向法の 概要

당나라때 양균송의 작품으로 14進神水法과 10退神法에 두고 있다. 양균송이 이 법칙으로 불쌍한 백성들을 가난으로부터 구제해 주었다하여 救貧으로 불렸다. 이후로 본법을 계승 발전시켜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인다. 88向法은 기맥을 분석하여 체계화시킨 것이지만 때와 장소에 따라서는 기맥을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맥이 없는 상황에서 유효하게 사용하는 이법이다. 그 이유는 向法만 맞추면 된다는 이론이기도 하다. 물을 중심으로 하기에 형기풍수에서 기맥의 도로로 보는 산맥은 무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山을 기준으로 하는 形氣論에서

75) 안종선, 『전계서』, p507

는 龍穴砂水向의 坐向은 최하위 필요조건으로 보고 때로는 무시하지만 理氣論에서는 向法이 기본 공식이다.

龍穴砂水の 형세적 관찰과 판단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向법은 공식화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똑같은 길흉화복으로 평가된다는 것이 理氣論의 주장이다. 그러나 반론도 있어서 得水와 破口가 보는 방법과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 形氣論의 주장이다.⁷⁶⁾

2) 88向法の 基本原則

가. 佩鐵의 24方位를 12쌍산(雙山) 배합 운용

패철의 24방위를 12쌍산 배합을 정리하면 壬子, 癸丑, 艮寅, 甲卯, 乙辰, 巽巳, 丙午, 丁未, 坤申, 庚酉, 辛戌, 乾亥가 된다.

나. 破口를 중심으로 四局을 결정

오행중 土는 중앙을 나타내므로 빠지고, 木局, 火局, 金局, 水局의 사국을 가지고 운용한다. 각국의 결정은 보국안에서 물이 빠져 나가는 파구를 기준으로 한다. 木局은 丁未, 坤申, 庚酉, 火局은 辛戌, 乾亥, 壬子이며, 金局은 癸丑, 艮寅, 甲卯이고 水局은 乙辰, 巽巳, 丙午이다.

다. 向을 기준으로 局을 정할 때는 三合五行 사용

향을 기준으로 四局을 정하는 것을 向상 작국⁷⁷⁾이라 하며, 이때 오행은 삼합오행이다. 亥卯未는 木이므로 乾亥, 甲卯, 丁未일때는 向상목국이 되며, 寅午戌은 火이므로 艮寅, 丙午, 辛戌은 向상화국이고, 巳酉丑은 金이므로 巽巳, 庚酉, 癸丑은 向상 金국이 되며, 申子辰은 水이므로 坤申, 壬子, 乙辰은 向상수국이다.

라. 得水한 물이 穴의 向과 陰陽交配하는 것은 물이 기준임

88향법은 의수입향이 원칙이지만 모든 물이 다 입향의 依支水가 아니다. 오직 혈을 감싸고 돌아 향과 마주보고 음양교배할 수 있는 물만이 의지수이다. 혈의 좌측에서 득수한 물이 혈 앞을 감싸고돌고 우측으로 파구되는

76) 안중선, 『진계서』, pp508-509

77) 向상오행은 향을 기준해 4대국을 정하는데 이미 지어진 묘나 주택의 풍수적 길흉을 판단하고 나아가 풍수적 결함이 무엇인가를 판단해 비보 내지 보완하는 방법으로 쓰인다. (고제희, 『풍수지리 교과서 4』, 문예마당, 2009, p95)

左水到右하는 물이나, 우측에서 득수한 물이 혈앞을 감싸고돌고 좌측으로 파구되는 右水到左하는 물을 보고 입향한다. 아무리 크고 좋은 물이라도 혈 앞을 지나지 않으면 龍水交配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물의 대소에 구애받지 말고 항상 龍穴을 감싸 흐르는 물을 기준해야 한다.

마. 左旋龍에 右旋水, 右旋龍에 左旋水

龍이 穴을 결지하는 방법에 우선룡에 좌선수, 좌선룡에 우선수가 원칙이나 때로 가늠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 따라서 용의 좌우선에 지나친 제약을 받지 말고 좌우 어떠한 물이든 확실하게 용혈을 감싸주는 물이 혈의 향과 음양교배할 수 있다.

바. 內破가 優先, 外破 次善

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은 혈에서 제일 가까운 물이다. 대부분 혈지는 내파와 외파가 같은 방위에 있는 경우가 많으나 다른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내파와 외파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위로 입향해야 한다. 그러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내파를 우선하고 외파는 다음이다. 내파 기준 입향은 당대 혹은 빠른 시기의 吉凶을 관장하고 외파기준 입향은 후대 혹은 늦은 시기의 길흉을 관장한다.

사. 破口는 穴 앞을 지나는 물이 최종적으로 지나가는 곳

물이 흐른다는 것은 지세가 그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는 뜻이다. 左靑龍 右白虎가 서로 교차한 지점에서 좌우수가 합수되고 보국 밖으로 나간다. 따라서 혈 앞을 지나는 물이 다른 물과 합수되는 지점이 內堂水가 최종적으로 나가는 破口이다. 內破는 이곳의 방위를 나경패철 8층 天盤縫針으로 측정하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⁷⁸⁾

3) 88向法の 種類

88向法에는 正生向, 正旺向, 自生向, 自旺向, 正養向, 正墓向, 文庫消水, 沐浴消水, 胎向胎流, 絶向絶流, 衰向胎流의 11개 종류가 있다. 이들은 木局, 火局, 金局, 水局에 각각 하나씩 있으므로 44개 향이 되고, 쌍산배합이기 때문에 모두 88向이 된다. 나경패철의 24방위로 파구와 향을 측정하여 놓

78) 안종선, 『전계서』, pp509-512

을 수 있는 좌향의 종류는 이론상 576개다. 이중 88향만 길한 것이도 나머지 488향은 흉하다.

11개의 향법중 사국법을 기준으로 하여 정국으로 입향할 수 있는 향은 正生向, 正旺向, 正養向, 正墓向, 胎向胎流, 絕向絶流, 衰向胎流, 등 7개 향법이고, 向上作局을 하여 변국⁷⁹⁾으로 입향할 수 있는 향법은 自生向, 自旺向, 文庫消水, 沐浴消水 등 4개다.

自生向과 自旺向의 뜻은 스스로 생향과 왕향을 얻는 다는 의미에서 이를 붙여진 것이다. 향상작국은 향을 중심으로 물의 득수처와 파구처 그리고 향의 길흉화복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법이다. 향상으로 득수처와 향은 길한 宮位로 하고, 파구는 흉한 宮位여야 한다.⁸⁰⁾



79) 향법도 본래는 자기 국의 정향(正向)을 놓는 것이 정법이나, 정향을 놓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 다른 局의 향을 빌려 입향을 한다. 이것을 變局向法이라 부른다. 변국향법이란 입향을 결정했어도 사정이 생겨 그 향을 놓을 수 없는 경우에 하나의 향을 더 놓을 수 있도록 한 향법이다. 정향을 놓을 수 없는 7가지 사유는 ①當局의 형세, ②조산의 횡사(橫斜), ③안산의 배곡(背曲), ④용상팔살(龍上八殺), ⑤회두극좌(回頭剋坐), ⑥묘의 정면으로 집이 바라보이는 경우 ⑦살인황천수도례가 있다. 고제희, 『정통 풍수지리교과서3』, 문예마당, 2009, pp253-259

80) 안종선, 『전계서』, p512

제 4 장 隆健陵의 風水地理的 分析

제 1 절 朝鮮 王陵의 理解

능원(陵園)은 왕족의 무덤을 가르키며 그 중 왕과 왕비의 무덤은 陵으로 그리고 왕세자와 왕세자비, 왕의 私親의 무덤들을 園이라 칭한다. 능원이 하의 무덤들은 모두 墓가 된다. 제22대 正祖가 승하하자 健陵이라는 陵號로 불렸으나 왕세자 때 폐세자 되어 죽임을 당한 생부 사도세자의 무덤은 영조때 수은묘(垂恩墓)로 불렸고 정조때 영우원(永祐園)과 현릉원(顯隆園)으로 격상 되었으며 그 후 隆陵이라는 추존 왕릉까지 추송되기에 이른다. 왕족 중에서도 대군일지라도 왕세가자 아닐 경우에는 묘로 불려 졌으며, 폐위된 연산군과 광해군의 경우는 능원이 아닌 墓로 불려졌으며, 폐위된 연산군과 광해군의 경우는 능원이 아닌 묘로 불려지고 있는 데서 陵, 園, 墓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陵, 園, 墓에 관련된 조선왕조 왕족의 무덤들은 모두 109기에 이른다. 그 중 陵이 44기, 園이 13기, 그리고 墓가 52기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왕이 승하하면 國葬을 관장할 임시기구인 都監들이 설치되고 3개월에서 5개월에 이르는 국장 기간동안 왕릉 터가 상지(相地)되었다. 이때 동원된 다수의 風水地官들과 함께 대신들은 한양 주변 백리 안팎의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풍수로서 판단하여 천거된 후보지는 조정의 논의를 거쳐 재위왕의 결정으로 정해졌다. 이때 택지된 朝鮮王陵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조건을 만족시켜야 했다. 먼저 背山臨水 조건으로 왕릉 뒤편에 있는 背山은 바람을 감추는 藏風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臨水에 해당하는 왕릉 앞쪽의 물줄기는 생동하는 기운의 방위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장 금기시 했다. 이러한 해석들은 모두 풍수 법칙으로 계산되어졌고 藏風과 得水를 줄인말로 風水라는 것이며, 그래서 왕릉택지의 背山臨水를 논할 때 가장 중요한 충족요건은 모두 풍수였다.

風水를 텃자리 조건으로 삼은 조선왕릉들은 단릉(單陵), 쌍릉(雙陵), 삼연릉(三連陵), 동역이강릉(同域異岡陵), 동원상하봉(同原上下封), 합장릉(合葬陵) 양식을 보여 주면서 모두들 우상좌하(右上左下 ; 우측에 왕, 좌측에 왕비)라는 매김질과 함께 유교예제(儒敎禮制)를 고수했던 것이 조성왕릉의 특징이기도 했다. 그러나 어떤 양식이건 陵域의 들머리에는 홍살문이 서있고 이러한 홍살문 좌측에는 능행때 절을 하는 배위(拜位)가 조성되어 있다. 절을 마친왕은 홍살문을 통하여 정자각에 이르는데 홍살문과 정자각을 연결하던 돌길을 참도(參道)라 한다.

정자각은 능제를 지내는 민묘(民墓)의 상석(床石)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며, 정자각 좌측의 碑閣은 왕릉의 묘비를 안치하기 위한 조성물이다, 비각 앞쪽에는 능지기들이 왕릉을 관리하는 초소 용도의 수복방(守僕房)이 그리고 정자각 우측 뒤편에는 축문을 태워 묻는 예감(瘞坎)이 있다. 정자각 뒤편으로는 작은 동산 모양을 흙더미로 조성한 강(岡)이 있으며, 강은 조선왕릉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기도 하다. 岡을 사초지(莎草地)라고도 부르며 사초지 위에 오르면 장대석(長臺石)으로 부르는 긴 돌들이 사각형 모양을 이루며 놓여있다. 이러한 장대석 위쪽은 陵園으로서 능원위에 石人과 石馬 그리고 長明燈이 차려져 있고 석인은 文人石과 武人石으로 나누며 문치주의를 내세웠던 조선왕조 특성상 문인석을 한단계 더 높은 장대석 위에 매김질 시켜 놓았다. 장명등은 통상 문인석 앞에 놓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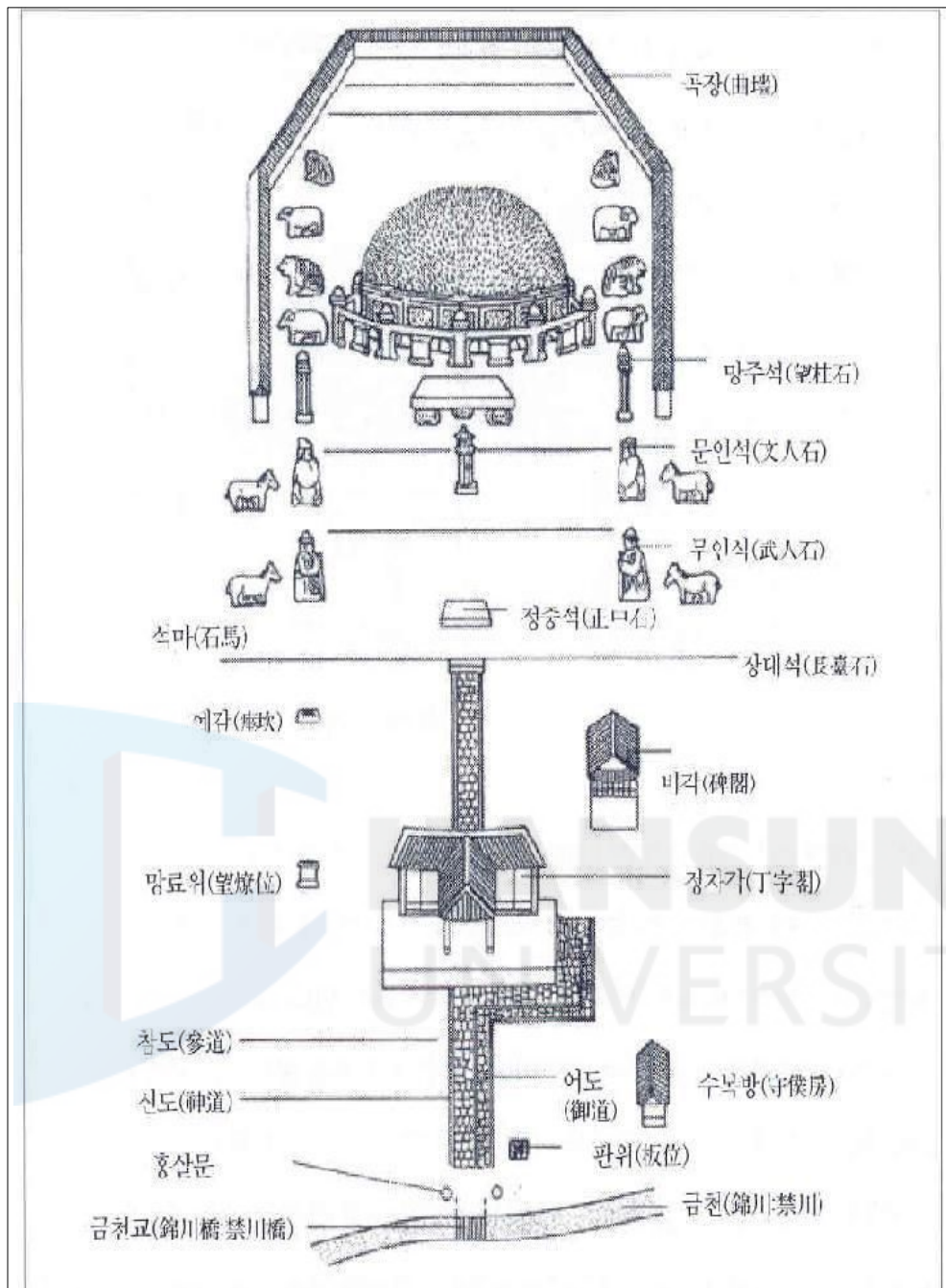
능원은 장대석으로 3단계로 구분되며, 그중 가장 높은 상단에는 승하한 왕의 침전이라는 陵寢이 자리하는데 능침 주변 3면에는 곡장(曲牆)이라 하는 돌담들이 조성되어 있다. 곡장안에는 石虎와 石羊들이 능침을 호위하고 능침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왕릉 封墳을 병풍처럼 莎臺石이 휘두르고 있기에 이를 흔히 병풍석이라 하기도 한다. 병풍석 외곽을 다시 휘두르는 欄干石과 병풍석은 초기 조선 왕릉 양식의 특징이었으나 제7대 세조때 부터는 풍수상 이유에서 병풍석을 생략한 난간석 왕릉들이 전통 왕릉의 약식으로 내려오게 된다. 곡장으로 둘러싸인 능치 가장 앞쪽 양편에는 각각 望柱石이 세워져 있으며, 봉분 앞에 있는 혼유석인 石床은 혼령이 앉는 의자라는 용도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선왕릉 조성양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승하한 왕의 유해가 안장될 능상(陵上;봉분)자리로서, 풍수상 穴자리에 매김질 되어 있어야 했다. 조선 왕릉 조성에 있어서 꽃중의 꽃에 해당되는 穴자리를 풍수로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시 되었다. 왕릉의 관리를 근처의 사찰을 지정하여 운영하게도 했으며, 해당 사찰은 願刹로 불려졌고, 태조 왕릉인 건원릉의 개경사(開慶寺, 지금은 없음), 貞陵의 興天寺, 세종 왕릉의 神勒寺, 세조 왕릉의 奉先寺, 중종 왕릉의 奉恩寺, 사도세자 융릉의 龍珠寺등의 원찰들은 승유억불이라는 조선왕조 당시에도 선비들이 함부로 행동할 수 없을 만큼 권력을 지녔다.⁸¹⁾

왕릉의 능역 공사에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정과 인력, 시간을 투입하는 중요한 국책사업의 하나로서 특히 조선의 대부분의 왕은 즉위하자마자 제일 먼저하는 국사가 바로 國葬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國喪이 나게 되면 國葬都監을 따로 설치하게 되는데 국장도감에서 국상기간동안의 국장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게 되며, 장례일까지 엽습 등 빈전에 관한 비전도감과 지관을 파견하여 능의 조성지를 선정하는 등 능지조성을 위한 임시기구인 山陵都監을 따로 설치 운영하게 된다.

이처럼 山陵都監이라는 별도의 임시기구를 설치하고 地官들을 각지에 파견하여 왕가의 능지를 소점하는 것은 풍수적 발복을 통하여 왕조의 무궁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풍수지리적 사상이 저변에 깔려 있다.

81) 장영훈, 『왕릉풍수와 조선의 역사』, 대원사, 2000, pp24-28



<그림 18> 조선왕릉 상설도

제 2 절 思悼世子와 隆陵의 造成

1. 永佑園 遷園 背景

朝鮮時代 역대 왕들은 先王을 명당에 모심으로써 王業의 무궁한 계승, 발전과 왕족들의 無病長壽를 바랬다. 그래서 왕들이 성묘하기에 알맞은 거리인 한양 100리 이내에서 明堂을 찾았다. 정조는 이와는 달리 양주 拜峰山(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뒷산)에 묻혀 있는 思悼世子の 무덤인 永祐園을 옮기기 위해 명당이 될 만한 장소를 물색했다. 보통 조선조 왕들은 葬地를 정할 때 장지의 결정에 관여하는 지관들과 대신들 중에서 풍수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을 추려 장지선정에 책임을 맡겼다. 그러나 정조의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遷葬地의 선정에 깊이 관여하여 명당자리를 찾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자신이 직접 풍수서적을 열람하고 당대에 내노라하는 지관들과 토론을 벌였으며, 지관들이 그려온 지세를 보고 그들의 평가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수원 화산으로 遷葬地를 선정하게 된다.⁸²⁾

장영훈의 『왕릉풍수와 조선의 역사』에서는 正祖가 부친인 思悼世子の 묘를 수원으로 이장시킨 배경을 정치적, 풍수적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1776년 3월 5일 영조가 昇遐하자 6일 소렴하고, 9일 대렴을 마친뒤 10일에 정조는 22대 조선 왕으로 등극한다. 등극한 바로 그날 정조의 첫 교시는 국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통에 관한 것이었다. 선왕(영조)은 자신을 孝章世子⁸³⁾ 계승이라 했으나 정조는 사도세자의 혈통을 계승한 것이니 이를 똑바로 알리는 교시였다. 효장세자는 정조의 큰아버지이니 영조는 세손을 10세때 죽은 효장세자의 양자로 삼아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다. 만약 이를 계승하였다고 인정했을 경우와 부정할 경우의 국사의 행방은 극에서 극으로 달리게 된다.

82) 성동한, 『현유원 천원과 화성건설을 통해 본 정조의 풍수지리관』, 한국사상제17집, 2001, p126
83) 진중(1719-1728), 조선후기의 추존왕. 영조의 맏아들로 왕세자에 책봉되었으나 10세에 죽어 이복 동생 사도세자가 왕세자가 되었다. 사도세자 마저 즉위하지 못하고 죽자 사도세자 아들 정조가 그 양자가 되어 즉위함에 따라 진중으로 추존되었다.

즉위하자마자 정후겸, 홍인한, 홍상간, 윤양로 등을 전격 제거하면서 3월 12일 영조의 신후지지였던 서오릉 홍릉자리를 영조의 안장처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며칠 후 영조 자신의 원했고 정조 역시 어명으로 교시했던 홍릉 장사에 대한 대신들의 목소리들이 좌충우돌 했던 것이다. 당시 강직한 신하인 황해도사 이현모가 어떠한 풍수설에 갑론을박 하느니 차라리 유교 예제에 따라 선왕의 유지대로 홍릉에 국장을 치르는 것이 허물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자 이현모를 정조는 즉시 파면시켜 버린다. 게다가 3월 28일 충호사를 바꿔버리고 숙의 문씨를 삭탈 관직하였으며, 그의 가족들을 멸문시켜 버렸다. 숙의 문씨(영조의 후궁)는 사도세자 사건때 동조했던 인물인 점을 참작할 때 정조의 왕심이 무엇인지 짐작케 한다.

영조의 왕심을 간파한 신하들은 4월11일 영의정 김양택, 좌의정 정존겸, 판충부사 김치인, 이은, 금성위 박명원과 지관 김기량, 김진, 유동형, 김상현 등이 올린 영조 왕릉 천거지는 소령원 자리와 동구릉 서쪽 언덕이었다. 그중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영장리에 있는 소령원 자리는 숙종의 후궁이었던 숙빈 최씨의 무덤을 말한다. 소령원이 왕릉지로 선택되면 숙빈 최씨의 무덤을 덜어내야 되며 숙빈 최씨는 영조의 어머니이다. 자기 어미의 무덤을 파헤치고 그 자리를 자식(영조)가 차지한다는 것은 하늘아래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정조의 가려운대를 긁어준다는 데에 확실한 충성을 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너무 도가 지나쳤다고 생각해서 인지 아니면 대신들의 선산이 있어서 그런지 소령원 택지는 신하들끼리 의견불일치를 보게된다.

두 번째로 천거된 택지 역시 풍수 불발에 유교 욕심이 짝찬 문제의 왕릉지였고 더욱이 동구릉 내 화소지역이기에 대신들의 선산이 파헤쳐 질리도 없었다. 일단은 유교론자인 대신들과 정조의 풍수 복수극을 만족시켜야 했던 그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오히려 동구릉이 대단한 명당이기까지도 했다. 건원릉 서쪽 두 번째 산줄기는 103년전 효종 왕릉인 영릉이 경기도 여주로 천장을 했던 자리이다. 일반 민가에서도 일단 破墓된 자리는 무덤을 쓰지 않는데 천하의 영조 왕릉의 천거지가 파묘된 자리라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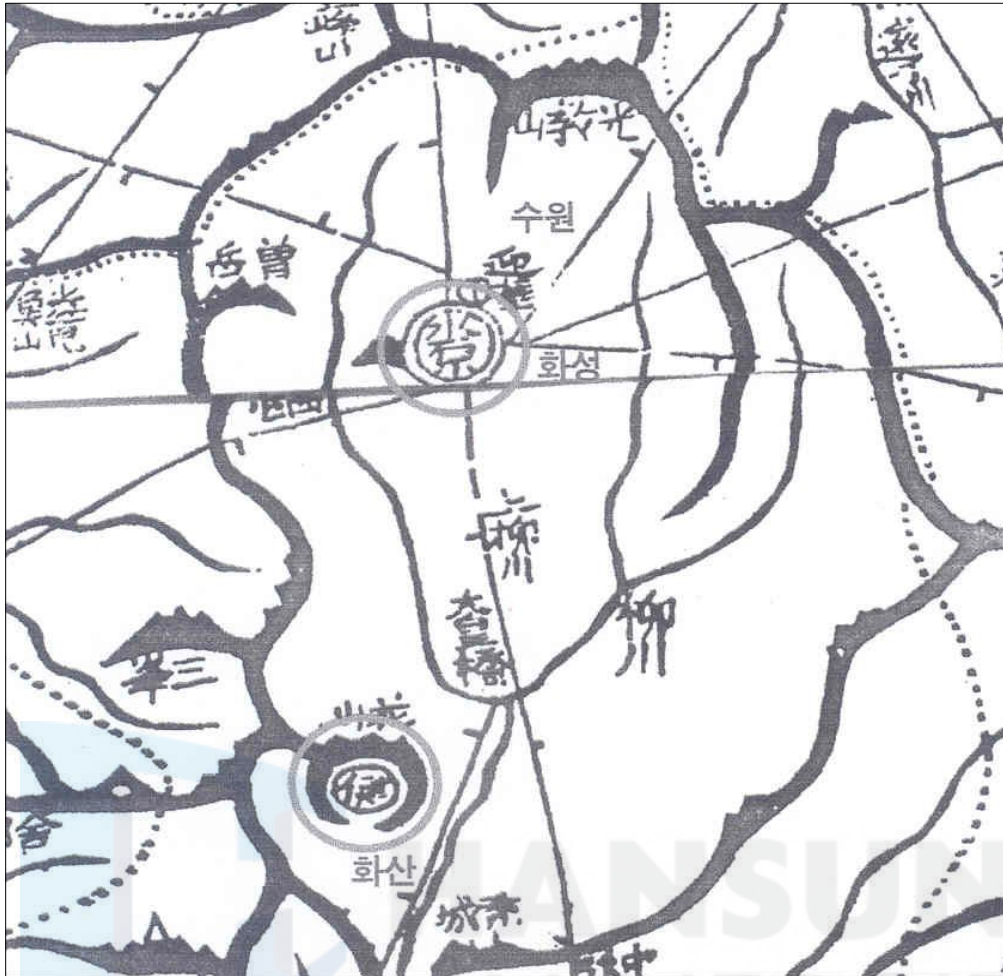
조선 왕조의 역대 왕들은 한결같이 무덤 風水發福을 신봉하고 있다. 정조 역시 그 중의 하나였으며, 어릴적 할아버지 뼈대 발복이 흥지에 있으면 자신도 불리하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 파묘자리는 생기 구멍을 파헤친 자리이기에 소위 김빠진 자리이다. 이러한 무발복에 놓인 영조 왕릉에 대신 정조에게는 이미 의지하고 있는 무덤 발복지가 있었다. 그것은 16년전 천장산에 묻힌 생부 사도세자 묘의 발복을 타는 것이다. 그래서 즉위한 그날 즉시 정조 자신이 사도세자의 뼈대 혈통임을 공포했고, 뒤이어 영조의 흥릉 자리를 철회하는 동시에 당시 垂恩墓였던 사도세자의 묘를 永佑園으로 격상시키고, 정조 13년에는 사도세자 유해를 조선팔도에서 최고의 길지 발복처라고 알려진 수원으로 이장시키게 된다.⁸⁴⁾

이외에도 정조 즉위 초에 행해진 사도세자 추숭사업은 영조가 私親인 淑嬪崔氏를 추숭했던 전례를 따른 것이나 정조의 마음을 흡족하지 못하게 하였다. 永祐園은 국내가 비좁고 풍수적으로도 못마땅하였기에 마음 한편에 불편한 심기가 남아 있었다. 그리하여 정조는 永祐園이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다고 여기고 마음속으로 遷園을 계획하였으나 너무 신중한 나머지 시간을 끌다가 여러 해를 넘기게 되었다. 이후 1789년 7월 金城尉 박명원(1725-1790)이 永祐園의 墓域이 매우 비좁고 초라하여 서둘러 천봉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 正祖는 박명원의 상소가 올라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상소에 대한 비답을 내려 永祐園을 옮길 것을 결정하면서 2품 이상 대신들이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 예로부터 봉표(封標)해둔 여러 곳을 검토한 결과 전국 3대 길지의 하나로 지목되어 온 수원도호부의 主山 花山으로 결정하였다.⁸⁵⁾

수원 화산은 윤선도가 강력하게 효종의 능지로 추천한 吉地로서 정조 당시 까지 능으로 쓰이지 않고 비워있는 상태에서 부친인 思悼世子를 추숭하는 효심과 風水的 發福을 꾀하려는 정조의 입장이 시의적으로 잘 맞아 떨어져 遷葬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永祐園 즉 顯隆園 遷葬을 계기로 화성축성 등 수원 신도시를 건설을 통한 왕권강화 차원의 포석이라고 판단된다.

84) 장영훈, 『전계서』, pp245-251

85) 정해득, 『정조시대 현릉원 조성과 수원』, 신구문화사, 2009, pp33-34



<그림 19> 대동여지도로 본 수원과 화산

2. 隆陵과 思悼世子の生涯

隆陵은 조선 제21대 영조의 둘째 아들이며 정조의 생부인 莊獻世子(추존 莊祖)와 그의 비 惠慶宮 洪氏(추존 敬懿皇后)의 능이다. 사적 제206호로 지정된 용릉은 현재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 산1의1에 위치한 花山 우측 癸坐丁向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조 때 본래의 원호가 현릉원이었으나 고종 때 莊祖로 추존함에 따라 용릉이 되었다. 장헌세자는 영조의 둘째 아들로 영조 11년(1735) 1월 21일 영비인씨 소생으로 창경궁 집복헌(集福軒)에서 태어났다. 이름은 선(愼), 자는 윤관(允寬), 호는 의재(毅齋)이다. 이복형 효

장세자가 요절하자 영조 12년 2세의 어린나이에 왕세자에 책봉되어 10세가 되자 가례로 嬪(혜경궁 홍씨)을 맞이하여 별궁에 거처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부터 辛壬土禍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것과 그 복수를 꾀함으로써 당시 집권층인 노론세력을 당황하게 하였다.

영조 25년(1749) 15세의 나이로 부왕을 대신하여 대리청정을 했으나, 노론·척리와 결탁한 영조의 계비 貞純王后와 숙의 문씨 등의 비방과 무고까지 가세하여 부왕의 노여움을 샀다. 더구나 영조 37년(1761) 평안감사 정희량등의 계교에 빠져 평양에 비밀히 유람하고 온 일로 부왕의 진노는 극에 달하게 되었다. 이듬해 정순왕후의 아버지 김한구와 그 일파의 홍계희, 윤급 등의 사주로 윤급의 노복 나경언에 의해 그동안의 결점과 비행 10여조가 부왕에게 상주되었다.

이에 대노한 영조는 나경언을 죽이는 한편 세자가 궁녀를 목베어 죽이고 여승을 입궁시켰던 일, 몰래 평양에 유람하고 온일 등을 문책하여 마침내 제위를 폐위시켰다. 그 후 사도세자는 주위의 무고와 참언, 부왕의 불신 등으로 점차 신경강박증에 시달리며 발작적 광행을 일삼는다는 흉측한 말이 부왕에게 들어가 마침내 자결을 명 받았다. 그러나 이를 듣지 않자 서인으로 폐하게 되고, 이어 뒤주 속에 갇혀 영조 38년(1762) 윤 5월 21일, 8일만에 아사하니 이때 나이 28세 였다. 비명으로 죽은 후 이를 후회한 부왕에 의해 思悼라는 시호를 내렸고, 이해 7월 23일 양주 남쪽 중량포 拜峯山기슭에 장례를 지내고 처음에는 垂恩墓라고 하였다.

그의 아들 정조가 즉위하자 莊獻이라는 시호를 올리고 궁호를 경모(景慕), 원호를 永佑라고 고쳤다. 정조 7년(1783) 존호를 추상하여 수덕돈경(綏德敦慶)이라 하였으며, 이듬해에는 존호를 홍인경지(弘仁景祉)로 추존하였다. 정조19년(1795)존호를 다시 장륜융범기명창휴(章倫隆範基命彰休)라 추상하였으며, 철종 6년(1855)에는 찬원헌성계상현희(贊元憲誠啓祥顯熙)라 더하여 올렸다. 그후 고종 광무 3년(1899) 10월 10일에 왕으로 추존하여 묘호를 莊祖, 시호를 신문환무장헌광효(神文桓武莊獻廣孝)로 올려졌으며, 그해 겨울 11월 17일에 의황제(懿皇帝)로 추존되었다.

그의 嬪 혜경궁 홍씨는 영풍부원군 영의정 홍봉한의 딸로서 영조 11년

(1735) 6월 18일 서울 반송방(盤松坊) 사제에서 태어났다. 영조 20년 세자빈에 책봉되었으며, 영조 38년(1762) 세자가 죽은후 惠嬪의 호를 받았다. 1776년 아들 정조가 즉위하자 궁호가 惠慶으로 올랐고, 순조 15년(1815) 12월 15일 81세를 일기로 창경궁 景春展에서 승하하여 이듬해 3월 3일 남편이 묻힌 현릉원 좌측에 봉릉되었다. 고종때 세자가 왕으로 추존되자 敬懿王后가 되었으며, 광무 3년 敬懿獻皇后로 추존되었다. 소생으로 정조를 비롯한 3남 1녀를 두었다. 자전 회고록 『한중록』은 회갑을 맞던 정조 19년(1795) 친정조카 홍수영의 소청에 의해 쓴 글로서, 67세, 68세, 71세 등 4차에 걸쳐 집필된 4편의 異本이 있다.⁸⁶⁾

3. 隆陵의 墓域 造成

정조는 양주 남쪽 중랑포 배봉산 기슭에 모신 생부의 묘원 永祐園이 너무 좁고 불길하다고 생각하여 왕 13년 10월 8일 마침내 옛 수원읍치 부근인 화산 癸坐丁向 자리에 천봉하니 이곳이 顯隆園이다. 정조는 왕13년 기유년에 『현릉원지』를 어제하고, 『현릉원비』도 친제하여 세웠다. 정조는 顯隆園을 조성할 때 온갖 정성을 기울여 조선시대 어느 능원보다 후하고 창의적인 상설(象設)을 고안하려고 하였다. 즉 영릉(寧陵) 천릉때 이미 폐지하기로 한 병풍석을 만들어 두르고, 병석(屏石)에는 인조의 능인 장릉(長陵) 천릉때와 같이 모란, 연화문 조각을 하였다. 또 인석(引石)은 화뢰형(花蕾形)으로 하고 무인석까지 만들어 세웠다. 특히 長明燈은 조선전기의 8각 장명등과 후기의 숙종.영조 연간에 등장한 4각 장명등의 양식을 융합하여 운족(雲足)이 달린 매우 품격이 높은 새로운 양식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뒤의 정조의 건릉과 철종의 예릉(睿陵) 장명등의 본이 되었다.

능에 진열된 석물에서도 정조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잘 반영되어 있다. 능의 석인은 사실적으로 다듬어 가슴에 파묻혔던 종래의 목 부분이 위로 나와 답답하지 않다. 또한 문인석의 조각을 보면 종래까지 흔히 쓰던 복두(幘頭) 대신 금관을 쓴 예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원제(園制)에도 없

86) 최홍규, 『정조의 화성 건설』, 보광문화사, 2001, pp332-334

는 무인석이 배열했는데 문인석과 함께 그 조각솜씨 또한 걸작이다. 현재 隆陵에는 墓域入口 중앙에 전사문(典祀門)과 정자각(丁字閣), 우측에 碑閣이 위치해 있다. 비각 안에는 左碑인 정조가 친히 어제(御製)한 현릉원비와, 右碑인 조선말 광무 4년(1900) “壯祖懿皇帝”로 추존한 뒤에 건립한 隆陵碑가 세워져 있다.⁸⁷⁾

능이나 원은 기본적으로 봉분을 조성하고 봉분 주변에 각종 석물을 장식하고 봉분앞에 정자각을 세우고 그 옆에는 비각을 두어 정자각 앞으로 수라간과 수복방을 세우고 그 앞쪽에 홍살문을 세워 능역의 경계를 이루며, 능역입구에는 재실을 두어 향을 보관하고 제사를 분비하는 장소로 쓴다. 이들 여러시설 가운데 현릉원 조성에는 정조와 관련해서 특별히 언급할 부분은 석물 조성문제와 정자각 등의 시설배치 문제이다. 이들 시설의 위치를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조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능원의 석물은 조선초기까지는 병풍석을 비롯한 여러 장식재들이 가미되었으나 세조때부터 장식을 간소하게 하라는 유지를 받들어 치장을 줄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17세기 중반 이후에 와서는 인조의 長陵을 마지막으로 왕릉에도 병풍석을 설치하지 않고 난간석만으로 봉분 주변을 감싸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그러 여건속에서 정조는 현릉원 조성에서 이전에 하지 않던 병풍석이나 와침상석(瓦簷裳石)을 설치하였다.

최종적으로 顯隆園에 설치하는 석물에 대해서 정조는 스스로 여러 선례들을 검토하고 나서 병풍석 이외의 석물은 한결같이 光陵의 제도를 따라서 혼유석 1좌, 장명등 1좌, 망주석 1쌍, 문무인석 각 1쌍, 양석, 마석, 호석 각 1쌍을 배열하도록 지시하였다.⁸⁸⁾

이처럼 隆陵의 경우 그동안 왕릉의 능역 조형물로 쓰이지 않았던 병풍석이나 와침상석을 설치한 것은 정조가 부친인 사도세자에 애착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하겠다.

87) 최홍규, 『전계서』, pp334-335

88) 김동욱·우희중, 「顯隆園의 입지선정과 원침계획에서 正祖의 역할」, 한국건축역사학회증 통권 60호, 2008, pp27-28, 『正祖實錄』, 卷28, 정조 13년 87월 己巳



<그림 20> 용릉 석상

4. 遷葬 關聯 主要 風水的 論議

1659년 효종이 승하하자 葬地 결정과정에서 장단(長湍)의 김영렬(金英烈), 교하(交河)의 윤반(尹礪), 광주(廣州)의 정난종(鄭蘭宗), 남양(南陽)의 홍언필(洪彦弼)·홍기영(洪耆英), 광주(廣州)의 이증(李增) 등의 묘산(墓山)과 양재역(良才驛) 뒷산, 한강 북변의 산, 왕십리 해동촌(海東村) 그리고 이충작(李忠綽)의 묘산과 정토(淨土) 근처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며, 예조판서 윤강이 수원의 호장(戶長) 집 뒷산이 용혈(龍穴) 사수(砂水)가 진선 진미하여 그야말로 천재 일우의 곳으로 다른 산과는 단연 비교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 하면서 수원의 화산이 길지로 부각하게 된다.⁸⁹⁾

1789. 7. 11 정조가 원침(園寢)의 형국이 열고 좁다고 여겨 즉위 초부터

89) 『顯宗實錄』, 卷1, 현종 즉위년 6월 甲辰

이장할 뜻을 가졌으나, 너무 신중한 나머지 세월만 끌어오던 차에 금성위(錦城尉)박명원(朴明源)이 상소하기를, 영우원은 첫째는 떠가 말라죽는 것이고, 둘째는 청룡(靑龍)이 뚫린 것이고, 셋째는 뒤를 받치고 있는 곳에 물결이 심하게 부딪치는 것이고, 넷째는 뒤쪽 낭떠러지의 석축(石築)이 천작(天作)이 아닌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것으로 볼 때 풍기(風氣)가 순하지 못하고 토성(土性)이 온전하지 못하고 地勢가 좋지 않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으며, 이 중에서 하나만 있어도 신민(臣民)들의 지극한 애통스러움이 되는데, 더구나 뱀 등속이 국내(局內) 가까운 곳에 또아리를 틀고 무리를 이루고 있으며 심지어 정자각(丁字閣) 기와에까지 그 틈새마다 서려 있으므로 局內에 이미 많이 있고 보면 지극히 존엄한 곳까지 침범하지 않았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냐는 주장함에 따라 영우원을 천장할 것을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정조는 “오직 수원(水原) 읍내에 봉표해 둔 세 곳 중에서 관가(官家) 뒤에 있는 한 곳만이 전인(前人)들의 명확하고 적실한 증언이 많았을 뿐더러 옥룡자(玉龍子)가 이른바 반룡농주(盤龍弄珠)의 형국이다. 그리고 연운·산운·본인의 명운이 꼭 들어맞지 않음이 없으니, 내가 하늘의 뜻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를 이름이다. 나라 안에 능이나 원(園)으로 쓰기 위해 봉표해 둔 것 중에서 세 곳이 가장 길지(吉地)라는 설이 예로부터 있어 왔는데, 한 곳은 홍제동(弘濟洞)으로 바로 지금의 영릉(寧陵)이 그것이고, 한 곳은 건원릉(健元陵) 오른쪽 등성으로 바로 지금의 원릉(元陵)이 그것이고, 한 곳은 수원읍(水原邑)에 있는 것이 그것이다.”라고 하면서 천장의 결심을 더욱더 확고하게 굳히게 된다.⁹⁰⁾

1789. 7.13 영의정 김익 등이 수원의 치표(置標)한 곳을 살펴보고서 지사(地師)들은 모두 지극히 길하고 모든 것이 완전하다. 화산(花山)이 왼쪽으로 돌아 건방(乾方)으로 떨어져서 주봉(主峯)이 되고 건방의 주산(主山)이 해방(亥方)으로 내려오다가 계방(癸方)으로 돌고 다시 축방(丑方)으로 뻗어오다가 간방(艮方)으로 바뀌면서 입수(入首)하였다. 앞에 쌍봉(雙峯)이 있는데 두 봉우리 사이가 공(空)이 되고, 안에 작은 돈(墩)이 있는데 그 형

90) 『正祖實錄』, 卷27, 정조 13년 7월 乙未

상이 마치 구슬 같다. 계좌 정향(癸坐丁向)으로 안장(安葬)하면 그 구슬은 턱밑의 구슬이라 할 수 있고 공은 빈 곳을 안대하는 공이라 할 수 있다. 오른쪽으로 건방에서 득수(得水)하고 왼쪽으로 을방에서 득수하며 또 신방(申方)의 물이 오방(午方)에서 파(破)하니, 수법(水法)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청룡 네 겹과 백호 네 겹이 에워싸 국세(局勢)가 만들어졌는데, 혈(穴)이 맺힌 곳이 마치 자리를 깔 것처럼 평퍼짐하니 혈자리가 분명하다. 뻗어온 용의 기세가 7백 리를 내려왔는데 용을 보호는 물이 모두 뒤에 모였으며, 현무(玄武)로 입수(入首)하였으니 천지와 함께 영원할 수 있는 더없는 대지(大地)라 하였다.⁹¹⁾

이후에도 정조는 김익과 좌의정 이성원(1725-1790), 우의정 채제공(1720-1799), 관상감 제조 김종수(1728-1799) 등에게 상지관을 대동하고 세차례나 화산을 살펴보게 하여 새로 정한 곳에 대한 신료들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⁹²⁾

正祖가 思悼世子の 능지로 지정한 원침에 대한 점괘를 알아보는데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산수의 性情은 온전히 만두(饅頭)에 있는 바, 금성의 만두로부터 아래로 18자에 이르기까지 왼쪽도 18자이고, 오른쪽도 18자이니 모두 합하면 36자입니다. 왼쪽에서 13자를 제하고 오른쪽에서 9자를 제하면 유두(乳頭)가 영기고 간방의 기운이 아래로 늘어져 구슬의 정기가 턱 아래에서 정방으로 매달려 치우치지도 않고 기울지도 않으며 급하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으니 이는 실제 정혈의 이치입니다. 또 36은 天度에 응하고 18은 地支에 응하여 천지의 배합과 일월의 서로 비춤과 星辰이 정기를 모아 龍氣가 子水로 관통하는데, 子는 바로 9의 수치이며 9는 양의 극치여서 밖으로 나타나니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9개월 안에 자손의 조짐이 있을 것인 바, 나라의 큰 경사입니다.⁹³⁾

正祖 효의왕후를 비롯하여 5명의 부인에게서 2남 2녀의 자식을 두었으며, 의빈성씨로부터 문효세자를 낳았으나 5세때 요절하였고, 수빈박씨로부터

91) 『正祖實錄』, 卷27, 정조 13년 7월 丁酉

92) 정해득, 『전계서』, p43

93) 『弘齋全書』, 卷 57

터 1남 1녀를 두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1800년 11세의 나이로 조선 제23대 왕위에 오른 순조이다. 수원 화산으로 천원을 한 후 9개월만에 자손을 두리라는 점괘가 그대로 적중하였다. 순조는 遷葬를 하고 난 이듬해 태어났기 때문에 수원 화산이 왕의 후사를 이어줄 원자를 탄생케 한 명당이라는 풍수 발복설이 부각될 수 밖에 없었다. 정조 역시 흥지에 있던 사도세자를 명당에 모심으로써 풍수적 발복이 일어난 결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림 21> 용릉과 정자각

제 3 절 隆陵의 風水地理的 分析

1. 祖宗山の 來歷

隆陵은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산1-1번지에 소재하며 『신 산경표』⁹⁴⁾ 분류상 한남정맥 서봉지맥에 해당된다. 元祖인 白頭山으로부터 출발하여 한반도의 중심 뼈대를 이룬 백두대간은 속리산(1058m)에서 호서정맥⁹⁵⁾을 출맥하였고, 이 정맥은 안성의 칠장산(492m)에서 한남정맥으로 분기한다.

94) 박성태, 『신상경표』, 조선매거진(주), 2010

95) 호서정맥은 山徑表의 한남금북정맥과 금북정맥을 통합한 것임

한남정맥은 한강 이남의 서울, 경기남부, 인천지역의 산줄기를 형성하고 있으며, 칠장산에서부터 북서진 하면서 국사봉(434m)을 거쳐 문수봉(403)으로 기봉하고, 북서진을 계속 하며 수원, 용인 지역의 광고산(582m), 백운산(566m)을 거쳐 큰 과협을 형성하면서 지지대고개를 통과하여 안양, 군포지역의 오봉산(210m)으로 이어지고 수리산(489m)에서 높이 기봉하였다. 그리고, 인천지역의 성주산(216)을 지나 거침없이 달려가다가 서해 바다의 물을 만나면서 문수산(376m)에서 대장정을 마친다.

서봉지맥은 한남정맥의 오봉산으로부터 남쪽으로 분기하여 구봉산(145m), 칠보산(238m), 무성산(114m)을 거쳐 계속 남진하면서 평택 안성천을 만나 계두봉(44m)에서 진행을 멈춘다. 서봉지맥이 내려오면서 고금산(87m)에 이르러 다시 동쪽으로 분기하여 화산(109m)을 지나 성황산(136m)에 이르러 앞의 황구지천을 만나면서 전진을 멈추게 되는데 바로 화산의 지룡에 隆健陵이 입지해 있으며, 성황산의 지룡에는 隆健陵의 원찰인 용주사가 입지해 있다.

따라서 隆陵이 소재한 花山은 白頭山에서부터 출발한 용이 백두대간, 호서정맥, 한남정맥, 서봉지맥을 타고 단절됨이 없이 달려오다가 물을 만나면서 전진을 멈추고 지기를 응집한 곳이다. 조종산을 살펴보면 광고산이 태조산, 오봉산이 중조산, 칠보산이 소조산, 화산이 주산으로서 백두대간의 정기가 힘차게 흘러들어와 氣가 응집될 수 있는 터이다.

『弘齋全書』에서 화산의 내룡에 대하여 논하기를, “光敎山이 龍仁, 廣州, 水原 세 고을의 경계에 걸터앉아 있어서 한강 남쪽 여러 산의 腦가 되고, 分脈의 祖宗山이 되며, 오른쪽으로 떨어져 나간 것이 淸溪山, 冠岳山 등이 되어 한강 남쪽 여러 능침의 땅을 만들었다. 그리고 가운데로 떨어진 맥이 白雲山이 되어 「미륵당 고개」⁹⁶⁾에 이르러 낮아졌다가 다시 솟아 五峰山이 되고, 微脈으로 뻗은 내룡이 다시 솟아 修理嶽이 되며, 곧 한강 서쪽의 安仁山, 金富山 등 여러 산의 祖宗山이 된다. 왼쪽으로 떨어져 나간 것은 증악산(甌岳山)이 되는데, 증악산은 들 가운데 우뚝 솟아 水星의 體가 되어 마치 소용돌이 치면서 흐르는 물결 같기도 하고 곧은 줄기와 당

96) 지지대(遲遲臺) 고개를 말함

기는 맥이 흑 솟기도 하고 흑 옆드리기도 하여 鼓琴山이 되고, 洪範山이 되어 수십리의 行龍이 몸을 뒤틀며 몸을 거슬러 올라가 수원부의 뒷산에 솟아 형국의 本身이 되었으며, 내룡의 外白虎가 되어 청룡과 백호가 삼중으로 얹히고, 本龍이 여러갈래로 나누어 퍼져 사방으로 둘러 호위하며, 두 손을 마주잡고 읊(揖)하는 듯하여 朝山과 案山이 되었으니, 광교산이 태조산이 되고 오봉산이 중조산이되며 증악산이 소조산이 되어 참으로 100여리에 전일한 기운이 결집되어 만들어진 곳이다.”라고 하였다.⁹⁷⁾

『弘齋全書』에 이름난 地師들이 산릉을 답사하고 평하기를, 홍여박은 “수원부의 뒷산은 처음에 光敎山, 치악산(鷗岳山)으로부터 흩어지고 떨어져 나가 平板을 이루며 장막에 드나들 듯 큰 들 가운데를 빙 두르고 구불구불 돌아 다시 활기를 띠고 돌면서 굽이굽이 용을 이루었는데...”, 박세육은 “용이 광교산에서 나뉘어 치악산에 이르러 장막을 열고 용맥이 출현하여 구불구불 내려오다가 넓은 들가운데서 서렸다가 몸을 뒤틀어 남쪽을 향함에 주산의 세가 웅장하고...”, 반호의는 “그 내려온 맥이 멀어 모두 기록할 수 없지만 우뚝 솟은 星峯이 웅장하게 서려 祖山을 이룬 것은 바로 용인의 石城山이다. 이 산이 바뀌고 변하여 계곡을 지나 또 光敎山이 생기고, 그 북쪽을 달려간 것은 冠岳山과 三角山의 應龍이 되었으며, 서쪽으로 달려간 것은 鷗岳山이 되었으니 이것이 혈의 가까운 祖山이 된다.“, 기운중은 “來龍이 光敎山을 祖山으로 하여 사근현(沙斤峴)의 큰 계곡을 지나 장막을 열고 중심을 뚫은 듯 용절마다 법에 합치되고 星峰이 우뚝 솟아 鷗岳山이 되었으며...“, 이원진은 “수원부의 큰 용은 光敎山으로 祖山을 삼아 沙斤峴을 지나 廣州部曲에 이르러 크게 퇴사(退卸)를 끊고 星峰을 일으켜 修理嶽을 나누어 보낸 뒤에 연하고 아름다운 맥이 구불구불 남쪽으로 내려와 鷗岳山을 이루며....“, 이유필은 “용이 光敎山에서 출발하여 누전(樓殿)을 내려와서 큰 들 가운데에 서렸는데 흑 장막을 열려 계곡을 지나기도 하고 흑 나는 나비에 갈대 채찍을 가하는 격이 되기도 하고며, 흑 金星, 水星의 봉우리가 되어 30여리를 날아 또 높고 큰 봉우리를 이루어 鷗岳山이 되었는데...“, 김극만은 “형세가 완전하고 아름다우며 내당의 국

97) 『弘齋全書』, 卷 57

세가 평정하고 龍穴砂水가 법도에 맞지 않음이 없으니 이것은 이른바 眞龍의 대지이다. 대체로 光教山이 우뚝 솟아 원조가 되고 꾸불꾸불 뻗어 수 삼십여 리를 지나면서 起伏을 하다가 鷗岳山에 이르러 갑자기 駐蹕山이 되고...“, 윤홍경은 ”光教山의 바른 줄기가 북으로 가다가 서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다가 남쪽으로 가서 수백리의 羅城을 만들고 다시 돌고 기복하는 사이에 맥이 허리로부터 떨어졌으니, 鷗岳山이 바로 가까운 조산이 된다.“고 하였다.⁹⁸⁾

이처럼 여러 地師들의 花山에 대한 풍수평에서 혈이 맺힐 수 있는 길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鷗岳山이라는 산의 명칭이 계속 거론되고 있고 치악산이 거론될 때는 증악산이라는 명칭이 중복하여 거론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치악산과 증악산은 같은 산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수원시청 홈페이지 지명의 유래에서 살펴보면 칠보산은 “진악산” 또는 “치악산”등으로 불려 졌다고 한다. 따라서 치악산이 칠보산이 되고, 증악산 역시 칠보산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증악산(甌岳山)이라는 지명이 현재의 지도나 『신 산경표』에 표기되어 있지 않아 여러 자료를 찾아봐도 직접적으로 증악산이 어떤 산인지 나타 있지 않지만 현재의 칠보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칠보산은 해발 239m로 중조산인 오봉산으로부터 화산에 이르는 산줄기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높은 봉우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2. 來龍의 地氣

『弘齋全書』를 통하여 본 正祖의 來龍과 穴에 대한 풍수적 평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京畿 水原府의 治所는 서울과의 거리는 90리 이고, 治所의 북쪽 산을 花山이다. 花山의 위쪽으로 뻗은 용이 乙方으로 앞드렸다가 乾方에서 봉우리가 솟고, 다시 癸方으로 오면서 丑方으로 내려가서 艮方에서 入首 癸坐丁

98) 『弘齋全書』, 卷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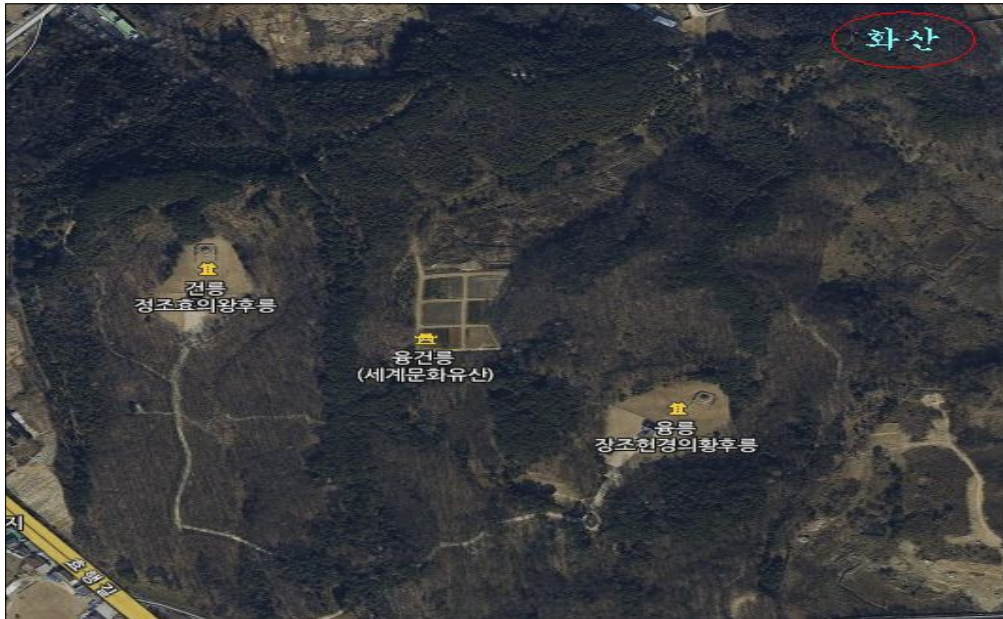
向하면 丙子.丙午의 分金이 되고 乾方, 乙方, 申方에서 得水에 午方 破門의 형국이 된다. 坎方의 봉우리가 腦가 되어 참된 氣脈이 은은히 내려오다가 丑方에서 艮方으로 휘어 艮方에서 入首하고,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안은 것이 은연중 활이 굽은 듯하면서 乳房의 모양이 되고, 乳房 아래에는 평면의 작은 움집이 열린 듯이 태극의 둥근 모양을 하고 남은 기운이 穴의 입술이되니, 이는 이른 바, 陽이오면 陰이 받아 조화를 이룬다.

아울러 穴의 大小를 논함에 있어서도 “유택은 천리를 뺀 용의 眞脈을 접해야 하고 주변 砂水の 吉氣를 거두어 한자리에 穴口를 집중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다만 형국이 만들어진 勢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만을 보아야 하고 형태의 대소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고 하였다.⁹⁹⁾

실제 답사결과 開帳穿心으로 화산에서 출맥한 용은 서진하면서 내려오다 남서방향으로 몸을 돌려 전진하며 과협을 만들고 나서 起峰하여 2갈래로 분기하게 되는데 하나는 남쪽으로 뻗어나간 용릉의 주룡이며, 다른 하나는 서쪽으로 뻗어나간 건릉의 주룡이 된다.

隆陵과 健陵의 용맥이 분기하는 지점에서부터 남진하는 내룡을 낳았으며, 내룡은 상하기복 좌우요동 하면서 활달한 기세로 내려오다 동쪽으로 몸을 돌리며 전진하는 도중 남쪽 방향으로 하나의 용맥을 분기시켜 내려온다. 용릉 가까이에 이르러 玄武頂으로 솟아났다. 현무정에서 癸丑龍으로 약간 경사를 이루며 급히 내려오다 오른쪽으로 힘차게 휘감으면서 艮寅龍으로 혈장에 입수하게 된다. 形氣論으로 보아서는 주산에서부터 내룡을 따라 樹木이 무성하여 박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혈장을 이룬 입수맥은 넓고 후덕하면서 완만한 위이 굴곡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12용격상 旺龍인 생룡으로 분류될 수 있다. 理氣論으로 살펴보면 파구는 丁未破로서 목국이며, 목국의 艮寅龍은 沐浴龍인 凶龍에 해당된다.

99) 『弘齋全書』, 卷 57,



<그림 22> 용건릉 위성사진(출처:네이버)

3. 四神砂의 局勢

좌우의 청룡과 백호가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게 쌍산을 이루고 相對를 이루어 산의 입구를 열어 줌이 法數에 맞고 서로 사양함이 법도에 맞아 內堂에서 물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니, 이것이 청룡과 백호안의 또 기묘하게 숨겨진 穴의 格正이 있는 것이다. 곧 혈맥이 坎方 腦의 왼쪽으로부터 능선을 타고 내려오면서 미미하게 활처럼 돌아 오른쪽을 향하여 窩形을 만들었다. 때문에 坎腦의 오른쪽에는 작은 砂가 있어 왼쪽을 향하여 내려오다가 혈의 입구에 와서 그쳤으니, 얼핏 보면 몸을 감싸 주는 砂가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없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좌맥의 능선과 오른쪽 작은 砂의 은연중 對待를 이루어 진실로 면밀하게 조화를 이루는 신묘한 곳이다. 제2의 청룡과 백호 밖에 또 외청룡이 朝山과 案山 등 여러산들과 함께 3중으로 겹쳐있고, 기타 장막의 뒤에서 보필해 주는 산과 품속에서 안산을 대하는 것과 遠近과 高低의 吉砂는 이루 다 열거할 수 없다. 또 가장 좋은 격은 山城의 용이 조종산 낙맥으로부터 길을 나누어 水口와 긴밀하게 지키며 穴을 돌아보는데 산허리 이상의 봉우리는 특이하여 긴 능선의 용과

합하여 보면 큰 力量을 징험할 수 있다고 正祖는 來龍과 穴에 대한 풍수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¹⁰⁰⁾

실제 隆陵의 터는 花山이 生氣 충만한 주산으로서 혈장에 부는 뒷 바람을 막아주고 있다. 화산으로부터 뻗어내려온 지맥이 용릉 좌측을 감싼 청룡이 되고, 우측으로 뻗어내려간 지맥은 용릉 우측을 보호하는 靑龍이 된다. 그 형태가 주산에서 맥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本身靑龍, 本身白虎되며, 외청룡, 외백호가 겹겹이 감싸고 있어 장풍이 잘 되고 있다. 청룡과 백호 등의 산세가 배신하는 곳이 없어 장풍도 양호하고 생기가 뭉쳐 혈을 맺을 수 있는 四神砂가 모두 잘 갖추어져 있다. 우백호의 경우 청룡보다 상대적으로 빈약하나 내백호 너머의 외백호가 겹겹이 겹쳐있어 결함을 보완해 주고 있다. 내백호 내려올수록 거의 평지에 가까울을 정도로 낮게 형성되어 있으며, 좌청룡 역시 끝으로 갈 수록 밋밋하게 내려온다. “청룡과 백호의 전체적인 형상은 소의 뿔과 같이 위가 두껍고 아래가 가늘어야 하며, 끝이 역으로 두껍거나 바깥으로 휘어지면 逆山이 되어 좋지 않다”¹⁰¹⁾고 한바, 용릉의 청룡과 백호는 끝으로 갈수록 마치 용암이나 묽은 액체가 흘러내리 듯이 낮게 퍼져 있다. 坤方에는 土星형태의 안산이 있어 살풍을 막아주고 있으며, 그 너머로 조산이 용릉의 혈처에 조응을 하고 있어 四神砂의 국세를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1659년 5월 4일 효종이 승하하자 효종의 능지를 선정하는데 있어 현종은 수원 화산으로 마음을 굳혔으나 송시열 등 신하들이 반대로 수원 화산 지역이 철회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호군 이상진이 상소에 수원 화산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풍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수원 산은 행룡(行龍)이나 바닥의 혈이 느릿느릿하고 흐리터분하여 조금도 청수하거나 존귀한 기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세(局勢)마저 평평하고 낮아 아늑하고 야무진 곳이라고는 없는데, 거기가 어떻게 대장(大葬)자리가 될 것입니까. 서울에서 백 리 안쪽에도 틀림없이 고를 만한 곳이 있을 것이니 바라건대 날짜를 조금 늦추고 널리 묻고 찾아, 대사에 있어 미진한 염려가 없도록 하소서.”하니, 상이 답하기를, “상소 내용을 보니 지

100) 『弘齋全書』, 卷 57,

101) 안종선, 『전계서』, P272

성에서 나온 말이다. 내 마땅히 유념하리라.”하였다.¹⁰²⁾ 여기서도 내용이 완만하고 국세가 평평하다는 평을 내리고 있다.



<그림 23> 용릉과 안산

4. 水勢와 坐向

수세는 乾方에서 오는 물은 貪狼水가 되고 乙方에서 오는 물은 武曲水에 해당되니, 또 先天과 後天이 서로 만나는 격이 된다. 신방에서 오는 물은 生方水가 되고 또 催官水가 되니, 午方의 破門은 수화불상식(水火不相射)의 격이 되고, 외수는 丙方으로 돌아가 坤方에 못이 있으니 律呂相生하는 격이 된다. 내당은 둥글고 평평하며, 외당은 가로로 굽어 있으며, 天關은 닫고 地軸은 들리는 격이고 局內의 물이 연모하는 뜻이 있고 용을 따를 물이 외당의 밖에서 서로 합하니 참으로 물 가운데의 용이다.¹⁰³⁾라고 풍수적 평가를 하고 있다.

隆陵의 坐向은 계좌정향으로 입향되어 있다. 隆陵에 영향을 미치는 보국의 안의 水는 乾方에서 得水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흐르고 즉 右水到左

102) 『顯宗實錄』, 卷1, 현종 즉위년 6월 己酉

103) 『弘齋全書』, 卷 57,

하여 丁破로 거수된다. 내당 우선수에 외당까지 우선수라 자연순행이 된다. 청룡과 백호 등의 四神砂는 四神砂 밖에서 혈장으로 부는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하지만 보국내에서 생긴 바람을 막지 못하므로 물의 흐름이 자연순행이 되지 않고 自然黃泉이 될 경우 장풍이 취약하게 되어 생기를 온전하게 보전하지 못한다. 곤신방향에 곤신지라는 연못이 있다. 坤申池는 용릉이 천장된 이듬해(1790년)에 조성되었다.



<그림 24> 곤신지

5. 綜合分析

『弘齋全書』에서 正祖는 隆陵의 立地에 대하여 新羅國師 玉龍子 道詵이 이른바 “서린 용이 구슬을 희롱하는 형국(盤龍弄珠之形)이고 參議 尹善道가 이른바 “龍과 穴과 砂와 水가 모두 좋고 아름답다”는 것이니, 진실로 천리를 가도 없을 千載一遇의 吉地이다.”라고 종합적인 풍수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문헌상에 나타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용릉은 坐向이 癸坐丁向이며, 午破를 水口로 하는 지점에 穴處를 정하였으며, 來龍은 艮方에서 입수하였

고, 乾方, 乙方에서 득수하고 있다. 그리고 물의 흐르는 방향은 內堂 右水 左到 즉 右旋水이며 外堂 역시 右旋水이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地理五訣』에 의거 용릉의 풍수적 길흉을 판단할 수 있다. 먼저 88향법상의 向이 제대로 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 88向法은 물을 기준으로 向을 정하는 依水立向이 원칙이므로 水口가 午破가 되면 水局의 胎破가 된다. 내당수와 외당수의 흐름이 서로 같으므로 自然順行을 하고 있어 내룡에 물이 차지도 않고 바람도 들이치지 않아 藏風은 잘되고 있다. 水局의 胎向 右旋水이면 88향법에서는 胎向胎流 또는 胎向胎破라 하여 12포태법상 자기局의 胎向으로 立向을 하면 된다. 그러나 胎向胎流라 하더라도 天干子로 破口되는 경우만 立向이 가능하므로 水口가 午破인 경우 88向法上에 맞지 않다.

내룡의 지기는 艮龍이 입수되었고 水局이므로 12포태법상 胎龍에 해당되어 이기적으로는 吉龍이 되지 못한다. 水法을 살펴보면 向上 丁向이다.

『지리오결』에서는 癸坐丁向 丑坐未向이 될 경우 水가 丙午方으로 나가니 向上的 祿位 (丁祿은 午)를 충파하는 것으로 小黃泉이 된다. 궁궐하고 요수하며 과부가 난다. 이 黃泉墓는 무수히 구묘를 경험해 보아도 흑간 壽를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였지만 여러 형제가 많아도 결국은 꺾사하고 곤궁하여 부자는 없더라. 未字上을 침범하고 創刀와 惡石이 있으면 횡폭하여 투쟁을 좋아하는 자손이 난다고 평가하고 있다.¹⁰⁴⁾

실측한 결과 坐向은 사료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계좌정향이며, 水口는 午파가 아니라 丁破이다. 內堂 右旋水이고 丁破는 木局의 墓破이다. 우선한 물이 정방으로 빠지는 목국의 우선수 묘파에서는 입수룡이 간인룡이면 12포태상 목욕룡으로 혈을 맺지 못한다. 88향법상으로는 목국의 우선수 묘파는 정생향인 건해향을 놓아야 한다. 건해향을 놓게 되면 당국의 형세상 내룡의 진행방향과 좌향이 逆向이 되어 입향이 곤란하므로 이럴 경우 다른 향을 하나 선택하여야 하는데 건해향 대신 목국의 절방이고 수국의 정생향인 곤신향으로 입향을 하게 된다. 곤신은 목국의 절처라서 절처봉생향이라고도 하며, 他局의 正庫를 빌려 파구되므로 借庫消水 또는 스스로

104) 조정동, 『地理五訣』, 신평 역, 동학사, 2009, p311

남의 正庫를 빌려 생향을 만들었다 하여 자생향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음릉은 계좌정향을 함으로써 물이 빠져 나가는 破口방향으로 입향을 하여 88향법에 맞지 않다.

우수가 왼쪽으로 흘러 향의 丁字로 나가면 絶水가 倒沖墓庫(絶方水가 墓庫 나감)하는 것이다. 書에 이르는 ‘丁庚坤上是黃泉(살인대황천)이 여기에 해당된다. 右旋水 丁未破 丁未向이 되면 목국의 倒沖墓庫가 된다. 절태수 즉 경유방의 태수와 곤신방의 절수가 향 앞에 이르게 되므로 아이를 생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아이를 가지면 죽고 休囚인가 되니 後嗣가 끊어진다고 했다. 사람은 상하고 재물은 敗하며 大凶하여 그 禍가 속하리라. 혹시 용혈이 쓸수 있다면 향을 乾坤艮巽으로 한다면 자생향 차고소수에 합당하여 진다. 이름하여 旺去迎生이니 부귀를 기약할 수 있으리라.고 하였다.¹⁰⁵⁾

隆陵의 경우 風水地理의 形氣的 요건인 龍穴砂水を 잘 갖추고 있는 吉地에 해당된다. 理氣論上로는 沐浴龍으로 진룡이 될 수 없고 향법에도 맞지 않는다. 88向法에 의하면 坤申向으로 입향하여야 한다. 坤申向으로 입향을 하게 되면 곤신향은 수국의 생향으로 변하여 곤신의 절수는 장생수로 되고, 경유의 태수는 귀인수가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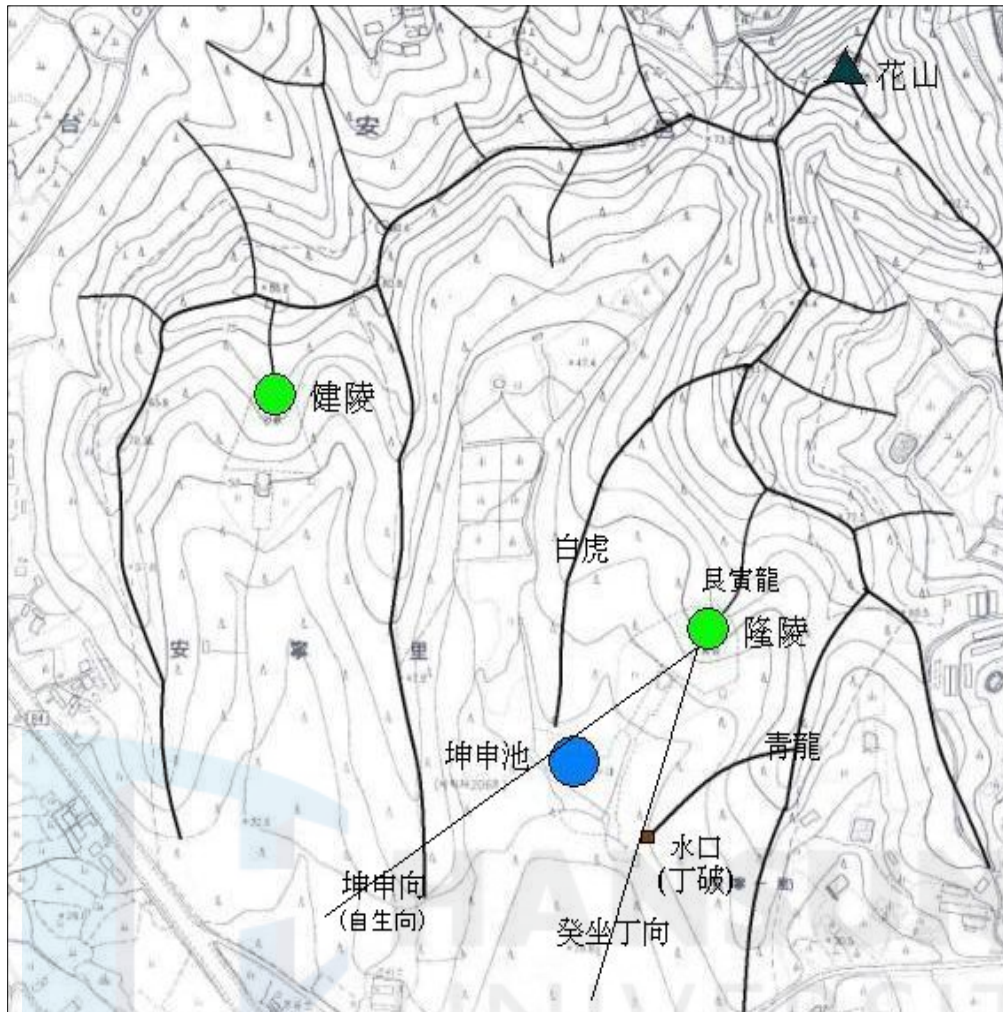
간좌곤향, 인좌신향일 경우 우수가 좌로 흘러 丁未方으로 나가면 借庫消水하여 자생향이며, 양공(楊公) 구비(救貧)의 進神水法이다. 목국의 養位를 충족한다고 논하지 않으며 부귀하고 장수하며 人丁(人材)가 대왕하고 차남이 발복한다.¹⁰⁶⁾

四局의 正庫에서 파구되고 正局 12포태로는 절향인데 향상작국을 하여 향상 생향을 자생향이라 한다. 본국으로 따지면 타국의 正庫를 빌려 파구되므로 借庫消水라고도 하며, 스스로 남의 정고를 빌려 생향을 만들었다 하여 자생향이라고 부른다. 정국으로는 절향이지만 향상으로는 생향이므로 絶處逢生이란 용어를 쓴다. 龍眞穴의에 자생향이면 朝貧夕富에 富貴旺丁이라 하여 매우 길한 향이다.¹⁰⁷⁾

105) 조정동, 『전계서』, p228, 313

106) 『상계서』, p316

107) 안종선, 『전계서』, pp518-519



<그림 25> 용릉의 용맥도

제 4 절 正祖와 健陵의 造成

1. 健陵과 正祖의 生涯

健陵은 조선 제22대 正祖와 왕비 孝懿王后(1753-1821)를 합장한 능이다. 용릉과 함께 사적 206호로 지정된 건릉은 현재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 산1의1 용릉의 서쪽 언덕에 위치해 있다. 正祖(1752-1800)는 사도세자와 혜경

궁 홍씨의 둘째 아들로 영조 28년(1752) 9월 22일 창경궁 景春殿에서 태어났다. 이름은 산(禔), 자는 형운(亨運), 호는 홍재(弘齋). 만천명월주인옹(萬川明月主人翁)이다. 8세때인 영조 35년에 왕세손에 책봉되고, 11세때인 영조 38년 생부 사도세자가 원사(怨死)한뒤 백부인 孝章世子(眞宗 추존)의 후사가 되었다. 영조 51년(1775) 대리청정을 맡았다가 이듬해 영조가 승하하자 3월 10일 경희궁 崇政門에서 즉위하였다.

즉위 후 정조는 왕권을 위협하는 환척(宦戚)과 노론 벽파 일당을 숙청하면서 영조의 蕩平策을 계승 발전시켰다. 그는 서실에 “蕩蕩平平室”이란 편액을 걸고 殿壁에 “정구팔황(庭衢八荒)¹⁰⁸⁾”의 넉자를 크게 써 붙일 만큼 후기사회에 이르러 격화된 붕비와 폐습을 조정.보합하고 민본적인 혁신정치를 펴려고 하였다. 규장각과 초계문신제(抄啓文臣制)¹⁰⁹⁾의 운영, 5군영의 일대개혁과 장용영의 강화, 숙종 이후 실각했던 남인과 소론의 등용, 서북인과 서얼 출신 인재의 등용, 활자의 개량과 많은 서적을 편찬하는 등 왕조 중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각종 제도의 개혁에도 힘쓰고 實事求是와 利用厚生을 목표로 하는 실학을 크게 발전시킴으로써 조선후기의 문화적 황금시대를 이룩하였다. 저술로는 정조의 시문과 운음, 교지 및 기타 편지를 망라한 184권 100책의 방대한 문집 『弘齋全書』를 남겼다. 효성 또한 지극하여 생부 장헌세자의 묘를 수원 화산으로 이장하여 정조 13년에서 24년까지 11년 동안 13차례나 현릉원에 원행하였다. 好學崇文과 문무겸전의 계몽군주이자 학자군주였던 그는 일생동안 추구하던 개혁왕정이 열매를 맺기도 전에 1800년 6월 28일 49세 일기로 창경궁 영춘헌(迎春軒)에서 서거하였다. 시호는 文成武烈聖仁莊孝라 했도 처음 묘호는 正宗, 전호는 孝元 그리고 능호는 건릉이라고 하였다. 1800년 11월 생부가 묻혀 있는 현릉원 동쪽 둘째 산등성이에 해당되는 亥坐之原에 장사를 지냈다.

그로부터 22년 후인 순조 21년(1821) 3월 9일에 황비 효의왕후가 홍서하

108) 변방도 뜰처럼 가까이 하고 오랑캐도 한 집안처럼 본다는 뜻으로 당색이나 빈부귀천 없이 인재를 구하려는 정조의 의지가 담긴 문구이다. (공준원, 『오궁과 도성』, 세계문예, 2009, p224)

109) 초계문신은 조선후기 규장각에서 특별교육과 연구과정을 밟던 문신을 칭하는 용어임(네이버 백과사전)

자 先陵부근에다 자리를 정하려고 하였으나 영돈녕부사 김조순이 상소하여 현재의 능침에 대한 풍수지리상 우려 점을 소상히 말하고 吉土를 새로 고를 것을 청하였다. 대신들과 예관들이 능묘자리를 물색한 끝에 현릉원 우측(서쪽) 산등성이 子坐의 언덕으로 옮겨 왕후와 同陵異室로 합장하였으며, 능호는 옛 이름 그대로 건릉이라고 하였다.

효의왕후 김씨는 영조 29년(1753) 12월 13일 淸原府院君 좌참찬 김시묵과 남양 홍씨의 딸로 서울 嘉會坊에서 태어나 9세때 간선(揀選)에 응하였다가 10세 되던 2월에 세자빈에 책봉되고 1776년 3월 왕비가 되었다. 한편, 정조는 광무 3년(1899) 고종이 황제에 오른 뒤에 正祖宣皇帝로, 왕후 역시 孝懿宣皇后후로 추존되었다.¹¹⁰⁾

2. 健陵의 墓域 造成

健陵은 正祖의 사후에 처음 능묘를 섰던 顯隆園 동쪽 亥坐之原에서 22년뒤 효의왕후의 능을 쓸 때 서쪽 子坐之原으로 이장, 정조와 그 왕후를 이장한 同陵異室의 능호임을 알 수 있다. 健陵에는 隆陵과 같이 병풍석이 둘러지지 않고 欄干石만 둘러진 것이 다를 뿐 그 밖의 모든 象設은 융릉의 예를 따랐다. 그리하여 合祔陵설이지만 魂遊石 1좌만 설치했고, 융릉식의 長明燈을 두고 있다.

健陵은 隆陵에 비해 묘제와 석물의 조각수법이 뒤떨어진다는 후세의 평가도 있다. 그러나 健陵은 隆陵과 함께 정조시대에 난숙했던 문운융성의 기운과 양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19세기의 왕릉 석물제도의 새로운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¹¹¹⁾

정조는 1789년 顯隆園을 천봉한 후 매년 1차례 이상 원행하여 친제를 올리겠다는 다짐을 하였고, 그대로 실천에 옮겼다. 총 13번의 현릉원 원행은 대부분 1월에 진행되었고, 1795년에는 윤2월, 1799년은 8월에도 다녀갔다. 정조는 원행 때마다 현릉원의 화소를 직접 답사하며 세심하게 살피보았다. 정조가 현릉원의 화소 안을 직접 돌아보면서 주의깊게 살피본 것은

110) 최홍규, 『상계서』, pp338-341

111) 최홍규, 『상계서』, pp342-343

첫째, 顯隆園의 풍수적 보완을 위한 것이며, 둘째, 顯隆園 천봉에 따라 옛 수원부 읍치부근에 살던 사람들은 화소가 설정되면서 급격한 변화를 맞았기 때문에 그들의 민원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정조 자신의 능침을 화산 주변에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직접 선정해두기 위한 것이었다. <그림 22>는 건릉지 능원침내금양전도를 보면 모두 5개의 혈자리가 표시되어 있다. 원침(용릉자리)과 능침(현재의 건릉자리), 구능기(舊陵基, 첫 번째 건릉자리) 3곳과 용주사 뒤 봉표처, 구교기(舊校基) 봉표처 등이다.¹¹²⁾



<그림 26> 건릉지 능원침내금양전도

112) 정해득, 『정조시대 현릉원 구성과 수원』, 신구문화사, 2009,

3. 陵地 決定의 風水의 論議

1800. 7. 13 총호사 이시수(李時秀), 우의정 서용보(徐龍輔), 광은 부위(光恩副尉)김기성(金箕性), 산릉 당상(山陵堂上) 서유린(徐有隣)·김문순(金文淳), 예조 판서 이만수(李晩秀), 관상감 제조 윤행임(尹行恔) 등이 장계(狀啓)하기를, 현릉원(顯隆園) 국내(局內) 강무당(講武堂)에 산릉(山陵)을 새로 점유할 곳으로 달려가서 주봉(圭峯)에서부터 혈처(穴處)에 이르기까지 다시 상세히 간심(看審)하고, 또 안산(案山)과 용호(龍虎) 등 여러 곳을 두루 살펴보았는데, 여러 지사(地師)들이 모두 더없이 좋고 아름답다고 했다. 비록 신 등의 범안(凡眼)에도 또한 완전한 대길지(大吉地)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끝없는 경행(慶幸)스러움을 견딜 수가 없었으며 다시 여러 지사들과 함께 쇠를 놓고서 혈(穴)을 찾아 보니 모두들 해좌(亥坐)에 사향(巳向)이 정혈(正穴)이 된다고 했다. 신 등은 우선 산릉으로 정한다는 하교를 기다려 전례에 의거해서 봉표(封標)하겠습니다.”하였다.¹¹³⁾

1800. 7. 15 산릉(山陵)을 다시 간심(看審)한 총호사 이시수(李時秀) 등은 “산릉의 대길지(大吉地)를 원소(園所)에서 지극히 가까운 곳에 완정(完定)하고 이제 이미 봉표(封標)했고, 여러 지사(地師)들도 같은 소리로 칭예(稱譽)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며 비록 신 등의 범안(凡眼)으로 보아도 심분흡족하고 좋았다고” 했으며, 광은 부위(光恩副尉)는 김기성은 “소신(小臣)은 본디 풍수(風水)에 대해서는 어둡습니다만, 범안(凡眼)으로 보기에다 사방의 산이 고리처럼 감싸 안고 가기(佳氣)가 모여 있어 참으로 국릉(國陵)의 체격(體格)을 갖추고 있어 망극한 가운데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라고 하였다.¹¹⁴⁾

1821. 3. 9(순조 21년) 효의왕후가 昇遐하자 영돈녕 김조순(金祖淳)이 건릉에 나아가 신릉(新陵)을 합장하는 것이 적당한지의 여부를 살펴보고 왕릉의 흉당설을 제기하게 되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¹⁵⁾

건릉(健陵)의 자리가 대단히 근심스럽고 두려워서 천만년의 계획이 될

113) 『純祖實錄』, 卷1, 순조 즉위년 7월 癸巳

114) 『純祖實錄』, 卷1, 순조 즉위년 7월 乙未

115) 『純祖實錄』, 卷23, 순조 21년 3월 壬申

수 없는 단서가 매우 많다. 산기슭이 약하여 웅장하게 꿈틀거리는 것이 없으니 주세의 강약은 논할 것조차도 없고, 묘역이 높은 것은 오로지 보충해 쌓은 것이므로 질고 습하여 사철 내내 마르지 않으니 수토의 깊고 얕음은 논할 것조차도 없고, 가로로 떨어진 줄기가 도움이 없이 고단하게 내려가 오른쪽은 닿아서 높고 왼쪽은 기울어져서 폭 꺼졌으니 혈도의 바르고 치우침은 논할 것 조차도 없고, 좌청룡(左靑龍)과 우백호(右白虎)가 갖추어지지 않고 안산(案山)이 참되지 않는가 하면, 독성(禿城)이 높이 솟아서 바위가 쫘긋쫘긋 서 있고 넓은 들판이 바로 연하고 큰 시내가 바로 흘러 달아나니 역량의 온전하고 온전하지 않는 것은 논할 것조차도 없다.

그리고 풍수가(風水家)가 떠들어대는 말과 민간에서 수군거리는 이야기는 더욱 이루 다 말할 수 없어서, 듣고 싶지도 않다. 이는 온 나라 사람들의 동감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감히 앞서 대뜸 진달하지 못하였던 것은, 진실로 이 일이 지극히 공경하고 지극히 삼가야 하며 더할 수 없이 중대한 일이어서 잠깐 사이에 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성상께서 독단적으로 그 즉시 거행하실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픔을 머금고 원통함을 품었으나 굳게 참고 입을 닫은 지 20여 년이 되어 간다.

세상에 모르는 사람은 혹시 이는 선대왕께서 정하신 땅이라고 의심할 것이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수원부(水原府)에 사는 어떤 풍수가가 말한 것으로서, 이른바 옛 군기고(軍器庫)의 터라고 했다. 그런데 승하하신 초기에 간사한 사람이 마음대로 하여 갑자기 유명(遺命)이라고 하면서 능 자리로 정하였던 것이다. 설사 선왕의 유명이라고 하더라도 길지(吉地)가 아닐 경우 마땅히 계획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1821. 3.22 건릉을 옮기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조정의 의견을 물어 보라고 명하여 영부사 이시수(李時秀)가 말하기를, 건릉을 옮기는 의논은 여러 사람의 의논이라 하며, 신이 경신년에 충호사의 임무를 맡았는데, 관곽의 일만 감독하였다. 그러다가 능의 역사를 끝마친 뒤에 가만히 여론을 들어보니 하자가 있다는 의논이 많았으므로, 사사로이 다른 사람보다 배나 더 마음에 부끄러움과 아픔이 맺혔으니, 감히 말하지 못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번 국구(國舅) 김조순이 상소로 청한 것은 선현의 논의를 끌어다 근거로 삼았는데, 명백하고 정당하며 간곡하여 실로 못사람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 만약 이 기회로 인하여 편안하고 튼튼한 좋은 땅에 옮긴다면 진실로 국가의 억만년 무궁한 복록으로서, 신이 밤낮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오직 바라건대, 여러 의견을 널리 물어보신 다음 마음에 결단을 내리소서.”라고 하였다. 여러 신하들도 “건릉의 자리가 좋지 않다는 것에 대해 대소 신민들이 마음 아파하고 억울해 하고 있으나 다만 사체가 더없이 중대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앞장서서 청하는 사람을 하나도 보지 못한 것이다. 이번 국구(國舅)가 올린 상소는 온 나라 사람들의 똑같은 소원이다. 더구나 성상의 비답에 ‘대행 왕대비께서 이 일에 대해 매우 근심하였다.’고 하교하셨으니, 지금 이장하는 날을 당하여 마음에 결단을 내려 거행하신다면 이는 진실로 자전의 뜻을 준수하고 못사람의 뜻을 따르시는 도리이자 성상의 효성에도 빛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건릉의 천장을 공론화 시키게 된다.¹¹⁶⁾

1821. 4.10 관상감 제조 김조순(金祖淳)은 “수원의 옛날 향교 터에 가서 나무를 베고 자세히 살펴보니, 풍수가의 여러 의논이 모두 좋다 하였고, 비록 신 등의 보통 안목으로 말하더라도 지리는 진실로 알 수가 없지만 산세(山勢)가 밝고 아름다우며 국면(局面)이 멀리 툭 튀어 있으니 참으로 좋다고 말할 만하다. 또, 기유년 <사도세자의 묘소를> 이장할 때에 이곳을 이미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이 원지(園誌)에 기재되어 있고, 일찍이 원관(園官)을 지낸 이의 말도 선왕조 때부터 말했었다고 하니,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이 함께 가서 재차 살펴보아야 하겠다.”하였다.¹¹⁷⁾

1821. 4.21 건릉을 이장할 곳을 수원 옛날 향교 터로 정하라고 명하였다. 상지관(相地官)인 사과(司果) 남양진(南陽進) “교하(交河)의 장릉(長陵) 재실(齋室) 뒤는 내려오는 산맥이 길고 멀며 곱고 아름다우며, 자리[穴處]가 안온(安穩)하고 명당(明堂)으로 넓고, 평평하니, 이는 지리서(地理書) 가운데 귀격(貴格)으로 치는 것이다. 수원의 옛날 향교 터는 산맥의 형세가 웅장하고 존엄한 가운데 또 아름답고 곱다. 그리고 거기다 장풍향양(藏風向

116) 『純祖實錄』, 卷23, 순조 21년 3월 壬申

117) 『純祖實錄』, 卷23, 순조 21년 4월 庚寅

陽)하여 혈성(穴星)이 십분 뚜렷하며 수구(水口)가 막히고 조회하는 산과 안산(案山)이 모여들었는데 수풀 사이에 아름다운 기운이 가득차 있음을 볼 수 있으니 이는 최상의 길지이다. 이 두곳을 가지고 논하면 수원이 교하보다 더 낫다.”고 했다.

판부사(判府事) 한용귀는 “이번에 교하의 장릉 재실 뒤와 수원의 옛날 향교 터를 모두 살펴보았는데, 산세의 웅장함과 혈성의 풍후함과 좌우 산맥의 모여 듦과 안산의 수려함은 두곳이 똑같은데 매우 좋은 땅인 듯하다. 또 상지관의 말을 듣건대, 역시 똑같이 찬미하면서 ‘만약 수원을 교하에 비교하면 매우 귀하고 매우 길한 품격은 매우 차등이 난다.’고 하였다.

판부사 김사목은 “수원의 옛날 향교 터는 풍수가의 말뿐만 아니라 살펴 본 여러 신하들이 너나없이 찬미하였다.”하고, 총호사 남공철은 “교하의 장릉 재실 뒤의 터는 웅장 수려하고, 수원 옛날의 향교 터는 안온 풍후 하니 모두 대단히 길한 자리라고 할 만하다. 여러 대신과 여러 당상관의 소견도 이의가 없고 상지관 등도 극구 칭찬하면서 모두 최상의 길지라고 하였다. 관상감 제조 김조순은 “신이 교하에 두 번 나가고 수원에 세번 나갔는데, 여러 풍수가들이 모두 찬미하고 서로 어긋나는 논의가 없었다. 비록 보통 안목으로 말하더라도 모두 최상의 좋은 자리임을 알 수 있으므로 진실로 감히 피차의 고하(高下)를 따져서 대답할 수 없으나 수원이 교하보다 못하다는 것은 정말 논할 것도 없다. 천릉 도감 당상 김이양은 “신은 여러 풍수가들의 말을 들어보니 모두 수원을 최상의 길지라고 똑같이 말하였다. 산릉 도감 당상 이상황은 “이번에 두 곳을 살펴 본 상지관들의 논의가 모두 지극히 좋고 흠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수원에 있어서는 원침의 국내(局內)에 이같은 최상의 길지를 만났으니, 천리와 인정으로 참작하건대 진실로 우연이 아니다.”하고, 예조 판서 김노경은 “신이 연전에 원관(園官)으로 있을 때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에 원지(園志)를 상고해 보니 역시 성상의 말씀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번에 택한 산등성이가 과연 서로 부합되었으니, 자못 천지가 묵묵히 도운 것 같다.”도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경들의 말이 매우 옳다. 더군다나 상지관이 모두 대단히 길하여 교하보다 낫다고 하니, 다시 다른 의논이 있겠는가? 옛날 향교 터

로 결정하겠다.”고 하였다.¹¹⁸⁾

1821. 9. 6 천릉 도감(遷陵都監)에서 장계(狀啓)하기를, “광중(壙中)의 재궁을 드러낼 때에 아랫 모퉁이에 있는 판자 전면의 회격(灰隔)을 모두 쪼아내자 그 아랫 모퉁이에 있던 판자가 비로소 노출되었다. 그런데 외재궁(外梓宮)의 서쪽 가장자리에 있는 판자 안 틈에서 물이 계속 솟아나와 삼시간에 네 통(桶)에 가득하였고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한결같이 그치지 않았다. 외재궁의 동쪽 옆에 있던 판자 안에서도 물이 새어나왔으며 지판(地板) 밑에서도 물이 흘러나왔다. 외재궁 밑 모퉁이에 있던 판자를 먼저 꺼내어 보니, 재궁 위의 반쪽 한 자 두 치 다섯 분은 물이 스며든 흔적이 없고, 그 밑으로 반쪽 한 자 다섯 분은 물거품이 사방으로 둘러 있어 그 빛깔이 소금밭과 같았다. 그곳에 고인 물을 비록 기울여 쏟아냈으나 아직 남아 있는 물이 지판 위에 질펀히 깔려 있어 마치 진흙이 섞여 있는 듯하였다. 재궁이 오른쪽으로 조금 옮겨져 있었으므로 자로 재 보았더니 왼쪽 가장자리가 두 치 일곱 분이었으며 오른쪽 가장자리는 두 치 다섯 분이었다.” 임금이 하교하기를, “재궁을 받들어 낼 때에 물이 매우 많았다고 하니,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가슴 아프다. 몇 년 동안 이런 곳에다 모셔 두고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 이 일을 생각하면 망극할 뿐이다.”고 하였다.¹¹⁹⁾

정조 왕릉 결정당시 건릉자리가 신료나 풍수사들 간에 길지로 거론되었으나 그후 21년 후인 효의왕후가 승하한 시점에서 건릉의 흥당설이 제기된 것은 정조와 정순왕후의 관계에서 정치적으로 풍수가 이용된 것임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정순왕후(1745-1805)는 영조의 계비로서 사도세자 죽음에 관여하였음에 따라 정조 재위 24년간은 정조의 권위에 눌려 아마 좌불안석으로 몸을 낮추고 있었을 것이다. 1800년 순조가 11세로 즉위하자 신료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수렴청정을 실시하였는데, 스스로 여자국왕[女主·女君]을 칭하고 신하들도 그의 신하임을 공언하는 등 실질적으로 국왕의 모든 권한과 권위를 행사하였다. 정조의 장례 역시 정순왕후의 의도에 따라 진행되었을 것이며, 본인의 입지강화와 정조에 대한 원한 등이 복합되어

118) 『純祖實錄』, 卷23, 순조 21년 4월 辛丑

119) 『純祖實錄』, 卷24, 순조 21년 9월 辛巳

風水의 發福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凶地에다 왕의 능침을 소점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김조순이 健陵의 천장을 임금께 상소하는 등 健陵遷葬을 공론화 시키게 된다. 김조순은 딸이 순조의 비로 책봉되면서 안동 김씨 세도정치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 또한 군왕의 무병장수와 후손들의 번창을 통한 정권안정을 기하고 아울러 가문의 지속적인 번영을 꾀하려는 풍수적 의도가 다분히 숨겨져 있었을 것으로 본다.



<그림 27> 건릉 전경

제 5 절 健陵의 風水地理的 分析

1. 祖宗山の 來歷

健陵은 隆陵과 같이 花山을 주산으로 하고 있으므로 조종산의 내력은 용릉에서 기슭한 바와 같이 광교산이 태조산, 오봉산이 중조산, 칠보산이 소조산, 화산이 주산이 된다.

2. 來龍의 地氣

健陵으로 입수한 내룡은 주산인 화산에서 출맥하였고, 화산에서 출맥한 용은 서진하면서 내려오다 오른쪽 지각을 이용하여 남서쪽으로 몸을 돌려 전진하다 過峽을 만들고 나서 기봉하면서 2갈래로 분기하게 되는데 하나는 남쪽으로 뻗어나간 용룡의 주룡이며, 다른 하나는 서쪽으로 뻗어나간 건룡의 주룡이 되는 것은 앞서 용룡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隆陵과 健陵의 龍脈이 분기하는 지점에서부터 서진하는 내룡을 낳았으며, 내룡은 용룡보다 더 많은 상하기복 좌우요동 하면서 활달한 기세로 뻗어가게 되는데 健陵의 來龍은 지각과 요도, 과협이 잘 발달되어 있어 전형적인 생룡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내룡을 따라 수목이 무성하고 용의 모습이 수려하고 단정하다. 그러나 玄武頂에서 혈처로 입수하는 용의 모습이 너무 넓고 크서 큰 과협이나 굴곡을 만들지 못하여 생기를 전달하는 용맥이 뚜렷하지 않지만 계축룡으로 내려오다 약간의 변화를 일으키며 壬子龍으로 입수하게 된다. 길용인 旺龍의 경우 강한 기의 여파로 과협이 형성되는 않을 수 있다고 하므로 형기적으로 健陵의 入首龍은 생룡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혈이 맺힐 수 있는 터라 할 수 있겠다.

理氣論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水口를 어디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숲이 울창하고 健陵의 左靑龍 끝이 낮아 파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수구는 병파로서 병오파는 수국이므로 수국의 임자룡은 長生龍이 된다. 그러나 병오파 태향태류 우선수에서는 養龍만 진룡이 되며, 장생룡은 득수를 하지 못하여 진룡이 되지 못한다.

3. 四神砂의 局勢

花山으로부터 뻗어 내려온 지맥이 健陵 혈장 우측을 감싸는 백호가 되고, 좌측으로 뻗어 내려간 지맥은 건룡 혈장 좌측을 감싸도는 靑龍이 된다. 혈장 주위를 둥글게 감싸고 돌던 靑龍과 白虎는 水가 합수되는 지점부터는 곧장 나란히 일직선으로 뻗어 내려가 버린다. 그 형태는 주산에서 맥

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本身靑龍, 本身白虎가 되며, 外靑龍이 겹겹이 감싸고 있다. 다만, 右白虎의 세력은 기세가 당당하나 內靑龍의 경우 내려올수록 낮고 평평하며 右白虎에 비해 빈약한 감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내청룡과 내백호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거의 일직선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구를 관쇄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룡은 끝으로 올수록 융릉의 경우처럼 평평하게 된다.

丁方에 토성 형태의 안산이 살풍을 막아주고 있다. 안산 너머로 병풍처럼 조산이 연결되어 혈처에 조용하고 있다. 전체적인 보국으로 보아 健陵의 局勢는 隆陵과 비교해 볼 때 청룡과 백호의 지세가 양팔을 뻗은 것처럼 나란히 진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장풍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림 28> 건릉과 안산

4. 水勢와 坐向

乾陵의 坐向은 자좌오향이다. 乾陵에 영향을 미치는 보국의 안의 水는 庚方에서 득수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흐르고 즉 右水到左하여 丙破로 거수된다. 내당 右旋水에 외당까지 우선수라 자연순행이 되어 장풍이 양호하다. 물길은 우측에서 흘러온 물이 혈 앞을 돌아 좌측에서 흘러온 물과 합수한 다음 곧바로 흘러내려간다. 혈장에서 바라본 물길은 직류하게 되는데 이러한 물길은 재물이 쌓이지 못하고 탕진된다고 하였다.

5. 綜合分析

건릉의 坐向은 子坐午向이며, 水口는 丙破이다. 內堂 右旋水이고 丙破는 水局의 胎破이다. 우선한 물이 丙方으로 빠지는 水局의 우선수에서는 입수룡이 입자룡이면 12포태상 장생룡이다. 88향법상으로는 수국의 우선수 태파는 胎向胎流인 병오향을 놓아야 한다.

『地理五訣』의 胎向胎流인 임좌병향, 자좌오향에 대한 12수구 길흉판단법을 살펴보면, 우수가 좌측으로 흐르며, 향상의 丙字로 나가며 午字를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오직 百步轉欄¹²⁰⁾하여야 하며 수국의 태향태파에 합당하여야 한다. 出殺한다고 할 수 있으며, 胎位를 충파하지 않는다. 대부대귀하며 人丁이 흥왕하나 중간에 혹 壽를 하지 못한 자가 생기므로 어린과부가 가끔 난다. 만약 龍眞穴의하지 못한다면 葬後에 패하지 아니하면 絶祀하리니 가벼이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였다.¹²¹⁾

胎向胎流는 혈 우측 관대궁(冠帶宮)에서 득수한 물이 沐浴水, 長生水, 양수의 기운을 가지고 혈 앞에 모여 胎向에서 혈과 교합 후 向앞에 胎宮으로 빠져 나가므로 당문파(當門破)이고, 당면출살법(當面出煞法)이라 한다.

120) 혈장에서 수구까지의 직선거리가 135미터 안쪽이고, 수구가 너무 멀거나 떨어져 있어 물이 곧게 흘러가는 것이 보여서는 안 된다. 즉 수구가 가까워야 기가 응집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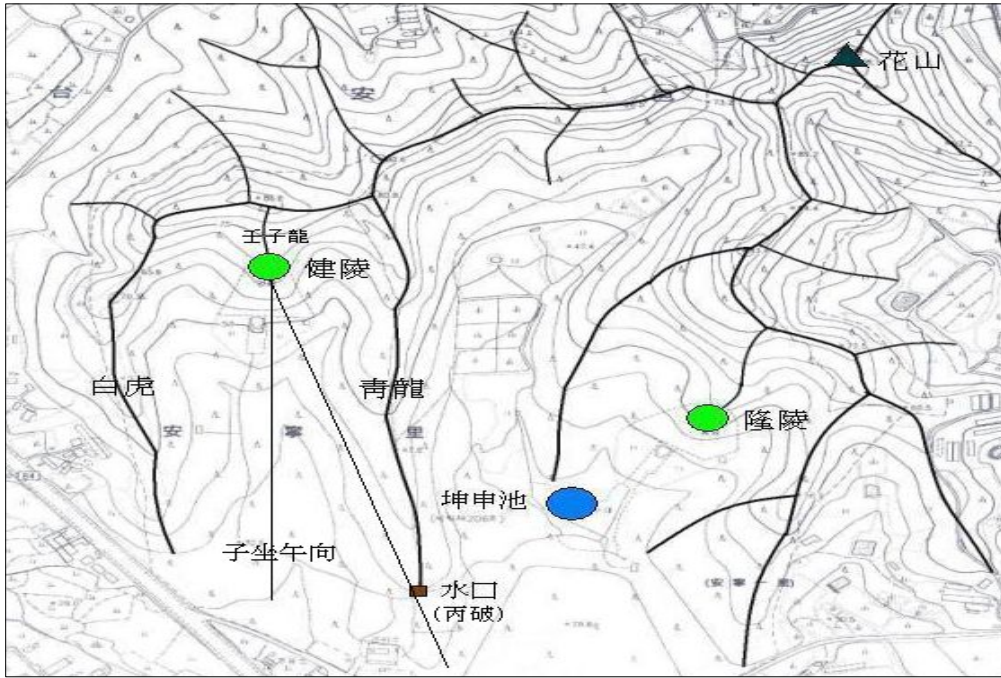
121) 조정동, 『전계서』, p308

당문과는 물이 곧장 빠져나가면 안되고 구불구불 천천히 흐르면서 파구가 완벽하게 관쇄되는 百步轉欄에 不見直去해야 한다. 용진혈적(龍眞穴)에 胎向胎流는 주로 大富大貴에 人丁興旺한다. 그러나 龍弱非穴이 되거나 수범지지지(水犯地支字)이면 비패즉절(非敗卽絶)하므로 不可輕用이다.¹²²⁾

건륭의 형세적인 요건은 물이 혈 앞에 모였다가 직거하는 형태이고, 백보전란이 되지 않으며, 破를 천간과 밖에 쓰지 못하므로 向도 천간과를 사용하여 壬坐丙向만 입향할 수 있는데 子坐午向으로 놓게 됨으로서 向法에도 맞지 않다. 아울러 임자룡은 장생룡이지만 우측에서 흘러온 물이 병방으로 흘러갈 때, 임자룡은 병오방으로 물과 함께 뺏어가게 되어 득수를 하지 못하고, 득수를 하지 못하면 혈을 맺는 진룡이 되지 못해 용진혈적이 되지 않는다.

건륭의 경우 형기상 수구를 관쇄하지 못하여 원만한 보국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이기론상의 향법에 맞지 않는다. 물이 직거하는 것이 보이며, 天干破에서 정혈과 입향을 하여야 하는데 지지파에 입향을 하고 있으며, 혈장에서 수구까지의 직선거리가 백보 안쪽에 있어야 하는 백보전란이 되지 않고 있으며, 득수를 못하여 진룡이 되지 못하고 있다. 태향태류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 대부 대귀하지만 龍眞穴의하지 못한다면 葬後에 絶祀하므로 가변이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만큼 각국의 胎破를 수구로 하여 혈처를 소점하는 것은 조건이 까다롭고 어려우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방법이다. 건륭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胎向胎流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후손들이 단명, 절손한 것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122) 안종선, 『전계서』, p516



<그림 29> 건릉의 용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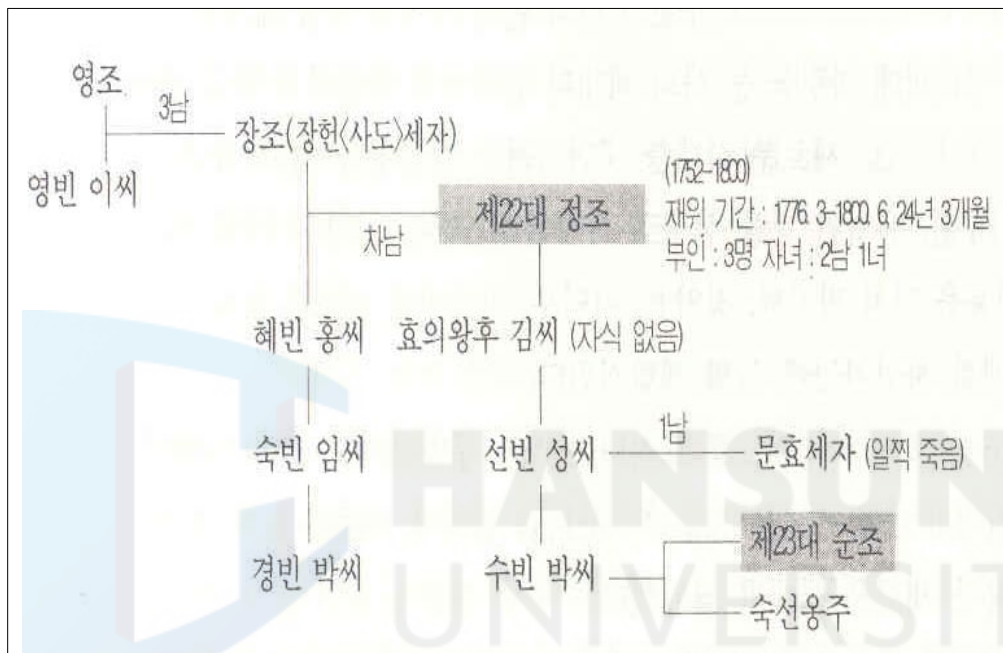
제 6 절 隆健陵의 風水의 評價에 따른 後孫發福의 相關關係

隆健陵에 대한 풍수적인 해석이 後孫의 發福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풍수적 평가결과 形氣적으로 대체적으로 龍穴砂水가 잘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向法으로는 맞지 않다고 하였는데 사료상에 나타난 思悼世子와 正祖의 후손들에 대한 吉凶禍福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正祖는 1789년 천장을 한 후 隆陵을 顯隆園이라 이름 짓고는 틈만 나면 찾았다. 그리고 바로 이듬해 6월 18일 정조는 수빈박씨(綏嬪朴氏)로부터 고대하던 원자를 낳았다. 55년전 사도세자가 태어났던 창경궁 집복軒(集福軒) 바로 그 자리에서 있었는데 공교롭게 이날은 思悼世子の 부인 해경궁 홍씨의 생일이었다. 6월24일 正祖는 원자 탄생을 축하하는 대사면을 내렸다. “하늘의 두터운 은혜와 조종(祖宗)의 말없는 도움을 받아 원자가 탄생했다. 정조가 강조하고 싶었던 ”말없는 조종“은 부친 사도세자 었다. 광중에 물이 고여 있던 악지(惡地)로 이장한 보답이 서른아홉 늦은 나이의 득

남이라고 믿었던 것이다.¹²³⁾ 바로 이때 태어난 원자가 순조 임금인데 사도 세자의 묘를 흥지에서 明堂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아들을 둘 수 있었다는 風水發福說이 부각되기도 하였지만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정조는 효의왕후 김씨를 비롯하여 3명의 부인에게서 3명의 자녀를 얻었는데, 효의왕후는 자식을 낳지 못했으며, 성빈 성씨가 문효세자, 수빈박씨가 세자 공(순조)과 숙선옹주를 낳았다. 이들 중 문효세자는 어린 나이에 죽은 탓으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정조는 1800년 6월, 49세 되던 해에 지병으로 알고 있던 종기가 도져 세상을 떠났다.¹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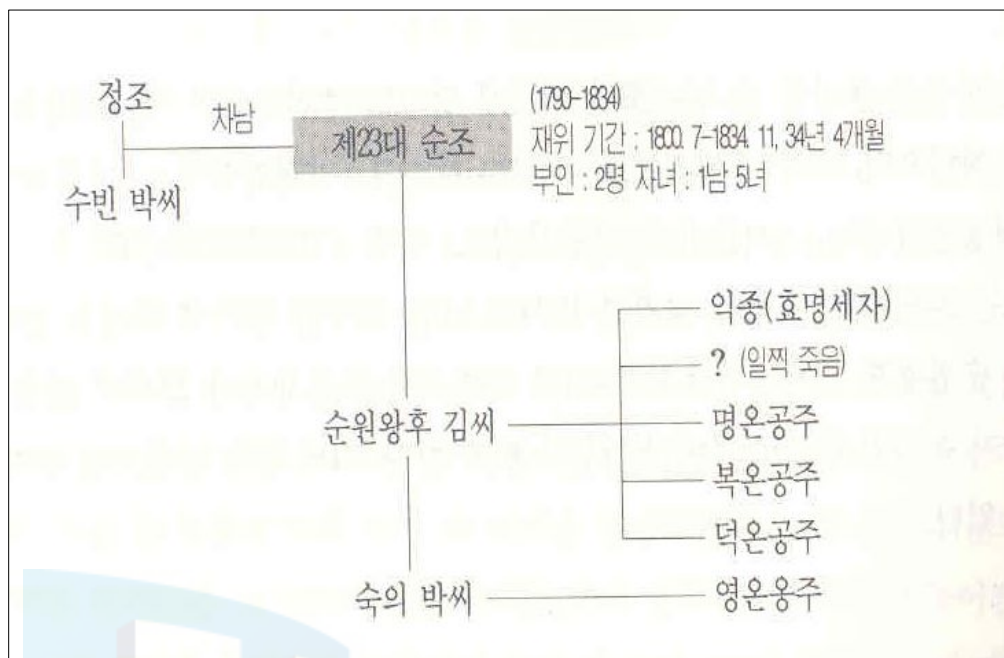
〈그림 30〉 제22대 정조 가계도

순조는 순원황후 김씨 외에 숙의 박씨가 있으며, 순원황후 김씨가 후에
 익종으로 추존된 효명세자를 비롯하여 4녀를 낳고, 숙의 박씨가 1녀를 낳
 았다. 순원황후 김씨는 세도 정권의 창조인 영안부원군 김조순의 딸이다.
 효명세자는 1812년 순조 12년에 왕세자에 책봉되었으며, 1827년 부왕의 명

123) 이덕일, 『정조와 철인정치의 시대 2』, 고즈원, pp81-82

124) 박영규,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들녘, 1996, pp384-3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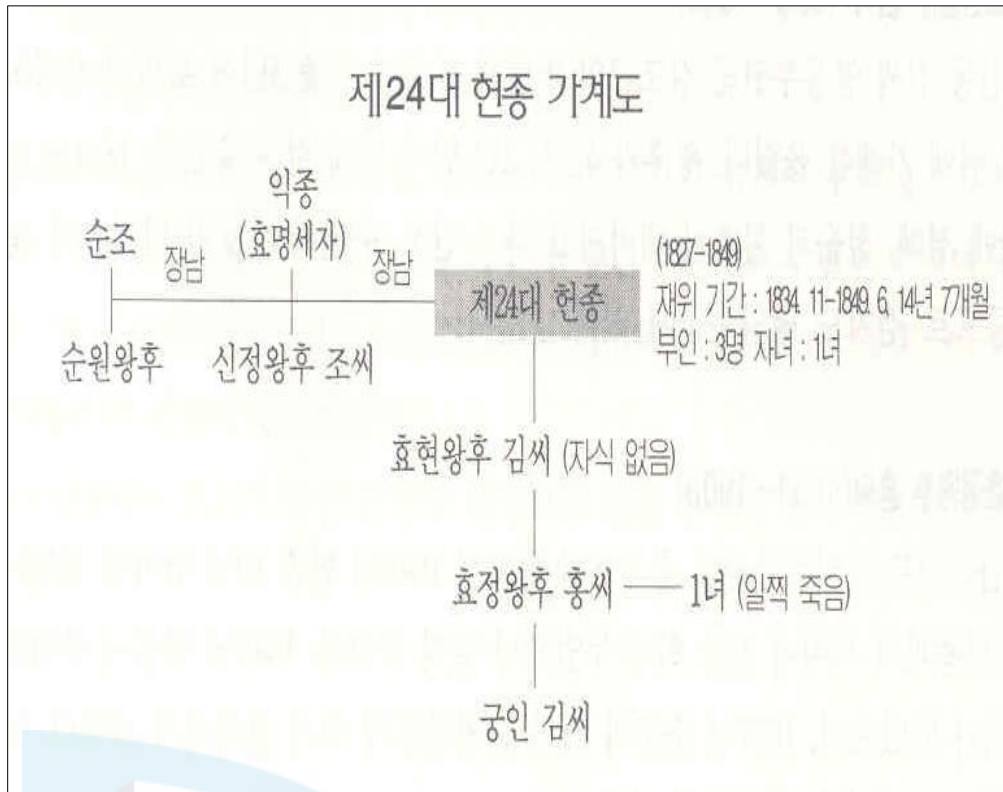
으로 대리청정을 하였으며 대리청정 4년만인 22세에 죽는다. 순조는 34년간 재위하다가 1834년 11월 4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효명세자가 22세의 젊은 나이로 죽자 손자인 환(헌종)으로 하여금 왕통을 잇게 한다.¹²⁵⁾



<그림 31> 제23대 순조 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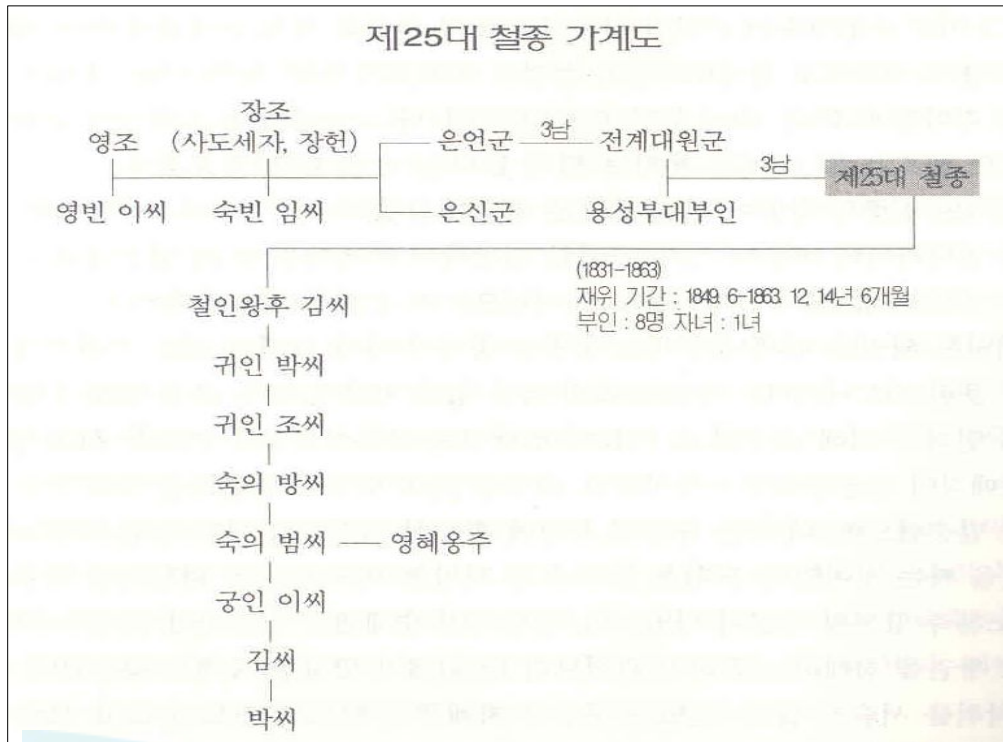
헌종은 효현왕후 김씨를 비롯하여 계비 효정왕후 홍씨, 그리고 후궁 1명을 두었으나 후사가 없었다. 헌종은 14년의 재위 기간중 6년의 수렴청정 기간을 제하면 9년의 친정기간을 갖게 되는데 그나마 이 기간 중에도 세도정권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헌종이 22세의 젊은 나이에 죽음으로서 사도세자-정조-순조-효명세자-헌종으로 후사가 이어졌으나 헌종 이후 후손은 절손되는 비운을 맞게 된다.

125) 박영규, 『전계서』, pp401-402



<그림 32> 제24대 헌종 가계도

헌종이 1849년 6월 6일 후사 없이 죽자 6촌이내에 드는 왕족이 없어 항렬상 헌종의 7촌 아저씨가 되는 전계대원군의 아들 원범을 즉위시키게 되는데 이가 바로 철종이다. 철종은 사도세자의 증손자이자 정조의 아우 은언군의 손자이다. 철종의 자식들은 유난히 단명했다. 철인왕후 김씨가 아들 하나를 두었으나 일찍 죽었고, 그 외에 후궁과 궁인에게서 아들 넷을 얻었으나 어찌된 셈인지 모두 일찍 죽었다. 철종 역시 1863년 12월 8일 재위 14년 만에 33세의 일기로 죽고 만다. 그의 유일한 혈육으로는 숙의 범씨에게서 난 영혜옹주가 한명 있었을 뿐인데 그 또한 박영효와 혼인한지 3개월 만에 죽고 말았다.



<그림 33> 제25대 철종의 가계도

思悼世子가 죽고 정조가 세손이 되자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세력들이 정조가 왕위에 오르면 자기들이 위치가 위험할 것이 염려되어 새 왕자를 추대하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러나 이일이 발각되어 정조의 이복동생인 막내아들 은전군은 자결하고 은연군과 은신군은 제주도에 유배되나 은신군은 제주도에서 병사하고 은연군은 아내 송씨와 큰 며느리 신씨가 1801년 천주교 신자로 사사되면서 함께 사사되었다.

사도세자와 숙빈임씨 사이에서 태어난 은연군에게 아들 셋이 있었는데 큰아들 상계군 담은 1779년 정조3년 모반죄로 몰려 강화도에 유배되었다가 자살하였으며, 헌종 10년에 안동김씨의 권력에 탐이 생기자 이틈을 이용하여 민진용이 은연군의 손자이자 이광의 아들인 원경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 모의를 꾸미다가 발각되어 여기에 연루된 이광의 첫째 아들 원경이 사사된다. 여기서 살아남은 둘째아들 경웅과 셋째 아들 원범만이 살아남는데 이들은 또 다시 강화도로 유배되는 곡절을 겪는다.¹²⁶⁾

思悼世子の 後孫이 正祖에서부터 조선 마지막 왕인 순종까지 이어지기는 하나 고종의 조부인 남연군은 인조의 셋째 아들인 인평대군의 6대손으로서 남연군이 어렸을 때 사도세자의 둘째 아들 은신군의 양자로 입적되었다. 이경응(永平君) 역시 몸에 고질적인 병이 있어 대를 이을 가망이 없어 양자를 입적하여 대를 이었으므로, 융건릉의 주인공인 사도세자와 정조의 피를 직접적으로 이어받은 後孫은 완전히 絶孫되어 버린다.



126) 박영규, 『전계서』, pp418-424

제 5 장 결 론

風水地理는 生氣 있는 땅(터)를 찾아 묘자리를 잡거나 건물을 건축하며, 촌락 또는 도시를 입지시키므로써 각각 후손부귀, 건물 거주자의 인생변영, 都村의 성장.발전을 도모하려는 運命開拓學文이다. 즉 風水地理는 주어진 운명에 굴하지 않고 生氣라는 자연의 힘을 이용하여 인생과 국가 등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바꾸려는 미래지향적인 "터 잡기 학문"으로 정의할 수 있다. 生命力 있는 氣, 즉 生氣를 매개체로 하여 땅의 生氣가 무덤에 묻혀 있는 조상의 遺骨의 氣와 感應하여 전달되고, 祖上 遺骨의 氣는 살아있는 후손의 기가 서로 感應하는 한다는 일련의 시스템으로 陰宅理論의 골간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風水地理學은 經驗科學的 學文으로 미신적 술수보다는 陰陽論에 바탕을 두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룬 터를 좀더 학문적으로 수렴해 가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므로 風水의 학문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이론적으로 연구되고 객관적으로 검증되는 학문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검증방법의 하나로 風水地理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는 조선왕릉 중 隆健陵을 선정하여 풍수지리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되었으며, 후손 발복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연구를 하였다.

隆健陵의 경우 思悼世子の 죽음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 朝鮮의 文藝復興期를 이룩한 정조의 치세 동안과 死後의 宮內의 역학관계, 그리고 정치적 주도권을 掌握하려는 政略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정치적 소용돌이에 風水地理가 戰略的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문헌상 확인할 있다. 용건릉에 대한 풍수적 분석 부분에는 대해서 사료상에 나타난 것 외에 사실상 연구되어진 것이 거의 없어 직접 답사를 하고, 形氣的 風水理論과 理氣的 風水理論을 병행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隆健陵의 風水地理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隆健陵이 입지한 터의 조종산 내력은 광교산이 태조산, 오봉산이 중조산, 칠보산이 소조산, 화산이 주산이 된다. 용릉의 주산인 화산은 백두

산에서부터 출발한 용이 백두대간, 호서정맥, 한남정맥, 서봉지맥을 타고 단절됨이 없이 달려오다가 물을 만나면서 전진을 멈추게 되므로 백두대간의 정기가 힘차게 흘러들어와 氣가 응집될 수 있는 터이다.

둘째, 地氣가 충만한 곳이라도 우주의 나쁜 기운이 비추는 방향이면 부귀가 불발하고 크고 작은 재앙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용릉의 경우 龍穴砂水가 제대로 갖추어진 生氣가 凝縮되어 대혈을 맺을 수 있는 길지로 판단되나 理氣論으로는 향법에 맞지 않다. 『地理五訣』에서는 절태수 즉 경유방의 태수와 곤신방의 절수가 향 앞에 이르게 되므로 아이를 생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아이를 가지면 죽고 後嗣가 끊어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람은 상하고 재물은 敗하며 大凶하여 그 禍가 빨리 온다고 하였다.

風水地理의 形氣的 요건인 龍穴砂水를 모두 갖춘 길지에 해당되어 천장 이후 순조가 태어나고 정조 역시 遷葬後 11년간 재위하였고 49세까지 산 것으로 보아 明堂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기론적으로 보아서는 향법이 맞지 않다. 隆陵의 向法은 살인대황천에 해당되어 후사가 끊어지고 사람은 상하고 재물은 패하며 대흉하여 그 禍가 빨리 온다고 하였다. 비록 隆陵으로 이장한 이듬해 純祖가 탄생하기는 하나, 정조는 천장 후 11년만에 49세의 나이로 병사함으로써 정조가 꿈꾸었던 변화와 개혁정치는 멈추고 만다.

乾陵의 경우에도 形氣論上으로 入首龍脈의 변화가 미약하고, 청룡과 백호가 나란히 뻗어 감에 따라 물이 직거하여 설기되고 있으며, 理氣論上으로도 向法에도 맞지 않다. 건릉은 88향법상 胎向胎流에 충족되는 요건을 전반적으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태향태류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대부대귀하지만 중간에 수명을 다하지 못한 자가 생기며, 용진혈적이 되지 않는 등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葬後에 敗絶하게 된다. 正祖 사후 세도 정치의 폐단으로 정치기강이 문란해지고 민생이 도탄에 빠지며, 각종 비기와 참살이 유행하는 일대 사회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 특히 입향을 잘못하게 되면 후손이 短命, 絶孫하거나 慘禍를 입게 된다는 것을 『地理五訣』의 12수구길흉판단법에서 평가하는 바와 같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셋째, 隆陵으로의 遷園은 부친인 思悼世子를 추송하는 효심과 風水의 發福을 꾀하려는 正祖의 개인사적인 입장뿐만 아니라 천원이라는 風水의 名分을 내세워 화성축성 등 수원 新都市를 建設을 통한 王權을 強化하려는 정조의 깊은 정치적 의도가 담겨져 있다. 능원에 대한 천장은 사도세자에 대한 효심에서 비롯되었으며, 孝道思想에서 깊이 뿌리박힌 祖上崇拜 行爲로 정당화될 수 있었다. 顯隆園을 천봉한 후 매년 1차례 이상 총 13번의 현릉원 원행을 할 만큼 효를 실천하였다. 현재 수원을 효원의 도시로 불려지고 있는 것은 여기서 기인한다. 또한 정조는 왕권강화를 위해 변화와 개혁을 뒷받침 해줄 政治的.軍事的 據點이 필요하여 수원성을 축성하게 되는데 顯隆園 遷園이라는 風水的인 명분을 내세워 자연스럽게 신도시 건설을 이끌어내는 고도의 전략이 숨겨져 있다 하겠다.

넷째, 隆陵의 능침 자리가 조선 3대 명당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지만 사람마다 보는 시각에 따라 形氣的 평가를 달리하고 있다. 효종의 능지 선정 관련 화산지역에 대한 풍수적 논쟁시 일부 신료들은 혈이 미약하고 국세가 좋지 않다는 등 길지가 아니라는 풍수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실제 현장답사 결과 이러한 주장이 타당성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건릉의 경우 저명한 地官들이 그토록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明堂이 권력을 장악한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길흉판단을 역시 달리하고 있어, 風水地理가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정조 왕릉 결정 당시 건릉자리(초장지)가 신료나 풍수사들 간에 길지로 거론되었으나 그후 21년 후인 효의왕후가 昇遐한 시점에서 건릉의 흥당설이 제기된다. 正祖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정순왕후(1745-1805)는 정조 재위 24년간은 정조의 권위에 눌려 있다가 1800년 순조가 11세로 즉위하자 수렴청정을 실시함으로서 실질적으로 국왕의 모든 權限과 權威를 행사하였다. 정조의 장례 역시 정순왕후의 의도에 따라 진행되었을 것이며, 본인의 입지강화와 정조에 대한 원한 등이 복합되어 흥지에다 正祖의 능침을 소점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정순왕후가 죽은 후 순조가 친정을 하게 되는데 김조순이 健陵의 천장을 임금께 상소하는 등 健陵遷葬을 공론화 시키게 된다. 김조순은 딸이 순조의 비로 책봉되면서 안동 김씨 세도정치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데 이 또한 군왕의 무병장수와 후손들의 번창을 통한 정권안정을 기하고 아울러 가문의 지속적인 번영을 꾀하려는 風水的 發福 의도가 숨겨져 있었을 것으로 본다.

이상과 같이 隆健陵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風水地理 관련 여러 가지 사항을 다각도로 살펴본 바, 風水地理가 국가를 경영하는데 있어 정략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理氣論의 경우 패철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향만 알게 되면 向法에 따라 바로 대입하여 길흉화복을 바로 평가할 수 있고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나 형기론의 경우 산천의 형태를 눈 등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주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吉凶 判斷을 명료하게 내리는데 한계가 있다. 形氣論은 體이고 理氣論의 用으로서 서로 不可分の 關係로 風水를 지탱하는 양대축이다. 서로 생명줄을 쥐고 있어 함께 가야하는 運命的 共生關係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풍수지리학이 보다 완벽한 학문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하여는 形氣論의 토대위에 理氣論을 접목시키는 형태로 形氣와 理氣 風水 두 이론을 통합화,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남철, 『땅, 맥을 찾아서』, 문두사, 2006
- 고제희, 『다시 찾은 도선국사비기』, 대동풍수지리학회, 2000
- 고제희, 『쉽게하는 풍수공부』, 동학사, 2008
- 고제희, 『정통 풍수지리교과서 1-4』, 문예마당, 2009
- 고제희, 『손감묘결』, 다산북스, 2008
- 김두규, 『권력과 풍수』, 도서출판 장락, 2002
- 김두규, 『풍수학 사전』, 비봉출판사, 2005
- 김두규, 『우리땅 우리풍수』, 동학사, 2006
- 김두규, 『논두렁 밭두렁에 명당이 있다』, 랜덤하우스 코리아, 2006
- 김두규, 『우리 풍수 이야기』, 북하우스, 2008
- 김두규, 『풍수강의』, 비봉출판사, 2008
- 김두규, 『내운을 살려주는 풍수여행』, 삼영인쇄사, 2008
- 김종의, 『자연의 원리 땅의 이치』, 세종출판사, 2007
- 김호년, 『땅을 알고 터를 잡자』, 동학사, 2002
- 무라야마 지준, 『한국의 풍수』, 정현우 역, 명문당, 2009
- 박성태, 『신 산경표』, 조선매거진, 2008
-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2008
- 박영규,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들녘, 1996
- 복응천(卜應天), 『설심부』, 신평 역(고전풍수학 설심부), 관음출판사, 1997
- 안종선, 『전통의 문화 음택풍수』, 매직북, 2009
- 오홍석, 『당신도 명당을 볼 수 있다』, 덕산미디어, 1998
- 이덕일, 『정조와 철인정치의 시대 2』, 고즈원, 2006
- 이명범, 『풍수지리학 강의요강』, 서예문인화, 2006
- 이은식, 『풍수의 한국사』, 도서출판 타오름, 2010
- 이익중, 『복을 부르는 길한터, 재앙을 부르는 흉한터』, 우성출판사, 2003

이태호, 『새로 쓰는 풍수지리학』, 도서출판 아침, 1999

장성규.김혜정 역, 『완역 풍수경전』, 문예원, 2010

장영훈, 『왕릉풍수와 조선의 역사』, 대원사, 2006

정경연, 『정경연의 부자되는 양택풍수』, 평단문화사, 2008

정광영, 『부동산+풍수=도깨비방망이』, 갑진출판사, 2002

정관성, 『확트이는 풍수, 짝 잡히는 지리』, 청학출판사, 2007

정해득, 『정조시대 현릉원 조성의 수원』, 신구문화사, 2009

조광, 『土와 命』, 열린문화, 2001

채성우, 『명산론』, 김두규 역, 비봉출판사, 2004

최낙기, 『풍수지리를 올바르게 알면 부자가 될 수 있다』, 한국학술정보, 2007

최창조, 『청오경.금낭경』, 민음사, 2008

최창조, 『최창조의 새로운 풍수이론』, 민음사, 2009

최홍규, 『정조의 화성건설』, 일지사, 2001

2. 논문

강현주, 「부동산 입지선정에 관한 풍수지리학적 연구」, 인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권영휴, 「한국 주거환경의 풍수적 해석 및 입지평가 모델개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권창근, 「대통령 생가에 관한 풍수지리적 고찰」,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김기훈, 「서울 강남.북의 풍수지리적 명당특성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남오우, 「호순신의 지리신법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박경정, 「동구릉의 풍수지리적 고찰」,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박시익, 「풍수지리설과 건축계획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8

- 박시익, 「풍수지리설 발생배경에 관한 분석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 박종득, 「이기풍수와 형기풍수의 비교」,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서문중, 「서울의 지세와 궁궐입지에 대한 풍수지리학적 분석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신원근, 「거제향교의 풍수지리적 고찰」,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이문호, 「산의 상중하에 위치한 묘소와 자손수의 상관관계」,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이상인, 「조선시대 주거문화의 풍수지리적 특성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이훈석, 「음택풍수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조남선, 「창덕궁의 풍수지리적 입지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최삼중, 「조선시대 중엽 음택명당의 자손발복에 대한 고찰」,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편은범, 「조선왕릉의 좌향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한승구, 「종묘의 풍수지리 입지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홍성서, 「풍수지리에서의 동기감응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3. 학술논문

- 김동욱.우희중, 「현릉원의 입지선정과 원침계획에서 정조의 역할」, 『한국건축역사학회지 통권 제6호』, 2008
- 성동환, 「현릉원 천원과 화성건설을 통해본 정조의 풍수지리관」, 『한국사상학 제17집』, 2001

- 심우경 외 3인, 「용건릉 일원의 입지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25권4호』, 2007
- 이남규, 「화성 용건릉-용주사 지역 역사문화적 배경과 그 의미」, 『미술사학집 제31집』, 2008
- 정성태, 「풍수 88향법의 환경분석적 연구방향의 모색」, 『한국조경학회지』, 2007

4. 사료

- 『정조실록』
『순조실록』
『현종실록』
『홍재전서』

5. 웹사이트

- 국사편찬위원회, <http://www.history.go.kr>
- 김두규 풍수이야기, <http://www.korea-fengshui.com>
- 대동풍수지리학회, <http://www.21fengshui.com>
- 문화재청 용릉관리소, <http://hwaseng.cha.go.kr>
- 수원시청, <http://www.suwon.ne.kr>
- 정통풍수지리학회, <http://poongsoogiri.org>
- 풍수지리와 건축, <http://www.feng-shui.pe.kr>
- 최낙기 풍수지리 연구소, <http://cnk-fengshui.com>
- 한국고전종합BD, <http://db.itkc.or.kr>

ABSTRACT

A Study on Yung & Kern royal tombs based Fengshui

Heo, young-hun

Major in Feng shui

Graduate School of Real Estate

Hansung University

This is the study about the yung-Kernneung, which are the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based on Fengshui. Yungneung is the tomb of Sado Crown Prince and his wife, and kernneung is the King Jung-Jo and his wife's. Constructing royal tomb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national projects, investing all of the finances, labor force and time of the nation. It is based on Feng-shui which promotes the infinite development of Joseon dynasty through praying blessing of Fengshui to Select the dynasty's royal tombs sites.

This study is for investing how Fengshui principles were used when constructing the yung-Kernneung, and analysing the interrelation between yung-Kernneung and the descendent's fortune by adapting the theories of the topography(form) Fengshui and the atmospheric(compass) Fengshui.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construction of Yung-Kernneung in the view of Fengshui principles.

First of all, we are able to make certain of the truth of the matter that is reduced to riches and honors and meets with disasters in the direction of projecting bad tendency of the Universe even though there are enough strength of the earth. If the place has the terms of a propitious site for a grave in the view of the topography Fengshui but it doesn't fit the atmospheric Fengshui, a descendant may muddle through the bitters of life.

Secondly, Removing from first tomb to another place reflects the King Jung-Jo's purposes not only personal intention that tries to invoke praying blessing of Fengshui principles and dutiful to parents but also deep political intention that strengthens regal sway. Thirdly, we are able to confirm the fact which is evaluated differently in the view of the topography Fengshui according to the viewpoint of each person. Fourthly, Fengshui principles is used as political power because the great propitious site for a grave is judg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main agent who commands the power.

Overall, Fengshui is strategically used for administering a country. In the case of the atmospheric Fengshui, we are able to reach the same conclusion by evaluating the fortune with a tool called Paechul(Compass).

On the other hand, it is hard to conclude the fortune clearly because we have a tendency to evaluate subjectively through a sense organ like eyes. The topography and the atmospheric Fengshuis are inseparable and are the axes, supporting Fengshui principles. Therefore, there should be an effort to combine and systemize by combining two theories in order to make Fengshui more perfect.